

An In-depth Analysis of Goyang Citizens' Needs  
for Community Security

고양시민  
지역사회보장욕구  
심층 분석

문정화  
선승아

An In-depth Analysis of Goyang Citizens' Needs for Community Security

## 고양시민 지역사회보장욕구 심층 분석

### 연구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선승아(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발행일 2022년 08월 31일

저자 문정화, 선승아

발행인 정원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http://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31726-57-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목 차

|   |           |
|---|-----------|
| 요약 .....                                  | i         |
| <b>제1장 서론 .....</b>                       | <b>01</b>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03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 06        |
| <b>제2장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b>   | <b>09</b> |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 지표 .....                | 11        |
| 제2절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                    | 18        |
| <b>제3장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심층 분석 .....</b>      | <b>23</b> |
| 제1절 아동 돌봄 .....                           | 25        |
| 제2절 성인 돌봄 .....                           | 31        |
| 제3절 보호·안전 .....                           | 44        |
| 제4절 건강 .....                              | 55        |
| 제5절 교육 .....                              | 61        |
| 제6절 고용 .....                              | 68        |
| 제7절 주거 .....                              | 76        |
| 제8절 문화·여가 .....                           | 82        |
| 제9절 환경 .....                              | 89        |
| 제10절 삶의 질 및 인프라 .....                     | 95        |
| 제11절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분석 ..... | 102       |

|  |            |
|--|------------|
| <b>제4장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정책 방안</b> .....      | <b>107</b> |
| 제1절 영역별 욕구 종합화 .....                   | 109        |
| 제2절 영역별 정책 방안 .....                    | 125        |
| <br>                                   |            |
| <b>제5장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정책 우선순위 분석</b> ..... | <b>147</b> |
| 제1절 조사 개요 .....                        | 149        |
| 제2절 AHP 결과 .....                       | 152        |
| 제3절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                | 162        |
| <br>                                   |            |
| <b>제6장 결론</b> .....                    | <b>169</b> |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 171        |
| 제2절 정책제언 .....                         | 186        |
| <br>                                   |            |
| <b>참고문헌</b> .....                      | <b>188</b> |
| <b>Abstract</b> .....                  | <b>193</b> |

## 표 목차

|   |    |
|---|----|
| [표 2-1]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비교 | 13 |
| [표 2-2] 지역사회보장지표별 정책 비전                 | 15 |
| [표 2-3] 지역사회보장 수준 지표와 역량지표              | 16 |
| [표 2-4] 지역사회보장 수준 지표 구성                 | 17 |
| [표 3-1] 분석 자료 - 아동 돌봄                   | 25 |
| [표 3-2] 분석 자료 - 성인 돌봄                   | 31 |
| [표 3-3] 분석 자료 - 보호·안전                   | 44 |
| [표 3-4] 6개년 간 지역안전지수 비교(2016~2021)      | 45 |
| [표 3-5] 2018년 사회조사 중 사회 부문별 안전도         | 46 |
| [표 3-6] 고양시 교통안전지수                      | 51 |
| [표 3-7] 분석 자료 - 건강                      | 55 |
| [표 3-8] 가구소득 중 의료비 지출 비율                | 55 |
| [표 3-9] 행정구별 건강 비교                      | 60 |
| [표 3-10] 분석 자료 - 교육                     | 61 |
| [표 3-11] 연도별 고양시 학생과 학교의 밀도             | 62 |
| [표 3-12] 분석 자료 - 고용                     | 68 |
| [표 3-13] 근로여건 만족도                       | 70 |
| [표 3-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교            | 72 |
| [표 3-15] 분석 자료 - 주거                     | 76 |
| [표 3-16]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에 따른 주택점유 형태      | 79 |
| [표 3-17] 분석 자료 - 문화·여가                  | 82 |
| [표 3-18] 분석 자료 - 환경                     | 89 |
| [표 3-19] 도시림 면적과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비교(2019년)  | 90 |
| [표 3-20] 고양시 2030년 하수처리장별 용량과 가동률 추정    | 93 |
| [표 3-21] 분석 자료 - 삶의 질 및 인프라             | 95 |

|   |     |
|---|-----|
| [표 3-22] 시도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                     | 99  |
| [표 3-23] 분석 자료 -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분석 ..... | 102 |
| [표 3-24]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 .....                           | 102 |
| [표 3-25] 성별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차이 분석 .....                | 104 |
| [표 3-26] 세대별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차이 분석 .....               | 105 |
| [표 3-27] 세대별 필요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 .....                  | 105 |
| [표 3-28] 세대별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한 인식 분석 .....            | 106 |
| [표 3-29] 지역별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차이 분석 .....               | 106 |
| [표 4-1] 아동 돌봄 욕구 분석 .....                             | 109 |
| [표 4-2] 성인 돌봄 욕구 분석 .....                             | 110 |
| [표 4-3] 보호·안전 욕구 분석 .....                             | 112 |
| [표 4-4] 건강 욕구 분석 .....                                | 114 |
| [표 4-5] 교육 욕구 분석 .....                                | 115 |
| [표 4-6] 고용 욕구 분석 .....                                | 116 |
| [표 4-7] 주거 욕구 분석 .....                                | 118 |
| [표 4-8] 문화·여가 욕구 분석 .....                             | 120 |
| [표 4-9] 환경 욕구 분석 .....                                | 121 |
| [표 4-10] 삶의 질 및 인프라 욕구 분석 .....                       | 123 |
| [표 5-1] 주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2 |
| [표 5-2] 아동 돌봄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3 |
| [표 5-3] 성인 돌봄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4 |
| [표 5-4] 보호·안전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5 |
| [표 5-5] 건강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6 |
| [표 5-6] 교육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7 |
| [표 5-7] 고용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8 |
| [표 5-8] 주거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59 |

|  |     |
|--|-----|
| [표 5-9] 문화·여가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60 |
| [표 5-10] 환경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   | 161 |
| [표 5-11] 전반적 가중치 .....                       | 162 |
| [표 5-12]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                 | 16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 7   |
| [그림 2-1]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체계 .....             | 17  |
| [그림 2-2] Harlow & Tuner의 욕구 조사 피라미드 ..... | 20  |
| [그림 3-1] 고양시의 문화 이미지 .....                | 87  |
| [그림 5-1] 지역사회보장 정책 방안 계층 구조화 1 .....      | 150 |
| [그림 5-2] 지역사회보장 정책 방안 계층 구조화 2 .....      | 151 |



## 요 약

### 1. 서론

#### □ 연구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 사회적 위험 요소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복지 권리 추구 경향도 높아짐
- 제한된 복지 재정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사회보장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됨
- 기존의 욕구 분석은 단일한 시각과 방법으로 진행된 단선적인 욕구 분석 방법에 의존해온 경향이 있으나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종류, 수집 방법, 조사절차나 조사단계에서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고양시민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도 여러 정보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을 활용한 수렴적 분석(convergent analysis)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

##### ○ 연구 목적

- 고양시민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수렴적 욕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욕구에 대응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세부내용  | 연구 방법  |
|----------------------|---|--|
| 이론적 고찰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지표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ul>   |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심층 분석  | 아동 돌봄 욕구<br>성인 돌봄 욕구<br>보호·안전 욕구<br>건강 욕구<br>교육 욕구<br>고용 욕구<br>주거 욕구<br>문화·여가 욕구<br>환경 욕구<br>삶의 질 및 인프라 욕구<br>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br>성별·세대별·지역별·지역별 차이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분석<br/>(기술통계,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li> <li>• 내용분석</li> </ul> |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정책 방안      | 영역별 욕구 종합화<br>영역별 정책 방안 도출  |  |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분석 |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HP<br/>(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분석</li> </ul>                                 |

## 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 지표

#### ○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임. 이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교육·고용·주거·문화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됨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측정·비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정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추진 독려하고 있음

#### ○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을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인프라)로 구분
- 지표는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 파악이 가능한 수준 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역량지표로 구성됨

### □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 ○ 욕구 조사 모델

- 욕구 조사는 자원 할당을 위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는 과정임.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서비스를 발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관점과 서비스 제공이 지역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짐

- 욕구 조사(분석) 모델은 욕구 조사(분석)를 이끌어나가는 데 지침 역할을 함
- 비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과 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
  - 비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divergent needs assessment model)은 욕구 조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없이 단일조사 관점에서 단일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 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convergent needs assessment model)은 포괄적 욕구 조사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욕구 이론이나 욕구 조사 모델을 기반으로 욕구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욕구 조사 결과를 의사결정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
  - 수렴적 욕구 분석의 특징: ① 다양한 개별 정보원(시민, 수혜자, 서비스 제공자, 정치적 지도자 등)으로부터 개별적 정보를 수렴 ②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질적·양적 방법)을 함께 수렴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욕구 조사 방법을 활용 ④ 다양한 지역 차원의 정보 수렴

### 3.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심층 분석

#### □ 아동 돌봄

| 1. 아동 돌봄        |   |
|-----------------|---|
| 욕구 분석           |   |
| 아동 돌봄 전반        |   |
| 양육 정보와 기술 욕구 높음 |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기술' 부분이 어려움 경험 정도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서비스 인식 낮음       | 아동 돌봄서비스의 인식도 낮음  |
| 만족도 낮음          | 교육·보육 만족도(5.3점/10점)가 높지 않음 - 지역 차: 덕양구 타 권역 대비 낮음<br>사회적 돌봄 만족도(5.66점/10점)가 높지 않음 |
| 영유아 돌봄          |   |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시급   | 어린이집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48.9%)<br>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욕구 높음                       |
| 돌봄 이용의 어려움 높음   | 부모의 양육 어려움: 국공립어린이집 부족(36.9%), 입소대기(17.7%), 긴급 돌봄 이용 어려움(17.1%)                   |

| 인프라 부족        | 직장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부족함  |
|---------------|---|
| 평가 인증률 낮음     |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이 유사 인구 도시와 고양시의 수요에 비해 크게 낮음  |
|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높음 | 부모가 생각하는 중점 추진정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7.7%)<br>영유아 인구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덕양구(21.1%), 일산동구(13.1%), 일산서구(6.2%) |
| 초등 돌봄         |   |
| 공급률 매우 낮음     | 2019년 공급률 9.1% / 2021년 공급률 11.65%   |
| 부처 연계 미흡      |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부처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고양시에서 초등 돌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5개 과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중심기구 없음       |
| 인력 처우 개선 필요   | 열악한 급여, 돌봄 종사자 간 처우 차이, 짧은 근무시간, 행정업무부담   |
| 운영이 어려움       | 인건비, 월세 등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br>인력의 한계,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야외활동 어려움, 놀이시설 및 기구 부족                              |
| 부모 인식이 낮음     | 이용 부모의 비협조, 다양한 아동 돌봄 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

## □ 성인 돌봄

| 2. 성인 돌봄            |   |
|---------------------|---|
| 욕구 분석               |   |
| 장애인 - 현황과 욕구        |   |
| 장애인가가 많음            | 경기도에서 두 번째, 전국 시군구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가가 많음.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구 비율 1위  |
| 장애인가구의 고령화 높음       |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가 장애인등록인구의 44.0%   |
|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과 필요성 높음 | 사회보장 영역 중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 역시 높은 편.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서비스 인지율은 매우 낮음                      |
| 노력체감도가 낮음           | 시군구의 노력체감에서 장애인 돌봄이 성인 돌봄(노인·장애인)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음.   |
| 돌봄과 관련한 보호자의 욕구 높음  | 경제적 어려움, 활동지원사를 찾는 데 어려움, 단기시설의 확대 절실, 주간보호센터 이용 기간이 제한되어 나이 들에 따른 장애 자녀 돌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주보호자의 건강과 돌봄노동의 지원  |
| 돌봄서비스 만족도 낮음        |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만족도: 71.2점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음.<br>세부 사항: 장애인활동지원(75.9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73.5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70.7점) |
| 장애인 - 시설과 서비스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 1개소, 정원 22명<br>수원시, 용인시, 성남시에 비해 정원이 적음   |
| 종사자 수 감소 추세         |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경기도 전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양시는 감소하고 있음  |

|                       |  |
|-----------------------|--|
| 활동지원서비스 수요 높음         | 이용자 수,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음: 이용자 수(1,511명) / 공급 비율(102.8%)<br>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 |
| 주간보호센터 설비 확충 필요       | 개선점: 서비스 제공 장소의 시설, 설비 확충(30.2%)   |
| 대기자 다수                |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기자가 많고 40세 이상은 이용할 수 없음. 유형별 특화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욕구 여전히 높음                       |
| 전문인력과 개인 프로그램 필요      | 주간보호센터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 또한 주간보호센터에 장애특성에 따른 개인별 지원프로그램 개설 필요                      |
| <b>노인 - 현황과 필요</b>    |  |
| 서비스 만족도와 인지도 낮음       |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낮음(74점). 인구 유사 4개 지자체 중 세 번째, 노인 관련 서비스 인지도가 낮음(20.46%). 용인시 인지도 41.89%에 비해 매우 낮음    |
| 돌봄 관련 우선지원 필요가 높음     | 고양시민이 생각하는 노인복지사업의 우선 지원 분야는 가사, 간병목욕, 식사제공 등. 노인 단독가구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자기돌봄 곤란 경험(노인가구 31.7%/노인단독가구 38%)        |
| 요보호노인 비율 상승           | 노인집단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요보호노인 비율 상승 중. 2020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 중 요보호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7%임 (용인시 2.68%)                     |
| 정신건강 관리 필요            |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고 필요성 또한 높음. 특히 노인단독가구에 관심이 요구됨. 그러나 신체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적음                |
|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필요         | 노인시설 중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
| <b>노인 - 장기요양보호</b>    |  |
|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많음     | 유사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양시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많음. 노인 만 명당 시설 수 4.07개소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
| 만족도에 지역별 편차           | 지역별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이용 만족도에 편차가 큼. 덕양구 원신동(84.6점), 성사2동(58.3점), 장항1동(25.0점) 등                                    |
| 지역사회거주시설 이용자 감소       | 고양시의 지역사회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음   |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적음     | 노인인구 대비 재가시설 종사자 비율이 낮음.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종사자 수가 증가 추세<br>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유사 인구 지자체 중 가장 적음     |
| <b>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b> |  |
| 이용률과 만족도 낮음           | 고양시 노인인구의 1.9%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이는 경기도 평균 2.7%보다 낮은 수치. 서비스 연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음 | 이용 노인 중 49%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함  |
| 디지털활용 능력 낮음           | 이용 노인의 절반 이상인 59.3%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 재가서비스 선호              | (건강 악화 시) 시설 입소 의향 47.5%, 재가서비스 이용 희망 75.6%  |
| 지속성과 서비스 내용 확대 희망     | 생활지원사가 교체되지 않는 지속성 높은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방문 횟수 확대, 반찬 또는 부식재료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                                |

## □ 보호·안전

| 3. 보호·안전                  |  |
|---------------------------|--|
| 욕구 분석                     |  |
| 안전 전반                     |  |
|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감염병 개선 필요  | 1등급: 생활안전, 자살 / 2등급: 교통사고, 화재, 범죄 / 3등급: 감염병 - 교통사고와 감염병은 6년간 등급 변동 없어 개선 필요                                 |
| 시민안전보험 인지도 낮음             | 54.7% - 시민안전지킴이 대상 조사이므로 일반시민의 경우 더 낮을 가능성 있음  |
| 안전도 평가 낮음                 | 전반 2.87점/5점 - 낮은 편   |
| 정책 수요와 노력 낮음              | 정책시급성(58.3점) / 노력체감도(58.6점) - 낮은 편   |
| 학대·폭력                     |  |
| 가족 내/외 위험 대응에 장애가구 필요도 높음 | 장애가구는 가족 내 학대, 폭력 대응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 지원 필요성 높음                             |
| 범죄                        |  |
| 강력범죄 증가 추세                |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 계속 증가  |
| 여성의 두려움이 더 큼              | 일상생활 범죄피해의 두려움: 4.26점/10점 - 여성(4.57점)<br>야간상황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택시 이용(남 2.14점 < 여 3.56점), 골목길 보행(남 2.18점 < 여 3.5점) |
| 도시교통                      |  |
| 교통안전지수 낮음                 | 70.47점 - 전체 시도 평균보다 8.5점 낮음, 30만 이상 시 그룹 평균보다 2.68점 낮음   |
| 자전거 및 이륜차의 안전 낮음          | 65.84점: 유사 인구 지역이 70점을 상회한 것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br>30만 이상 시 그룹 평균보다 12.43점 낮음                                     |
| 교통사고 사망자 수 많음             |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에 39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음  |
| 재난·재해                     |  |
| 오존주의보 경보제 많음              | 고양시가 포함된 경기 북부권역의 오존경보제 발령이 많은 편   |
| 지반 침하 잦음                  |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지반 침하가 잦음  |
| 감염병 관련 인력 부족              | 고양시 보건소에 감염병 관련 인력 부족  |

## □ 건강

| 4. 건강         |                                   |
|---------------|-----------------------------------|
| 욕구 분석         |                                   |
| 건강 전반         |                                   |
| 노년층 의료비 지출 높음 | 고양시 전체가 4.4%인 반면 노년층은 9.5%로 매우 높음 |
| 미충족 의료율 높음    | 6.1% - 경기도(5.9%)보다 약간 높음          |

| 신체건강                        |  |
|-----------------------------|--|
| 정책 수요와 노력 낮음                | 정책시급성(56.8점) / 노력체감도(58.9점) - 낮은 편   |
| 일상 건강관리 어렵지만 신체질환 서비스 이용 다수 | 어려움 경험: 일상적인 신체건강관리(21.0%) > 신체질환(20.9%)<br>서비스 이용: 신체질환 관련 서비스(19.8%) > 일상적인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15.4%) |
| 예방접종률 경기도 최하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6.2% - 경기도 최하치   |
|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낮음              | 73.5% - 경기도 평균 74.4%보다 낮음  |
| 노인의 만성질환율 높음                | 고양시 전체 만성질환율은 35%이나, 노년층은 84.9%로 매우 높음   |
| 흡연율 높음                      | 17.3% - 유사 인구 지역보다 높은 편  |
| 정신건강                        |  |
| 정책적 시급성과 노력 낮음              | 정책시급성(56.8점) / 노력체감도(58.9점) - 낮은 편   |
| 정신건강 증진 욕구 높음               |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이 가장 높고,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향후 이용 의향도 가장 높음  |
| 여성, 노년층의 우울감 경험률 다소 높음      | 1.58점/4점 - 낮은 편, 여성, 노년층, 일산동구가 높음   |
| 구별 보건건강 비교                  |  |
| 전반적으로 덕양구의 건강 상태가 나쁨        |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고혈압 진단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나쁨), 주관적 건강 인지율, 건강의 질에서도 가장 좋지 않게 나타남   |
| 청년과 노년층의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        | 스트레스 인지율은 20~30대가 높음.<br>우울 증상 유병률은 70대 이상이 높음 - 일산동구는 2.8%인데, 일산서구와 덕양구는 3%대를 보임                |

## □ 교육

| 5. 교육          |  |
|----------------|--|
| 욕구 분석          |  |
| 교육 전반          |  |
| 사교육비 지출        | 월평균 가구소득 중 사교육비: 14.4% - 유자녀 가구 75.6%가 사교육 이용<br>월평균 사교육비는 77.9만 원으로 높음                                  |
| 사교육 지출 비율과 지출액 | 최고: 일산서구(16.7%, 89.5만 원)<br>최저: 덕양남부(11.6%, 63.4만 원)   |
| 학생과 학교의 밀도     |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12.67개소 - 적은 편<br>교사 1인당 학생 수 13.95명 - 적은 편<br>학급당 학생 수 25.6명 - 적은 편                   |
| 정보 부족이 큰 문제    | 학교생활: 정보부족 59% > 낮은 서비스 질 49.5%<br>학업유지: 정보부족 55.5% > 적합한 지원 부재 46.5%<br>평생교육: 정보부족 51% > 이용 자격 제한 48.4% |
| 공교육 만족도 낮음     | 6.06점/10점 - 평생교육과 보육 만족도에 비해 낮음  |



|                                   |   |
|-----------------------------------|---|
| 공교육 환경 불만족                        | 불만족(29.6%)이 만족(17.7%)보다 높음  |
| 공교육 외 교육 기회 불충분                   | 불충분(40.1%)이 높음  |
| 평생교육 기회 불충분                       | 불충분(24.7%), 모름(18.7%)   |
| 학교생활 적응과 어려움<br>높음                | 학교생활적응(24점) > 학업유지(23.4점)<br>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 32점 - 타 시보다 높음  |
|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높음                    | '18년 1.68% - '19년 2.07% - '20년 2.35% - 지속적 증가. 타 시보다 높음   |
| <b>특수교육</b>                       |   |
| 특수학급 미설치교 28개교                    | 고양시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중인 특수학급 미설치교: 28개교 -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   |
| 공립 특수교사 수 적음                      | 2015년 기준 94명 - 타 시보다 적음   |
|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br>높음                | 참여경험(49.5%) - 심리적 만족, 교양 함양 등을 위해<br>참여하지 못했던 경험(44.4%)<br>참여하지 못했던 이유 - 희망 프로그램이 없어서, 가까운 교육기관이 없어서<br>향후 참여 의향 77.1%로 매우 높음 |
| <b>평생교육</b>                       |   |
| 평생교육 참여율 낮음                       | 16.1% - 최고: 노년층(22.4%)  |
| 시간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br>평생교육 비참여        | 시간 부족 56.2% > 정보 부족 24.1% > 근거리 기관 부재 19.1%   |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희망                    | 다양한 학습/강좌/프로그램 > 다양한 정보공유   |
| 저소득, 저학력 집단의 자격<br>취득 및 취업의 주된 경로 | 자격 취득(23.5%) - 20대, 중졸 학력 집단, 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높음<br>취업·창업(11.2%) - 30대, 중졸 학력 집단, 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높음                      |
| 컨트롤타워 미약                          |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 □ 고용

|                |   |
|----------------|---|
| <b>6. 고용</b>   |   |
| <b>욕구 분석</b>   |   |
| <b>고용환경 전반</b> |   |
| 여성 고용률과 안전성 낮음 | 2021년 기준 고용률은 59.6%, 여성 고용률 49.5% < 남성 고용률 70.7%<br>- 타 지역 대비 전체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낮음.<br>2019년 기준 여성의 소득 만족도 4.6점, 고용안정성 만족도 5.66점 < 남성 5.99점 |
| 노인의 고용환경 열악    | 직업안정성 10% < 고양시 평균 75.6%<br>고용안정성 만족도 4.78점 < 고양시 평균 5.85점  |
| 임금 불만족 높음      | 임금 및 소득(20.9%) - 여성(36.4%) > 남성(29.4%)  |
| 일자리 정책 욕구가 높음  |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음(전체 시민의 49.1%), 고양시 역점 분야는 일자리 정책(35.5%)<br>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높은 항목: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취업, 창업 정보 부족',                                |

|                                  |   |
|----------------------------------|---|
|                                  |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가족 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
|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 일·가정 양립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가족 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됨  |
| 정보 습득이 어려움                       | 사회보장 영역 중 가장 찾기 어려운 정보는 일자리 정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어려움이 가장 높음  |
| 일자리 부족함                          | 고양시민의 49.1%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br>(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일자리 발굴(36.6%), 취업 알선(20.1%), 창업 지원(13.9%), 직업훈련(12.5%) |
| <b>집단별 현황</b>                    |   |
| 비정규직 근로자<br>: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br>시급 | (평균 근로계약기간) 공공부문 9.74개월 < 민간부문 18.62개월  |
|                                  | (부당대우 경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3.0%,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0.3%가 부당대우를 경험  |
|                                  | (산재 경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30.1%,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9.5%가 산재를 경험   |
|                                  | (산재 해결을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 공공 61.3%, 민간 31.0%   |
|                                  |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상담을 받은 경험은 소수(공공 8.6%, 민간 5.6%)                                    |
| 경력단절여성<br>: 재취업 의향 높음            | 고양시 비경제활동 여성(만 19세~54세)의 41.3%는 육아가사로 일을 하지 않음  |
|                                  | 비경제활동 여성의 75.9%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어 대부분 경력단절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보다 고양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높음                          |
|                                  | 경력단절여성의 78.5%가 재취업 의향이 있음   |
| 청년<br>: 고용과 교육 욕구 높음             | 2021년 하반기 고양시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고양시 전체 고용률 2.1%p 증가에는 미치지 못함                                 |
|                                  | (취업희망기업) 중소기업(30.8%) > 대기업(18.6%)<br>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에 대한 취/창업 의향은 48.7%                                 |
|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자체 중점 육성 분야 AI, 빅데이터, VR/AR/MR<br>미래신산업 발전에 대한 미래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배출 필요              |
|                                  | (고양시 일자리 정책의 미흡한 점) 단기일자리 치중, 사회서비스 및 공공일자리 정책 치중,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지원 부족                              |
| 장애인<br>: 고용 욕구 높음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가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음   |
|                                  |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을 시행함   |

□ 주거

| 7. 주거                        |  |
|------------------------------|--|
| 육구 분석                        |  |
| 주거여건과 인식                     |  |
| 지역 간 불균형                     |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 개발지역 간 생활SOC 등 불균형 심화. 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 정도는 5점(보통) 미만으로 낮음. 도농복합지역은 주택주변환경 만족도가 낮음                 |
| 공영주차시설과 공원 필요                | 일산동구는 공영주차시설(26.6%), 덕양구는 공원, 녹지, 산책로(36.4%) 육구 높음   |
| 노인 1인가구 집중 거주지역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음 | 청년 1인가구(0.326) > 노인 1인가구(0.140) - 노인 1인가구는 더 분산되어 거주 노인 1인가구가 집중한 지역은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 특장: 편의시설 접근성 낮음 |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의 접근성이 낮음.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                                    |
| 30대와 단독주택 밀집 지역 주거환경 불만족 높음  | 주택시설, 면적, 구조에 관해 30대의 불만족이 높음<br>주차공간에 관해 일산서구의 불만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br>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음              |
| 층간방음 어려움이 큼                  | 주거 관련 어려움 중 열악한 층간방음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률이 29.8점으로 가장 높음   |
| 주택 현황과 공공주택                  |  |
| 수급가구의 월세 부담 높음               | 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 31.9만 원 < 수급가구의 월세 평균 33.3만 원<br>-> 수급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거 관련 경제적 부담 큼                       |
| 중장년층 주거안정성 악화                | 중장년층의 자가와 전세 비중이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늘어남   |
|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중심              | 고양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유인데, 점차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고양시 주도의 정책 개입이 더욱 필요함                               |
| 공공임대주택 비중 중소형 공급 주고          |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8%로 경기도 평균(8.5%)보다 낮음<br>고양시의 공공임대주택의 95%는 60㎡ 이하로 중소형 공급 부족                        |
| 주거정비                         |  |
| 신도시 개발 시기 공급물량의 노후화          | 1990년대부터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됨. 구도심 관리 필요성 높음  |
| 주거정비 필요성 증가                  |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이 40%를 넘음                                       |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비활성화              | 고양시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 주거정비사업 집중도 낮음                | 주민공동체 사업에 사업유형 수나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40.81%, 31,293백만원). 주거정비 사업은 상대적으로 집중도(10.45%)가 낮음                         |
|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집중 지역에 지원 필요     | 택지개발사업 포함되지 않았던 고양동, 주교동, 성사동, 행주동 등에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이 집중되어 있음. 연립·다세대주택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주거의 질이 낮아 주거정비 필요 |

□ 문화·여가

| 8. 문화여가                             |  |
|-------------------------------------|--|
| 육구 분석                               |  |
| 제도적 인프라                             |  |
| 문화 예산 적음                            | 총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 고양시 2.02% -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음   |
|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적음                      | 고양시 52,748원 -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음  |
| 문화기반시설 수 적음                         | (인구 10만 명당) 고양시 2.7개소 -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음  |
| 문화 관련 조례 부족                         | 문화재와 지역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 시설 활용 필요            |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증대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 지역의 균질적으로 위치한 학교 체육시설이 적당함<br>2019년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br>2021년 학교시설 공유제 협약 체결   |
| 만족도 및 육구                            |  |
| 만족도 종합/10점                          |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의 접근성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일·여가 균형 정도와 전반적 만족도가 낮음. 덕양구와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비교군에 비해 낮음   |
| 세부 : 일·여가 균형 만족도 최저, 도서관 접근성 만족도 최고 | (전반적 만족도): 5.65점 - 최저: 중장년층(5.50점)<br>(도서관 접근성): 6.37점 - 최저: 덕양북부(5.54점)<br>(생활체육시설 접근성): 6.21점 - 최저: 덕양북부(5.45점)<br>(문화예술공간 접근성): 5.82점 - 최저: 중장년층(5.61점), 덕양북부(5.05점)<br>(일과 여가 균형 정도): 5.59점 - 최저: 중장년층(5.47점)<br>(도시브랜드 자부심): 5.79점 - 최저: 청년층(5.65점) |
| 경제적 부담으로 경험 축소                      |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여가 축소 8% - 조사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음  |
|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 높음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   |
| 불만족 이유 : 시설 부족                      | 1순위로는 여가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br>2순위로는 시간 부족, 교통혼잡/교통수단 불편   |
| 관광                                  |  |
| 트레블테크 전망 높음                         | 관광지 선택 시 인터넷 및 모바일 앱(83.8%)을 활용<br>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  |
| 역사자원 활용 부족                          |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시 지정 문화재를 활용을 검토.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토착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이 가능. 역사자원의 경우 자원 발굴만 이루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질적 도약 필요   |
| 문화자원                                |  |
| 지역예술인 자원 미미                         | 고양시에는 「문화상 조례」가 없음 - 지역예술인의 기여 인정해 줄 수 없음  |
| 지역축제 관심 높음                          | 지역축제의 만족도는 5.08점으로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음<br>고양시민은 지역축제 방문의 경우 서울시(26.4%)보다는 고양시(46.7%)를 선호   |
| 관광특구 선정                             | 고양시는 20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까지 약 9억 원의   |

|              |  |
|--------------|--|
|              | 사업비를 확보  |
| <b>다양성</b>   |  |
| 외국인 매해 증가    | 2020년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4,651명<br>2020년 기준 고양시의 다문화가구 구성원은 총 17,263명 - 매해 증가 중 |
| 지원서비스 이용의 한계 | 외국국적동포나 중도입국자녀는 과반이 법무부 지원서비스를 모를<br>시간의 제약, 정보 접근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 환경

|   |   |
|---|---|
| <b>9. 환경</b>                            |   |
| <b>목구 분석</b>                            |   |
| <b>현황</b>                               |   |
| 환경 예산 감소                                | 총예산 대비 환경 관련 예산: 2020년 7.19%, 2021년 7.62%, 2022년 7.03% - 감소 추세  |
| 1인당 환경보호 예산<br>감소 추세                    | 2018년 367천 원, 2019년 430천 원, 2020년 150천 원 - 감소 추세(다른 유사 인구 지역도 동일)   |
|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낮음                          | 2019년 2.23% - 용인시(1.77%)보다 높지만 수원시(7.76%)에 비해 상당히 낮음  |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br>작음                     | 2019년 22㎡ - 수원시(30㎡), 용인시(44㎡)보다 작음   |
| <b>만족도</b>                              |   |
| 만족도 종합/10점                              | 녹지환경 및 도시공원 접근성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반면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의<br>만족도가 낮음. 노년층의 만족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음   |
| 세부 내용<br>: 대기 만족도<br>최저, 녹지환경<br>만족도 최고 | (대기 만족도) 5.84점으로 낮음 - 최저<br>(식수 및 생활용수 만족도) 6.56점<br>(수질 및 하수도 만족도) 6.35점<br>(소음·진동 만족도) 5.86점으로 낮음<br>(녹지환경 만족도) 6.96점으로 높음 - 최고<br>(도시공원 접근성 만족도) 6.89점으로 높음<br>(생활폐기물 관리 만족도) 6.49점<br>(지자체 환경보호 노력 만족도) 6.27점 |
| <b>하수 및 쓰레기 처리</b>                      |   |
|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 1일 15,834kg /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1일 24,164kg - 도시화와 인구 밀집에 기인함  |
|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br>< 발생량                  | 처리량이 하루 최대 260톤인데 반해 1일 발생량이 275톤으로 이미 처리량 초과. 이는<br>토지오염이나 대기오염 유발 가능. 폐기물 처리 중심으로 전환 필요   |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br>시설 부족                    | 자원순환시설로서 쓰레기류를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함. 에너지 시설(260톤/일<br>음식물류 250톤, 가축분뇨 10톤)의 처리량이 점차 초과되므로 추가 설치 필요   |

|                            |   |
|----------------------------|---|
| 하수처리시설 한계 도래               | 현재 고양시 내 4곳(일산, 원능, 벽제, 삼송)과 난지처리장에 위탁 처리. 일산을 제외한 3곳은 2023~30년에 처리량의 90~99%에 도달하거나 처리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 재활용 쓰레기 배출 문제              |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무단투기가 가장 큰 문제.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생활민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   |
| <b>친환경</b>                 |   |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부각          | 최근 친환경, 무에너지 측면에서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 대안으로 등장   |
|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필요     | 고양시민의 31.4%는 서울로 통근·통학·소요 시간은 편도 기준 72.1분 주된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승용차(39.8%)가 가장 많음<br>버스 이용 불만족 > 만족 - 이유: 노선 부족과 배차 간격                       |
| 고양시민, 전문가, 공무원의 환경 관련 의견수렴 | 자전거 도로망 확충, 친환경 교통환경 확대 등 대기환경 개선책 필요<br>쓰레기 관리와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 필요<br>공원 조성과 자연 생태환경의 정비 필요<br>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환경 관련 교육 필요 |

## □ 삶의 질 및 인프라

|                         |  |
|-------------------------|--|
| <b>10. 삶의 질 및 인프라</b>   |  |
| <b>육구 분석</b>            |  |
| <b>삶의 질 전반</b>          |  |
| 행복도(10점) 낮음             | 2020년 5.68점, 2021년 5.80점 - 조금 상승했으나 경기도 전체(6.0점)보다 낮은 편  |
| 타 시(군) 대비 만족도<br>덕양구 낮음 | 만족도 하위 5개동 중 덕양구에 4개<br>타 시(군)와 불균형 인식 중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불균형 인식 가장 높음  |
| <b>경제 인프라</b>           |  |
| 생계비 부족 어려움 큼            | 기초생활유지 어려움 경험: 생계비 부족 > 의료비 부족 > 주거비 부족  |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높음          | 고양시 만 19세 이상의 47.3%는 지난 1년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음. 4~50대의 과반수(40대 50.2%, 50대 53.8%)는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br>덕양구 49.9% > 일산동구 47.2% > 일산서구 43.6% |
| <b>복지 인프라</b>           |  |
| 사회적 돌봄 만족도 낮음           | 5.66점(10점)으로 낮은 편 - 중장년층(5.67점), 청년층(5.42점)은 낮음  |
| 복지시설 충분성 낮음             | 5.66점(10점)으로 낮음 - 청년층(5.64점), 중장년층(5.46점)은 낮음.   |
| 복지서비스 만족도 낮음            | 5.70점(10점)으로 낮음 - 청년층(5.60점), 중장년층(5.54점)은 낮음  |
| <b>디지털 정보 인프라</b>       |  |
|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낮음       | 7.97점(10점)으로 높음 - 노년층(4.31점)이 매우 낮음  |

|                   |  |
|-------------------|--|
| 디지털 정보 활용이 어려운 이유 | 필요로 하는 정보의 부재 > 기기 부재 > 이해능력 부족 > 기기 사용법을 모름 > 활용 능력의 부족 > 공용인터넷 등 공동 편의시설 부재 >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부재                  |
|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      | 무료 인터넷 사용 가능한 공동 편의시설 마련 > 정보 소외계층에 맞춘 정보 제공 > 디지털 활용 무료교육 마련 > 정보 소외계층에 인터넷 환경 마련   |
| <b>관계 인프라</b>     |  |
| 이웃과 대중 신뢰도 낮음     | (이웃 신뢰도/10점) 고양시 4.85점 - 노년층(5.39점), 중장년층(5.00점), 청년층(4.42점)<br>(대중 신뢰도/10점) 고양시 4.01점 - 노년층(4.30점), 중장년층(4.05점), 청년층(3.81점) |
|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       | 2019년 17.4% - 2020년 10.9% -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중 50대가 8%로 높은 편   |
| 기부율 감소            | 2019년 23.8% - 2020년 19.6% - 4~50대의 기부율이 각 31.8%, 29.1%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음  |

## □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분석

### ○ 영역별 만족도

- 남성일수록 안전, 경제·고용 만족도가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보육, 건강·복지, 경제·고용, 문화·여가 만족도가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음
- 자가 소유자일수록 교육·보육, 건강·복지, 경제·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만족도가 높음
- 덕양구나 일산서구 거주자가 아닐수록 전 영역 만족도가 높음
-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보육, 경제·고용 만족도가 높음
-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거주지 소속감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전 영역 만족도가 높음

### ○ 성별 만족도 차이

- 여성 > 남성: 교육·보육, 주거, 환경 만족도
- 여성 < 남성: 안전, 건강·복지, 경제·고용, 문화·여가 만족도

○ 세대별 만족도 차이

- 교육·보육 만족도: 노년 < 중년 < 청년
- 안전 만족도: 노년 < 중년 < 청년
- 건강·복지 만족도: 노년 < 중년 < 청년
- 경제·고용 만족도: 노년 < 청년 < 중년
- 주거 만족도: 중년 < 청년 < 노년
- 문화·여가 만족도: 노년 < 중년 < 청년
- 환경 만족도: 노년 < 중년 < 청년

○ 세대별 필요 공공시설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노년 < 중년 < 청년
- 공원, 녹지, 산책로: 노년 < 중년 < 청년
-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 청년 < 중년 < 노년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청년 < 중년 < 노년
- 공영주차시설: 노년 < 청년 < 중년
- 문화예술회관: 노년 < 중년 < 청년
- 도서관: 노년 < 중년 < 청년
- 체육시설 및 경기장: 노년 < 중년 < 청년

○ 세대별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 전체: 요구호 보호사업 < 노인복지사업 확대 < 출산보육
- 청년: 노인복지사업 확대 < 요구호 보호사업 < 출산보육
- 중년: 요구호 보호사업 < 출산보육 < 노인복지사업 확대
- 노년: 요구호 보호사업 < 출산보육 < 노인복지사업 확대

○ 지역 차이

- 모든 영역에서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적으로



덕양구가 가장 낮음

-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산동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교육·보육 만족도와 경제·고용 만족도는 일산서구가 가장 높음

## 4.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정책 방안

### □ 아동돌봄

-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털(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 직장어린이집 확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 □ 성인 돌봄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 □ 보호·안전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 보행자 도로 확대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 건강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

## □ 교육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고용

-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지원
-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 □ 주거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생활SOC 사업의 확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 □ 문화·여가

-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
-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 □ 환경

-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자전거 이용 확대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녹색건축 인증 확대

## □ 삶의 질 및 인프라

- 복지재단 설립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지원사업 마련
- 세대별 복지체감도 제고
- 통합시스템을 통한 현장 허브 필요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환경 구축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전달 효율 증대
- 전 연령대의 마을 소통창구 개발
- 중장년층 지원 확대
- 맞춤형 빈곤 개선 정책 구상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원

## 5.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정책 우선순위 분석

### □ 조사 개요

#### ○ 분석 방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방법 중 절대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90개의 대안이 제시되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대안 간 비교를 하지 않는 절대 평가법을 사용함
-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함
- 전문가 10명의 평가 결과를 기하 평균(geometric mean)으로 종합하여 평가기준별 최종 가중치를 도출함

#### ○ 분석 내용

- 주 평가기준은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삶의 질 및 인프라를 제외한 9개의 영역(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이며, 하위 평가기준은 앞서 도출한 각 영역의 정책 방안 10개로, 총 90개임

### □ AHP 결과

#### ○ 주 평가기준 점수 및 가중치

- 아동 돌봄(92점, 13.4%) > 고용, 성인 돌봄(각각 88점, 12.8%) > 환경(81점, 11.8%) > 건강(80점, 11.6%) > 보호·안전, 주거(각각 70점, 10.2%) > 교육(69점, 10%) > 문화·여가(51점, 7.4%)

○ 하위 평가기준 점수 및 가중치

| 요인   | 정책 방안                                    | 총점 | 주 가중치 | 하위 가중치 | 저반점 가중치 |
|------|--|----|-------|--------|---------|
| 아동돌봄 |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 95 | 13.4  | 13.2   | 1.77    |
|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87 | 13.4  | 12.1   | 1.62    |
|      | 국공립 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 79 | 13.4  | 11.0   | 1.47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 73 | 13.4  | 10.2   | 1.36    |
|      |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 73 | 13.4  | 10.2   | 1.36    |
|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탈 운영                | 69 | 13.4  | 9.6    | 1.28    |
|      | 직장어린이집 확충                                | 66 | 13.4  | 9.2    | 1.23    |
|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 64 | 13.4  | 8.9    | 1.19    |
|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 61 | 13.4  | 8.5    | 1.13    |
|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51 | 13.4  | 7.1    | 0.95    |
| 성인돌봄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82 | 12.8  | 10.9   | 1.39    |
|      | 고령 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82 | 12.8  | 10.9   | 1.39    |
|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 81 | 12.8  | 10.8   | 1.38    |
|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79 | 12.8  | 10.5   | 1.34    |
|      |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79 | 12.8  | 10.5   | 1.34    |
|      | 돌봄 진입 여장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 75 | 12.8  | 10.0   | 1.27    |
|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 72 | 12.8  | 9.6    | 1.22    |
|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70 | 12.8  | 9.3    | 1.19    |
|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67 | 12.8  | 8.9    | 1.14    |
|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 65 | 12.8  | 8.6    | 1.10    |
| 보호안전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 86 | 10.2  | 11.9   | 1.21    |
|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 84 | 10.2  | 11.6   | 1.18    |
|      |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 84 | 10.2  | 11.6   | 1.18    |
|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84 | 10.2  | 11.6   | 1.18    |
|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 80 | 10.2  | 11.0   | 1.12    |
|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 70 | 10.2  | 9.7    | 0.98    |
|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 69 | 10.2  | 9.5    | 0.97    |
|      | 보행자 도로 확대                                | 59 | 10.2  | 8.1    | 0.83    |
|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 57 | 10.2  | 7.9    | 0.80    |
|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선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 51 | 10.2  | 7.0    | 0.72    |

|    |                            |    |      |      |      |
|----|----------------------------|----|------|------|------|
| 건강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90 | 11.6 | 11.8 | 1.37 |
|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88 | 11.6 | 11.5 | 1.34 |
|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79 | 11.6 | 10.4 | 1.20 |
|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 78 | 11.6 | 10.2 | 1.19 |
|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회 구성·운영 필요    | 77 | 11.6 | 10.1 | 1.17 |
|    |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회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77 | 11.6 | 10.1 | 1.17 |
|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71 | 11.6 | 9.3  | 1.08 |
|    |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               | 71 | 11.6 | 9.3  | 1.08 |
|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 68 | 11.6 | 8.9  | 1.04 |
|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 63 | 11.6 | 8.3  | 0.96 |
| 교육 |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 91 | 10.0 | 12.1 | 1.21 |
|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 81 | 10.0 | 10.7 | 1.07 |
|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80 | 10.0 | 10.6 | 1.06 |
|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79 | 10.0 | 10.5 | 1.05 |
|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 78 | 10.0 | 10.3 | 1.03 |
|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77 | 10.0 | 10.2 | 1.02 |
|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 71 | 10.0 | 9.4  | 0.94 |
|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 66 | 10.0 | 8.7  | 0.88 |
|    |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 66 | 10.0 | 8.7  | 0.88 |
|    |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66 | 10.0 | 8.7  | 0.88 |
| 고용 |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 88 | 12.8 | 11.4 | 1.45 |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 87 | 12.8 | 11.3 | 1.44 |
|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 83 | 12.8 | 10.7 | 1.37 |
|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 83 | 12.8 | 10.7 | 1.37 |
|    |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 74 | 12.8 | 9.6  | 1.22 |
|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 74 | 12.8 | 9.6  | 1.22 |
|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73 | 12.8 | 9.4  | 1.21 |
|    |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지원       | 73 | 12.8 | 9.4  | 1.21 |
|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 72 | 12.8 | 9.3  | 1.19 |
|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66 | 12.8 | 8.5  | 1.09 |
| 주거 | 생활SOC 사업의 확충               | 84 | 10.2 | 11.6 | 1.18 |
|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79 | 10.2 | 10.9 | 1.11 |
|    |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 79 | 10.2 | 10.9 | 1.11 |
|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75 | 10.2 | 10.4 | 1.06 |
|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 75 | 10.2 | 10.4 | 1.06 |
|    |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75 | 10.2 | 10.4 | 1.06 |
|    |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71 | 10.2 | 9.8  | 1.00 |
|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62 | 10.2 | 8.6  | 0.87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 61 | 10.2 | 8.4  | 0.86 |
|    |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 61 | 10.2 | 8.4  | 0.86 |



|              |                               |    |      |      |      |
|--------------|-------------------------------|----|------|------|------|
| 문화<br>여<br>가 |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86 | 7.4  | 12.1 | 0.90 |
|              |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            | 86 | 7.4  | 12.1 | 0.90 |
|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 78 | 7.4  | 11.0 | 0.81 |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 77 | 7.4  | 10.8 | 0.80 |
|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71 | 7.4  | 10.0 | 0.74 |
|              |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 68 | 7.4  | 9.6  | 0.71 |
|              |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 68 | 7.4  | 9.6  | 0.71 |
|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 65 | 7.4  | 9.1  | 0.68 |
|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 63 | 7.4  | 8.9  | 0.66 |
|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 49 | 7.4  | 6.9  | 0.51 |
| 환<br>경       |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 | 96 | 11.8 | 13.3 | 1.56 |
|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87 | 11.8 | 12.0 | 1.41 |
|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81 | 11.8 | 11.2 | 1.32 |
|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70 | 11.8 | 9.7  | 1.14 |
|              |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 70 | 11.8 | 9.7  | 1.14 |
|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68 | 11.8 | 9.4  | 1.11 |
|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 66 | 11.8 | 9.1  | 1.07 |
|              | 녹색건축 인증 확대                    | 63 | 11.8 | 8.7  | 1.02 |
|              | 자전거 이용 확대                     | 62 | 11.8 | 8.6  | 1.01 |
|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 60 | 11.8 | 8.3  | 0.98 |

### □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 우선<br>순위 | 주 영역  | 정책 방안                         | 총점 | 전반적<br>가중치 |
|----------|-------|-------------------------------|----|------------|
| 1        | 아동 돌봄 |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 95 | 1.77       |
| 2        | 아동 돌봄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87 | 1.62       |
| 3        | 환경    |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 | 96 | 1.56       |
| 4        | 아동 돌봄 |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 79 | 1.47       |
| 5        | 고용    |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 88 | 1.45       |
| 6        | 고용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 87 | 1.44       |
| 7        | 환경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87 | 1.41       |
| 8        | 성인 돌봄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82 | 1.39       |
| 8        | 성인 돌봄 |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82 | 1.39       |
| 10       | 성인 돌봄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   | 81 | 1.38       |
| 11       | 고용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 83 | 1.37       |
| 11       | 고용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 83 | 1.37       |
| 11       | 건강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90 | 1.37       |
| 14       | 아동 돌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 73 | 1.36       |
| 14       | 아동 돌봄 |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 73 | 1.36       |
| 16       | 성인 돌봄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79 | 1.34       |
| 16       | 성인 돌봄 |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79 | 1.34       |

|    |       |  |    |      |
|----|-------|--|----|------|
| 16 | 건강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88 | 1.34 |
| 19 | 환경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81 | 1.32 |
| 20 | 아동 돌봄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탈 운영                | 69 | 1.28 |
| 21 | 성인 돌봄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 75 | 1.27 |
| 22 | 아동 돌봄 | 직장어린이집 확충                                | 66 | 1.23 |
| 23 | 성인 돌봄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 72 | 1.22 |
| 23 | 고용    |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 74 | 1.22 |
| 23 | 고용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 74 | 1.22 |
| 26 | 교육    |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 91 | 1.21 |
| 26 | 보호·안전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 86 | 1.21 |
| 26 | 고용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73 | 1.21 |
| 26 | 고용    |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지원                     | 73 | 1.21 |
| 30 | 건강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79 | 1.20 |
| 31 | 아동 돌봄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 64 | 1.19 |
| 31 | 고용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 72 | 1.19 |
| 31 | 성인 돌봄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70 | 1.19 |
| 31 | 건강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 78 | 1.19 |
| 35 | 주거    | 생활SOC 사업의 확충                             | 84 | 1.18 |
| 35 | 보호·안전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 84 | 1.18 |
| 35 | 보호·안전 |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 84 | 1.18 |
| 35 | 보호·안전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84 | 1.18 |
| 39 | 건강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77 | 1.17 |
| 39 | 건강    |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77 | 1.17 |
| 41 | 환경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70 | 1.14 |
| 41 | 환경    |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 70 | 1.14 |
| 41 | 성인 돌봄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67 | 1.14 |
| 44 | 아동 돌봄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 61 | 1.13 |
| 45 | 보호·안전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 80 | 1.12 |
| 46 | 주거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79 | 1.11 |
| 46 | 주거    |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 79 | 1.11 |
| 46 | 환경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68 | 1.11 |
| 49 | 성인 돌봄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 65 | 1.10 |
| 50 | 고용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66 | 1.09 |
| 51 | 건강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71 | 1.08 |
| 51 | 건강    |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                             | 71 | 1.08 |
| 53 | 교육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81 | 1.07 |
| 53 | 환경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 66 | 1.07 |
| 55 | 교육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 80 | 1.06 |
| 55 | 주거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75 | 1.06 |
| 55 | 주거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 75 | 1.06 |
| 55 | 주거    |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75 | 1.06 |
| 59 | 교육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79 | 1.05 |
| 60 | 건강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 68 | 1.04 |

|    |       |                                    |    |      |
|----|-------|------------------------------------|----|------|
| 61 | 교육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 78 | 1.03 |
| 62 | 환경    | 녹색건축 인증 확대                         | 63 | 1.02 |
| 62 | 교육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77 | 1.02 |
| 64 | 환경    | 자전거 이용 확대                          | 62 | 1.01 |
| 65 | 주거    |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71 | 1.00 |
| 66 | 보호·안전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 70 | 0.98 |
| 66 | 환경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 60 | 0.98 |
| 68 | 보호·안전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 69 | 0.97 |
| 69 | 건강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 63 | 0.96 |
| 70 | 아동 돌봄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51 | 0.95 |
| 71 | 교육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 71 | 0.94 |
| 72 | 문화·여가 |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86 | 0.90 |
| 72 | 문화·여가 |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                | 86 | 0.90 |
| 74 | 교육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 66 | 0.88 |
| 74 | 교육    |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 66 | 0.88 |
| 74 | 교육    |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66 | 0.88 |
| 77 | 주거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62 | 0.87 |
| 78 | 주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 61 | 0.86 |
| 79 | 주거    |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 61 | 0.86 |
| 80 | 보호·안전 | 보행자 도로 확대                          | 59 | 0.83 |
| 81 | 문화·여가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 78 | 0.81 |
| 82 | 문화·여가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 77 | 0.80 |
| 82 | 보호·안전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 57 | 0.80 |
| 84 | 문화·여가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71 | 0.74 |
| 84 | 보호·안전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 51 | 0.72 |
| 86 | 문화·여가 |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 68 | 0.71 |
| 86 | 문화·여가 |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 68 | 0.71 |
| 88 | 문화·여가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 65 | 0.68 |
| 89 | 문화·여가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 63 | 0.66 |
| 90 | 문화·여가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 49 | 0.51 |

## 6. 결론

### □ 정책제언

- 다양한 욕구가 도출된 만큼 고용, 주거, 문화 영역의 욕구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 회보장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사회보장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집중노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차이 고려 필요
-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욕구를 고루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투입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영역 중 아동 돌봄, 성인 돌봄, 고용, 환경 영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 필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욕구 조사에 제한된 단선적인 욕구 분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원과 분석 방법을 활용한 수렴적 욕구 분석 방법으로 분석해야 함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꾸준히 관리해야 함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1) 복지수요 증가와 다양화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에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및 경제구조도 변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 요소도 증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복지 권리 추구 경향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제한된 복지 재정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참여적·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며 지역주민 욕구 조사와 분석은 참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2) 지역성(locality)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2026년) 수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중앙정부의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의 기본계획이자 전략계획이며 복지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욕구 분석을 통하여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015년 7월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겼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에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확대된 사회보장 영역을 포함해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장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립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계획과 다르며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는 ‘지역성(locality)’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과제이다. 따라서 지역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내 욕구,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지자체 내에 공유하여 필요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 4) 기존의 욕구 분석은 단선적 분석으로 욕구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진행하여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공동 시행한 지역사회보장조사와 더불어 고양시 자체 욕구 조사를 추가 시행하여 고양시민의 욕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만으로는 광범위한 사회보장 영역의 다양한 욕구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주체에 따라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분석 방법에 따라 욕구의 종류와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일한 시각과 방법으로 진행된 단선적 욕구 분석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욕구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잘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종류, 수집 방법, 조사절차나 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전략과 관점을 통해 욕구를 확인하는 수렴적 분석(convergent analysis)을 통한 욕구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Siegel et al.(1995)은 욕구의 수렴적 분석을 위해서 ① 다양한 개별 정보원으로부터 개별적 정보를 수렴하는 것 ②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질적·양적 방법)을 함께 수렴하는 것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욕구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것 ④ 다양한 지역 차원



의 정보를 수렴하는 것 등 4가지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의 지역사회보장 욕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석 전략과 관점을 반영하는 수렴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 1) 고양시의 지역사회보장 실태와 욕구를 심층적으로(수렴적) 분석

기존 설문조사를 활용한 단선적인 욕구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분석 전략과 관점을 반영하는 수렴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한다.

### 2) 지역사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분석하고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욕구 분석 방법인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을 검토하였다.

둘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표에 근거하여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 인프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욕구를 종합화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전문가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를 활용하여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수행하였다.

셋째, 행정자료와 2차 자료 내용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행정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보장 욕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욕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영역별 정책 방안을 대상으로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를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계층화한 후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를 측정한 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연구 내용                | 세부내용   | 연구방법   |
|----------------------|--|--|
| 이론적 고찰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지표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ul>   |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심층 분석  | 아동 돌봄 욕구<br>성인 돌봄 욕구<br>보호·안전 욕구<br>건강 욕구<br>교육 욕구<br>고용 욕구<br>주거 욕구<br>문화·여가 욕구<br>환경 욕구<br>삶의 질 및 인프라 욕구<br>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br>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분석<br/>(기술통계,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li> <li>• 내용분석</li> </ul> |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정책 방안      | 영역별 욕구 종합화<br>영역별 정책 방안 도출   |  |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분석 |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HP<br/>(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분석</li> </ul>                                 |



## 제 2 장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 지표

제2절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 제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 지표

### 1. 지역사회보장계획

#### 1) 법적 근거 및 수립목적<sup>1)</sup>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으로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진단하고 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 중앙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자체 사업 중심으로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수립한다.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중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연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관리를 위한 수정·보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 36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

<sup>1)</sup> 보건복지부(202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하고 있다.

※ (참고) 사회복지보장급여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지역사회보장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복지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화<sup>2)</sup>

2001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복지 계획이 등장했다. 이로써 지자체의 종합적 복지계획 수립 가능성을 확인했고 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명시하였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자체의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2005년 8월부터 지자체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었고, 2007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07~10년)을 시작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까지 4년 주기로 수립되었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교육·고용·주거·문화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되었다. 고용, 주거, 문화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와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역사회 내 정책을 유관 부처와 관련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 과정과 결과의 체계

<sup>2)</sup>강혜규, 김보영, 주은수 외(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지자체의 제4기 계획·수립·실행 지원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측정, 비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정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범위와 지역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추진을 독려했다.

[표 2-1]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비교

| 구분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법   |
|----|--|---|
| 명칭 |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 범위 | 사회복지·보건의료 위주   |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범주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li> <li>•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공급 대책</li> <li>•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사회복지 전달체계</li> <li>•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방안</li> <li>•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 수집</li> <l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li> <li>•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li> <li>•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연계 협력사업</li> <li>•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li> <li>•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li> <li>•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li> <li>•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li> </ul> |

〈출처〉 강혜규 외(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 실행 지원 연구

## 2. 지역사회보장지표<sup>3)</sup>

### 1)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의 배경

「사회보장급여법」(2015.11.)은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받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보장운영 체계의 연차별 보고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지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제시되며, 확대된 사회보장의 영역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를 고려하여 지역(기초지자체)단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 2)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하고 포괄적 기능의 복지 영역을 주요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였다. 복지 영역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서, 돌봄은 아동과 성인 부문으로 구분하고, 보호 및 안전 영역을 포함하였다. 총괄 영역은 종합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으로 전달 체계를 포함하는 지역 인프라의 실태, 구축 노력을 반영하는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을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인프라)로 구분하였다.

10개 영역별로 설정한 정책 비전은 총괄 비전과 주요 이슈를 반영한 세부 전략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 및 정책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비전을 제시하였다.

<sup>3)</sup> 강해규, 박세경, 정해식(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2-2] 지역사회보장지표별 정책 비전

| 영역         | 정책 비전  |
|------------|--|
| 1. 돌봄 (아동) | <p>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p> <p>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br/>2)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용가능성, 이용편의성, 욕구적합성) 제고<br/>3) 돌봄 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br/>4)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의 권리 보장 강화</p>  |
| 2. 돌봄 (성인) | <p>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p> <p>1) 장애인이나 질병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br/>2)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br/>3)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p> |
| 3. 보호 안전   | <p>누구나 학대(방임, 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p> <p>1)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br/>2)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br/>3)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위험 최소화</p>   |
| 4. 건강      | <p>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생활 자원이 이뤄지는 사회</p> <p>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br/>2) 예방적 건강관리<br/>3) 의료 접근성 제고</p>   |
| 5. 교육      | <p>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p> <p>1)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br/>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br/>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br/>4)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p>   |
| 6. 고용      | <p>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절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p> <p>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br/>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br/>3) 사회적 경제의 지역 기반 형성</p>   |
| 7. 주거      | <p>누구나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p> <p>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br/>2) 주거비 부담 경감<br/>3) 주거의 안정성 향상</p>  |
| 8. 문화 여가   | <p>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p> <p>1) 생활체육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br/>2)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p>  |
| 9. 환경      | <p>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데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p> <p>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br/>2)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p>  |

|                        |   |                           |
|------------------------|---|---------------------------|
| 10.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 감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실행 및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회 | 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
|                        |   | 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
|                        |   | 3) 민관 협력 및 지역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

<출처>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지표는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수준 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역량지표로 구성된다.

**[표 2-3 ] 지역사회보장 수준 지표와 역량지표**

| 수준 지표   | 역량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주민 개별수준의 합)를 표현</li> <li>•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성과(outcome) 지표</li> <li>• ‘여건 지표’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li> <li>•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li> <li>• ‘산출 지표’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성과 지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li> <li>•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li> </ul> |

<출처>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또한 지역사회보장지표는 PSR 모델의 구성요소를 기본 틀로 하여 투입(input)-결과(output)-영향(outcome)-여건 지표로 구성된다. 해당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투입, 결과, 영향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고려하여 지표가 필요한 대표 지표군을 제시하고 정책 중요도가 높고 지역별 변화를 추적, 시계열적 측정의 필요성이 높은 지표는 주요 핵심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림 2-1]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체계



<출처>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 3)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표 2-4] 지역사회보장 수준 지표 구성

|                  | 투입<br>(input) | 결과<br>(output) | 영향<br>(outcome) | 여건 | 계<br>(핵심 지표) |      |
|------------------|---------------|----------------|-----------------|----|--------------|------|
| 돌봄(아동)           | 6             | 6              | 4               | 7  | 23           | (11) |
| 돌봄(성인)           | 6             | 6              | 6               | 2  | 20           | (8)  |
| 보호·안전            | 4             | 6              | 3               | 3  | 16           | (8)  |
| 건강               | 6             | 12             | 7               | 5  | 30           | (11) |
| 교육               | 8             | 7              | 2               | 3  | 20           | (12) |
| 고용               | 6             | 6              | 5               | 3  | 20           | (10) |
| 주거               | 9             | 6              | 5               | 4  | 24           | (8)  |
| 문화·여가            | 5             | 7              | 5               | 6  | 23           | (7)  |
| 환경               | 5             | 4              | 3               | 2  | 14           | (6)  |
|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 10            | 10             | 7               | 8  | 35           | (15) |
| 계                | 65            | 70             | 47              | 43 | 225          | (96) |

<출처>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 제2절 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

### 1. 욕구 조사 모델

욕구 조사는 자원 할당을 위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서비스를 발견, 확인하는 관점과 서비스 제공이 어느 정도는 지역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United Way of America, 1982).

욕구 조사 모델은 욕구 조사를 이끌어나가는 데 지침 역할을 한다. 욕구 조사 모델은 조사기술 영역에서 욕구 조사의 설계, 범위, 분석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욕구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료의 종류, 자료의 수집 방법, 조사절차나 조사단계에서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욕구 조사 중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는 특징을 보이는 욕구 조사를 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convergent needs assessment model), 그렇지 않은 욕구 조사를 비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divergent needs assessment model)이라고 한다(서인해, 공계순, 2004).

### 2. 비수렴적 욕구 분석 모델과 수렴적 욕구분석 모델

#### 1) 비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divergent needs assessment model)

비수렴적 욕구 조사(divergent needs assessment)는 욕구 조사의 이론적 배경 없이 단일조사 관점에서 단일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욕구 조사를 말한다. Kamis(1979)는 1970년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욕구 조사 활동의 조사 경향 분석을 통해 많은 욕구 조사 활동이 조사과정에서 어떤 견고한 욕구 조사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수행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었다고 하였다.

Witkin(1992)은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수행된 욕구 조사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의 욕구 조사가 단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욕구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주로 자금 제공자의 측면에서 욕구를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Bush(199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행된 욕구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진행된 많은 욕구 조사가 조사 범위, 절차, 단계에서 매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표준화된 욕구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단일한 시각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욕구 조사는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Benveniste(1972)는 욕구 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에 따라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점만 채택되어 욕구 조사가 진행될 경우 욕구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emarest et al.(1984) 역시 교육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욕구 조사 방법의 차이는 상이한 조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보다 전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욕구 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다차원적 욕구 조사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 2) 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convergent needs assessment model)

비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욕구 조사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수렴적 욕구 조사’ 혹은 ‘포괄적 욕구 조사(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로 불리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강조되는 것은 욕구 이론이나 욕구 조사 모델을 기반으로 욕구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욕구 조사 결과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인해, 공계순,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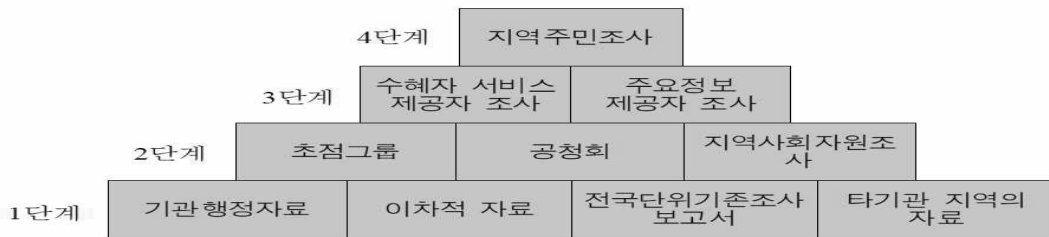
대표적인 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결정 모델(Human Service Decision Model)은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욕구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다. Cohen(1981)은 욕구 조사 방법이나 절차를 결정할 때 조사의 과학적 타당성뿐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목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선의 욕구 조사 방법은 많은 다른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라 했다. Cohen은 욕구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① 욕구의 목적 ② 조사 대상자 ③ 자료 수집·분석하는 일정 ④

욕구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과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 분석·확인 ⑤ 새로운 욕구 조사 전에 기존 욕구자료의 가치 평가 ⑥ 욕구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적 결과 ⑦ 욕구 조사 진행 일정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욕구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자’, ‘욕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8가지 욕구 조사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둘째, Harlow & Turner(1993)는 미국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진행된 욕구 조사 실태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과정에 포괄적으로 도움을 주는 욕구 조사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4단계 욕구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1단계의 욕구 조사는 행정자료나 이차적 자료 등에서 시작한다. 다음 2단계는 초점그룹·공청회·지역사회 자원 조사를, 3단계는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 조사와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를 활용한다. 마지막 4단계는 1~3단계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지역 전체의 욕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을 이용한 지역주민 조사로 이루어진다.

[그림 2-2] Harlow & Turner의 욕구 조사 피라미드



<출처> Harlow & Turner(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s: Needs assessment revisited. The Gerontologist, 33, 190-199

단계별 조사의 주기는 1~2단계는 1년에 한 번, 3단계는 3~4년에 한 번, 4단계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시기에 함께 투입하는 수렴성이 있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욕구 조사의 정보가 그다음 단계의 조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욕구 조사의 비용효율성과 자료의 접근성을 토대로 조사 활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Siegal et al.(1995)의 수렴적 분석 모델이다. 이 모델은 욕구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욕구 자료 수집 방법을 수렴해야 하며, 욕구 조사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서비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조사 방법이다. 욕구 조사의 수렴적 분석의 특징은 ① 다양한 개별 정보원(시민, 수혜자, 서비스 제공자, 정치적 지도자 등)으로부터 개별적 정보 수렴 ②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질적·양적 방법)을 함께 수렴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욕구 조사 방법 활용 ④ 다양한 지역 차원의 정보 수렴(중앙·지방 차원에서 파악된 욕구 정보 수렴) 등의 4가지 차원에서 수렴한다.

넷째, Seo(1998)는 욕구 조사 활동의 질은 욕구 조사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다양한 욕구 정보와 이러한 욕구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떻게 수렴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정보와 자료 수집 방법의 수렴 정도에 따라 4가지 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욕구 조사 모델은 수렴 정도에 따라 비수렴적 모델, 최소한의 수렴적 모델, 중간 정도의 수렴적 모델, 최대한의 수렴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비수렴적 모델은 1종류의 정보원과 1종류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수렴적 모델은 1종류의 정보원과 2종류 이상의 자료 수집 방법 사용 또는 2종류 이상의 정보원과 1종류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한다. 중간 정도의 수렴적 모델은 2종류 이상의 정보원과 2종류 이상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며, 최대한의 수렴적 모델은 3종류의 정보원과 3종류 이상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욕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고양시의 지역사회보장 욕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원과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수렴적 욕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 3 장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심층 분석

제1절 아동 돌봄

제2절 성인 돌봄

제3절 보호·안전

제4절 건강

제5절 교육

제6절 고용

제7절 주거

제8절 문화·여가

제9절 환경

제10절 삶의 질 및 인프라

제11절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분석



## 제절 아동 돌봄<sup>4)</sup>

### 1. 분석 자료

[표 3-1] 분석 자료 - 아동 돌봄

#### 분석 자료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김미정, 최인화, 이초록(2019). 고양시 중장기 보육계획(2020~2024).
- 남승연, 이경민(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문정화, 성기옥, 선승아(2022). 고양시 아동 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모델 개발 연구.
-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기타 통계자료

### 2. 욕구와 문제점

#### 1) 아동 돌봄 전반

- (아동 돌봄의 필요성과 어려움 높음) 전체 사회보장 영역 중 아동 돌봄 영역 필요성이 가장 높고 어려움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높은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 아동 돌봄에서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기술’은 어려움의 경험 정도와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인지율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사회복지지원 최우선 분야는 출산, 보육지원) 고양시민은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로 ‘출산·보육지원’(43.4%)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고양시, 2021a).

<sup>4)</sup> 문정화, 성기옥, 김성원, 선승아(2022). “고양특례시 사회보장진단 및 정책제안-성인 돌봄, 아동 돌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교육·보육 만족도 높지 않음) 고양시민의 교육·보육 만족도는 5.3점(10.0점 만점)으로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사회적 돌봄 만족도 높지 않음) 고양시민의 사회적 돌봄 만족도는 5.66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덕양구 교육·보육 만족도 낮음) 덕양구의 교육·보육 만족도가 타 권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2) 영유아 돌봄

- (보육환경 불만족) 고양시 미취학 아동 학부모의 23.7%는 보육환경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는 비율보다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직장어린이집 부족) 고양시는 경기도 유사 인구 도시와 비교할 경우 영유아 수 대비 부모협동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중은 높은 편이나, 직장어린이집 정원은 만 6세 미만 영유아당 0.4%로 4개 시 중 영유아 인구 대비 가장 적고, 법인, 단체 어린이집도 경기도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다(오민수 외, 2021).
- (가정보육 경험률 높음) 고양시는 만 0~2세 영유아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76.8%로 경기도 평균, 수원, 용인, 성남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보육을 위한 지원 욕구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오민수 외, 2021).
-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낮음) 고양시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사 인구 도시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 정원 22명) 고양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은 22명으로 수원시 70명, 용인시 57명, 성남시 30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보육교사 인건비·반별 운영비·대체교사 지원 필요) 어린이집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48.9%), 반별 운영비 지원(13.1%), 대체교사 지원(9.1%) 순으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9).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생각하는 보육지원 분야 중점 추진정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근무환경 개선으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9).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조사에 근거한 계획 수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로 조사(시설 간 거리, 영유아 수 등)에 근거한 확충 계획 수립과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적격 시설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9).
- **(보육교사 근무시간 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 부모의 지나친 요구로 어려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근무시간, 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와 근무환경의 열악함, 부모의 지나친 요구,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김미정 외, 2019).
-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처우 개선비·장기근속수당 확대 필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수당과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와 장기근속수당 지급단계 확대, 금액 인상이다(김미정 외, 2019).
- **(부모의 양육 어려움은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긴급 돌봄 이용 어려움, 입소 대기)**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1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 부족(36.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17.1%)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 부모의 1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 부족(42.4%)이었고 주변에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간 입소 대기(17.7%)가 2순위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9).
- **(부모가 생각하는 중점 추진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모가 생각하는 보육지원 분야 중점 추진정책 1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이용 아동 확대(37.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30.4%)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9).
- **(실내놀이터 확충,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 육아지원 분야 중점 추진정책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1순위로 안전하고 쾌적한 영유아 실내놀이기구 확충(22.6%), 소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21.9%)을 2순위로 제시하였다. 가정양육 부모는 1순위로 소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32.5%), 2순위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다자녀 혜택 확대(20.6%)를 제시하였다(김미정 외, 2019).
- **(어린이 수영장, 물놀이장, 장난감 도서관)** 부모가 설치되기를 바라는 육아지원시설로는

유아를 위한 실내놀이시설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장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놀이시설(아이러브맘카페)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9).

- **(어린이집 정원 지역별 차이)**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은 덕양구(69.4%), 일산동구(69.5%), 일산서구(75.9%) 순으로 일산서구의 포용률이 가장 높고 덕양구의 포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일산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적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덕양구가(포용률 21.1%), 일산동구(포용률 13.1%), 일산서구(포용률 6.2%)에 비해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서구는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적고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 기본정보, info.childcare.go.kr, 접속일 2022.05.06.)

### 3) 초등 돌봄

- **(초등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함)** 2019년 고양시 초등 돌봄 수요는 전체 초등생의 24.8%로 초등돌봄교실에서 전체 초등생의 9%, 지역돌봄센터에서 1.1%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최소 수요공급 차가 8,583명으로 전체 초등생(54,798명)의 15.7%로 나타났다(남승연, 이정민, 2019).
- **(지역아동센터 수 적고 감소 추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수는 32개소이고, 18세 미만 인구 1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는 1.71개소로 경기도 3.57개소, 수원시 2.92개소, 성남시 3.45개소에 비해 상당히 적으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오민수 외, 2021).
- **(돌봄 기관 부족)**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는 3개소로 수원시 11개소, 성남시 13개소, 용인시 8개소에 비해 그 수가 적고 대기자가 많은 상태이며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에도 대기자가 많다(문정화 외, 2022).
- **(외동 가정이거나 4대 보험 미적용 활동 시 이용 어려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다자녀, 맞벌이부부여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외동의 경우 의지할 형제가 없어 다자녀에 비해 돌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나 후순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호자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으나 실제로 4대 보험 적용 조건을 내걸고 있어 돌봄 실수요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문정화 외, 2022).



- **(신규택지개발지 돌봄 공급 부족, 원도심지 원거리)** 고양시 지역 특성상 신규택지개발지는 아동 돌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돌봄 대책이 필요하고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지의 경우 아동의 수는 적으나 돌봄 기관이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 **(초등 돌봄 포용률 지역 격차)** 2022년 초등학생 대비 초등 돌봄 기관 아동수로 행정동별 초등 돌봄 포용률을 산출한 결과 0%에서 44.21%까지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미만 5개 동, 5~10% 미만 5개 동, 10~20% 미만이 24개 동, 20% 이상이 5개 동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외, 2022).
- **(초등 돌봄 관련 부처 많고 네트워크 분절적)** 초등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부처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 도서관센터, 평생교육과에서 초등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네트워킹할 수 있는 아동전담기구는 없다(문정화 외, 2022).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연계 어려움)** 학교돌봄터의 경우 학교에서는 신규 설치보다 기존 돌봄교실 전환을 원하고 있으나 돌봄 교사(무기계약직) 재배치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돌봄터의 경우 학교와 협의가 어렵고, 같은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와 비교해 처우에서 차이가 크다(문정화 외, 2022).
- **(열악한 돌봄 교사 급여)** 대부분의 돌봄 교사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강도에 비해 매우 낮다.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제를 따르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 교사의 처우와 격차가 크다(문정화 외, 2022).
- **(짧은 근무시간)** 돌봄 교사의 경우 4시간 시간제 근무가 많으나 4시간으로는 충분한 돌봄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희망일자리로 투입된 매니저는 6시간 생활임금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교사에 따라 6시간 또는 8시간으로 근무시간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6시간 교사의 경우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청소해야 하는 등 아동 돌봄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문정화 외, 2022).
- **(돌봄 종사자 처우의 차이)** 교육부 소속 초등돌봄전담사와 그 외 지자체 운영 기관 소속 돌봄 교사 간 임금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서 아동 돌봄을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돌봄터 교사와 초등돌봄교실 교사 간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문정화 외, 2022).

- **(행정업무 부담)** 초등 돌봄 교사는 아동출결 관리, 정산영수증 제출, 아동사례관리와 상담일지 작성, 시설 서류, 위생안전점검표 작성 등 과도한 행정업무로 아동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정화 외, 2022).
- **(정서문제 아동 증가)**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상담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사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정화 외, 2022).
- **(지역주민의 인식 저하와 낙인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좋지 않고 이용 학생이 느끼는 낙인감도 여전히 존재한다(문정화 외, 2022).
- **(이용 부모의 비협조)** 일부 이용 부모는 센터 운영의 이해도가 낮고 참여율도 매우 낮다(문정화 외, 2022).
- **(아동 돌봄 기관 인지도 매우 낮음)** 학부모는 돌봄서비스 유형과 아동 돌봄 기관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문정화 외, 2022).
- **(운영비 부족)**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고 운영비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세 부담이 있는 기관도 있다(문정화 외, 2022).
- **(야외활동 어려움)** 이용 아동은 야외활동을 선호하지만 교사 인력의 한계,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실제 야외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문정화 외, 2022).
- **(놀잇감, 놀이시설 부족)** 놀잇감과 놀이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문정화 외, 202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의무시수 부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이용 의무시수가 일 주일에 20시간이며 학원, 질병,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의 사유로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승인을 통해 주 15시 이상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매일 출석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문정화 외, 2022).

## 제2절 성인 돌봄<sup>5)</sup>

### 1. 분석 자료

[표 3-2] 분석 자료 - 성인 돌봄

| 분석 자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li> <li>●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li> <li>● 김대석, 박근덕, 안희철 외(2020). 제2차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li> <li>● 문정화, 유선치, 임연옥(2019).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방안 연구.</li> <li>●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li> <li>● 문정화, 선승아, 고아라(2021). 고양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정책 연구.</li> <li>● 신범순, 류진아, 장찬진 외(2016).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li> <li>● 양희택, 박현숙, 오은경 외(2018). 고양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연구</li> <li>●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li> <li>● 이병화, 강민희, 노승현 외(2019). 경기도 고령장애인 자원방안 연구.</li> <li>● 이병화, 김성연, 부성은 외(2018). 고양시 발달장애인 자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li> <li>● 이병화, 이선정, 김준범, 이미영(2019).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li> <li>● 이병화, 최선아, 박지환(2021).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li> <li>● 기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li> </ul> |

### 2. 욕구와 문제점

#### 1) 장애인 돌봄

-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구가 많음) 2022년 2월 현재 고양시의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89%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구가 많은 시로서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공공데이터포털, 고양시 등록장애인 현황(2021), <https://www.data.go.kr/index.do>, 접속일

<sup>5)</sup> 문정화, 성기욱, 김성원, 선승아(2022). “고양특례시 사회보장진단 및 정책제안-성인 돌봄, 아동 돌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2022.05.06.).

-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구 비율 1위·장애 정도가 심함)**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성된 발달장애아의 경우 100% 심한 장애이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등록장애인 중 10%가 발달장애인으로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인구분포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공공데이터포털, 고양시 등록장애인 현황 (2021), <https://www.data.go.kr/index.do>, 접속일 2022.05.06.).
- **(장애인구의 초고령화 진행)**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양시 장애인구의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수가 등록장애인 인구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될수록 수급자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장애와 고령의 중복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이 예측된다(이병화 외, 2019).
- **(고양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 고양시민의 경우 인권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장애인(40%)을 꼽고 있었으며 인권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집단도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석 외, 2020).
- **(장애인 돌봄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불균형)**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시·군·구의 노력 체감에서는 장애인 돌봄이 성인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 불균형이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개인위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지원 필요)**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은 개인위생관리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장애아동 돌봄 부담이 높아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욕구가 높은 반면 서비스 인지율은 가장 낮음)** 외부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으로 ‘장애아동 돌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이용 의향으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경기도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장애인서비스 인지율은 장애아동 돌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아동 발달 문제로 겪는 어려움은 장애인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지난 1년간 아동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아동가구가 40.1점, 장애인가구가 28.2점, 비장애인가구가 24.5점으로 장애아동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장애인가구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낮음)**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1.2점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사회적 돌봄 만족도 또한 다소 낮게 나타나 건강·복지 영역에서 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양시, 2021b).
- **(장애인가구 돌봄서비스 중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만족도 낮음)** 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장애인활동지원이 7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발달장애인주간활동(73.5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70.7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부족)** 고양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개소, 정원 22명으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에 비해 적다.
-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감소 추세)** 고양시 장애인 1,000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가 유사 지역(수원, 용인, 성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양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오민수 외, 2021).
-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필요도 높음)** 발달장애인 중 62.2%가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66.8%가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 기관 인지 여부로는 장애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23.4%), 복지서비스 기관 필요도 역시 장애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14.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병화 외, 2018).
-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그중 약 10%는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며, 낮시간에는 어디서 활동해야 할지 몰라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양시의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은 1위 소득지원, 2위 의료지원, 3위 고용지원, 4위 돌봄서비스 확대, 5위 문화·여가 체육활동 확대 등으로 조사되었다(이병화 외, 2018).
- **(발달장애인 부모 욕구)** 양육과 돌봄 영역에서 ‘자녀 양육에 전념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활동지원시간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시간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활동지원사를 찾는 데 어려움’, ‘단기간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의 확대 절실’, ‘주간보호센터 부족과 대기자 과다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음’, ‘주간보호센터 이용 기간이 제한되어 부모가

나이 들에 따라 자녀 돌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발달장애인 부모 욕구 FGI 조사 결과, 2022).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음)** 경기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고양시가 1,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률은 10.48%,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근인 과주시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과주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병화 외, 2019).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 현황은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으며, 제공 인력 중 등록 인원과 활동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고양시이며 공급 비율(이용자 1인당 활동지원사 수)은 102.8%로 나타났다(이병화 외, 2019).
-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 제공 장소 시설과 설비 확충 필요)** 고양시 주간보호센터의 개선 점으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분석한 결과 순위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3가지씩을 확인했다. 1순위에서는 '서비스 제공 장소의 시설, 설비 확충'이 65명(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공(이용)시간 확대'가 40명(18.6%), '담당인력 전문성 향상'이 21명(9.8%)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서비스 제공 장소의 시설, 설비 확충'이 37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활동내용 다양화'가 35명(16.3%), '담당인력 전문성 향상'이 30명(14.0%)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외부활동 프로그램 확대'가 35명(16.3%)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인력 전문성 향상'이 30명(14.0%), '본인부담금 인하'가 24명(11.2%) 순으로 나타났다(양희택 외, 2018).
- **(주간보호센터의 시설 확대 필요)** 2018년 기준 고양시의 경우 8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100~150명의 대기자가 있는 상황으로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22년 기준 11개로 확대). 이용 기간과 이용 연령의 서비스 기준으로 이용 기간 종료 이후, 4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추후 대책이 필요하며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증설이 필요하다(고양시 내부자료).
- **(주간보호센터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 등의 위험 요소가 많고, 도전적 행동을 할 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소시켜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양희택 외, 2018).

- **(주간보호센터에 장애특성에 따른 개인별 지원프로그램 개설)**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 중 의사소통이 잘되거나 지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욕구가 발생하고 있다(양희택 외, 2018).
- **(주보호자의 건강과 돌봄노동의 지원 필요)** 주보호자의 휴식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성인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주보호자는 비교적 고령이 될 때까지 신체적으로 성장한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양희택 외, 2018).
- **(주보호자 외 동거가족의 장애인권교육 필요)** 정신적 장애인의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주보호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령으로 더는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이 새로운 주보호자가 되었을 경우, 가까운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장애인권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양희택 외, 2018).

## 2) 노인 돌봄

- **(노인 돌봄 만족도는 상대적 보통 수준)** 고양시 노인가구의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재가)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자체 서비스를 포함하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4.0점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4개 지자체 중 성남시, 수원시보다는 낮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용인시보다는 높다(오민수 외, 2021).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음)** 고양시 노인가구의 노인 돌봄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급여(77.7점)이며, 장기요양 시설급여(73.9점), 노인맞춤돌봄서비스(72.8점) 순이다. 노인가구주 3개 가구 유형(단독가구, 비단독가구, 노인만 사는 가구)과 노인돌봄서비스 유형을 교차해 살펴보면 ‘노인만 사는 가구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만족도(79.2점)’가 가장 높다(오민수 외, 2021).
- **(고양시민의 우선적인 노인복지 욕구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유형이 다수)**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사업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를 확인한 결과 가사서비스(13.5%), 간병·목욕서비스(13.5%), 식사 제공(8.1%) 등 노인 돌봄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 다수 포함된

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양시, 2021a).

- **(빠른 속도의 고령화 예측)** 고양시 노령화지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특히 고양시 노인인구 비율이 유사한 용인시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노인세대 외 인구집단의 대거 유입 등 특별한 변화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양시의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된다(고양시, 2021b).
- **(노인집단의 평균연령 상승 예상)**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볼 때 고양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젊은 전기노인(65~74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후기노인의 비중은 전체 노인인구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향후 수년간 고양시 노인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이 예견된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쇠퇴가 더 크게 예상되는 후기노인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접속일 2022.05.06.).
- **(돌봄이 필요한 노인 비율 상승 중)** 고양시 요보호노인 비율은 최근 매년 증가해 왔고, 2020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 중 요보호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7%이다. 이는 고양시와 노인인구 비율이 유사한 용인시의 2.68%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오민수 외, 2021).
- **(고연령대의 여성노인, 저연령대의 남성노인이 거주)** 고양시 노인집단에서 고연령대로 갈수록 여성노인 비율이 높아진다. 또 여성노인 내에서는 85세 이상의 후기노인 비중(65.5%)이 가장 높다. 반면 남성노인 내에서는 전기노인 비중(60.8%)이 가장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여성노인에게는 돌봄 제공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남성노인에게는 돌봄 진입 예방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접속일 2022.05.06.).
- **(노인 관련 서비스 인지율이 낮음)** 고양시의 노인 서비스 인지율(20.46%)은 인구 규모 유사 지역 4개 도시의 노인 서비스 인지율보다 낮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비슷한 용인시 41.89%와 비교할 때 2분의 1 이상의 비율차를 보인다(오민수 외, 2021).
- **(노인 돌봄 정보 접근성은 낮은 편임)** 고양시의 노인가구가 가장 찾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회보장정보는 노인 돌봄 정보(31.3%)이고, 노인가구주 단독가구인 경우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노인가구에서 돌봄서비스의 잠재적 욕구가 내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돌봄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뿐 아니라 고양시 전체 시민의 노인 돌봄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양시, 2021b).

- **(입소문과 TV 위주로 노인 돌봄 정보를 습득함)** 고양시 노인가구에서 확인한 결과 사회보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양시가 추진할 우선 과제는 무료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동편의시설 마련(16.9%), 정보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15.9%)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노인가구가 접근이 어려운 서비스 정보를 찾는 주된 방법으로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35.4%)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전통적 정보매개체인 TV(20.9%)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비율도 18.8%로 두 자릿수지만 TV보다는 적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해서는 공급자 편의 중심의 인터넷 온라인 정보 제공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선호하는 노인 수요자를 고려해 오프라인 방식을 동반한 다각도의 정보 제공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양시, 2021b).
- **(노인의 사회 신뢰도는 높은 편이나 이용 가능 자원은 빈약함)** 고양시 노인의 가족 신뢰도(8.69점), 이웃 신뢰도(5.39점), 일반인 신뢰도(4.3점), 공공기관 신뢰도(6.67점)는 청년이나 중장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3.7명으로 고양시민 전체평균 4.28명보다 적고, 청년이나 중장년과 비교해도 적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노인 돌봄 참여 자원을 확대해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는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이 필요함)**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는 특히 가사활동 어려움 30.1%,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29.6%, 이동 및 외출 어려움 28.5%, 재난 관련 대처 어려움 28.4%, 개인위생관리 어려움 28.1%, 돌봄 비용 부담 28.0%, 신체적·정신적 부담 27.1%,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 26.5% 등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수준의 자기 돌봄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수준의 개별서비스를 보다 통합적·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타 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일상생활 전반의 자립도를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양시, 2021b).

- **(지역별 특성과 욕구 수준 다소 상이)** 고양시 구 또는 동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 노인의 돌봄 욕구가 특정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은 아닌지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상 전반에 걸친 돌봄 욕구가 큰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덕양구 대덕동은 가사활동, 개인위생관리, 이동과 외출, 재난 관련 대처,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 등 모든 유형의 돌봄 관련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요구된다(고양시, 2021b).
- **(노인 돌봄 비용의 재점검과 서비스 접근성 확대)** 고양시 노인가구가 노인 돌봄 관련 사회보장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돌봄비용 지원서비스 이용이 2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노인이 돌봄 필요 시 선택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도록 이용료 지불 기준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양시, 2021b).
- **(가사와 위생 관련 노인 돌봄 욕구 높음)** 고양시 노인가구에서 노인 돌봄 관련 어려움 정도가 가장 큰 영역은 ‘가사활동 어려움(31.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단독가구는 가사활동 어려움 경험 비율이 38.0%로 모든 어려움 유형 중 가장 높고, ‘개인위생관리 어려움(36.1%)’이 두 번째를 차지한다. 또 노인 돌봄 관련 사회보장 지원과 서비스 이용 의향을 확인한 결과 ‘가사 지원서비스 이용의향’이 45.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가사, 영양, 청결,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양시, 2021b).
- **(노인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 시 시설입소 희망)** 고양시 노인가구 가운데 노화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 시 ‘전문적인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경우는 54.0%, ‘원래 살던 집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경우는 45.8%로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는 돌봄을 제공하는 비교적 많은 수의 입소시설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살던 지역 소재 입소시설로 거주공간을 이동하는 데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의 지역 개방성을 높여 입소 후에도 지역사회 간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생활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양시, 2021b).
- **(노인의 정신건강 어려움에 관심 필요)** 고양시 노인가구는 모든 유형의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항목에서 고양시 전체의 어려움 경험 정도 점수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가구주 가구 유형과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유형을 교차해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정신건강 증진 어려움 관련 서비스 필요성’이 3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독거노인의 신체건강 관리 어려움)** 고양시 노인 단독가구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정도’는 32.6점,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는 31.8점으로 세 유형의 노인가구주 가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는 각각 37.2점, 37.5점으로서 세 유형의 노인가구주 가구 가운데 서비스의 필요 욕구도 가장 크다. 이러한 양상은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제공이 더욱 필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양시, 2021b).
- **(신체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정신건강 서비스보다 많음)** 고양시 노인가구 중 ‘신체적 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4%, ‘일상적인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1%이다. 반면에 고양시 노인가구가 이용해 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17.0%’,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15.9%’,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11.8%’,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5.7%’, ‘중독 예방 및 치료서비스 5.2%’ 순으로 신체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노인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노력 진행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중 건강분과에서 보건복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노인 돌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 의료, 복지 영역의 각 기관의 역할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극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선경험을 노인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환경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지역별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이용 만족도에 차이가 큼)** 장기요양 시설급여 서비스 만족도는 관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소 큰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덕양구 원신동 84.6점, 행신2동 83.3점, 성사2동 58.3점, 마두1동 37.5점, 장항1동 25.0점 등 만족도 수준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내 어디에서든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편차가 크지 않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운영자, 이용자, 보호자 등이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양시, 2021b).

- **(노인장기요양보호 제공 시설이 많음)** 유사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양시의 지역사회 거주시설 절대수(공동생활가정 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2개소)와 노인 1만 명당 시설 수(4.07개소)가 많다(오민수 외, 2021).
-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이 매년 줄고 있음)** 고양시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이 유사한 용인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거주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인구가 매년 30명씩 감소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거주시설) 이용자 수는 증가하여 해당 비율이 최근 매년 줄어들고 있다(오민수 외, 2021).
- **(노인인구 대비 재가시설 종사자 비율이 낮음)** 노인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34개소)는 2018~2020년 3년간 10개소가 증가하였고, 노인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2.51명)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노인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유사 규모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특히 용인시와 노인인구 비율이 유사하고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은 용인시보다 높지만 노인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용인시가 2배(4.71명)가량 많다. 노인 1,000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로 살펴보면 고양시 종사자 수(2.53명)보다 용인시 종사자 수(7.7명)가 3배 이상 많다. 따라서 재가시설 절대 수와 종사자 확충 필요 여부 점검, 인프라 정비가 요구된다(오민수 외, 2021).
- **(다수의 1, 2인실을 운영하는 입소시설 증가, 방문 요양·단기 보호 축소)** 고양시 장기요양 입소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수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1, 2인실을 다수 설치한 신규 시설의 진입을 들 수 있다. 1, 2인실의 증가는 입소 희망 노인이나 노인 가족의 욕구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인프라 점검·정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노인시설종사자 FGI, 2022).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제공 기관의 감소)** 고양시 지역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단기보호 제공 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노인시설종사자 FGI, 2022).
- **(종사자 구인이 어려운 현실)** 고양시 거주자 가운데서 종사자 구인이 어려운 편이며, 경기 파주, 서울 서대문과 은평 등 인근에 거주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보호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등 급여 보전, 기타 근로조건

개선, 직중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병화 외, 2019).

-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 현장에 인력 누수가 발생하면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인력 파견을 사업화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는 아동 돌봄 등 타 영역의 문제 해결 방식을 참고해 노인장기요양 현장의 대체인력 지원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노인 시설종사자 FGI, 2022).
- **(노인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중간점수 이상임)**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노인 돌봄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확인한 결과 중간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3.77점)로 나타났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고양시 노인인구의 1.9%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 2.7%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유사 규모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수원시(노인인구의 4.5%), 성남시(노인인구의 2.8%), 용인시(노인인구의 2.0%), 고양시 순이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이용자 중 저소득층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많음)**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할 때 기초연금수급자가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빈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과거의 노인 돌봄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일반 대상에게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주관적·객관적으로 잔존능력 활용이 가능한 이용자가 적지 않음)**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노인의 87.5%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고, 57.5%가 건강 유지를 위해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섭취 중이며, 54.0%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또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4.12점(5점 만점)으로 일방적 지원이 아닌 노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돌봄에 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노인의 절반 이상인 59.3%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나 필요한 앱 사용, 돌봄 정보 습득 등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정보에 접근하는

데 방해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상황(응급 시, 돌봄 정보 접근 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건강 악화 시 시설입소보다 재가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더 많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노인 중 건강 악화 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47.5%로서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서비스 연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연계서비스 만족도는 식료품·생필품 지원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4.47점), 후원금 등 생계비 지원 만족도(3.6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만족도(3.45점), 의료연계 지원 만족도(3.55점), 건강보조 지원 만족도(3.94점) 모두 4점 미만으로 다른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연계 강화, 통합적 돌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의 실효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생활 향상에 유용함)** 고양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 노인이 ‘집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4.4점), 사고나 응급상황 불안 감소(4.42점), 외로움 감소(4.5점), 삶에 도움이 된다(4.59점)’고 평가하는 점에서 볼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상황을 만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심리적, 물질적으로 도움이 됨)**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노인 인터뷰 결과 생활지원사의 안부 확인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가사, 병원 동행 등의 생활지원과 영양제 등 후원 물품이 도움이 되고 있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양과 내용에 관한 욕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가 교체되지 않는 지속성 높은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방문 횟수 확대, 반찬 또는 부식재료 제공 서비스 등에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노인복지관은 이미 포화상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동시에 노인 돌봄 진입 지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노인시설 유형은 노인복지관이다. 현재 고양시 노인복지관은 3개소(노인종합복지관)가 있으며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중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설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관 3곳은 이미 포화상태로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이 넓고 노인인구가 많은 덕양구에는 노인복지관이 1개소뿐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다(문정화 외, 2019).

- **(이용자별 건강 상태와 기능에 차이가 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노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기능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 노인을 기능적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문정화, 선승아, 고아라, 2021).
- **(과학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제공)** 시에서 지원받은 ICT 응급안전장비를 노인가정에 설치하고, AI 돌봄 로봇 등 IoT 기술을 노인 돌봄에 접목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모델사업 형식의 원격진료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은 이미 시작된 만큼 사회변화에 맞게 새로운 돌봄 환경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노인시설종사자 FGI, 2022).

## 제3절 보호·안전

### 1. 분석 자료

[표 3-3] 분석 자료 - 보호·안전

#### 분석 자료

- 고양시(2018). 2018 제3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고양시(2021c) 고양시 코로나19백서.
- 도로교통공단(2021). 2020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이정철, 조동익(2022). 고양시 지반 침하 이슈와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이슈브리프, 36호.
- 전성훈 외(2021). 고양시 30년, 고양특례시 30년 - 시민정책.
- 기타 통계자료

### 2. 욕구와 문제점

#### 1) 안전 전반

##### (1) 지역안전지수

-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로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243개 지자체를 시·도, 시·군·구별로 그룹을 지어 상대적 등급(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을 부여하여 매년 공표한다.
- (2021년 지역안전지수) 고양시는 생활안전, 자살 부문에서 가장 좋은 평가인 1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부문에서 2등급을 받았으며, 감염병이 3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하위 등급(4·5등급)이 없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안전지수 공개서비스,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 접속일 2022.07.28.).
- (6년간 지역안전지수 비교) 생활안전 등급은 6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으며, 자살과



범죄 부문은 2019년 이후 1개 등급 상승해 개선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등급은 2019년 3등급에서 2020년 2등급으로 상승했고, 자살 부문의 경우 상위 10% 이내인 1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교통사고와 감염병 부문의 등급은 6년간 2등급으로,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고양시의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지역안전지수 공개서비스,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 접속일 2022.07.28.).

[표 3-4] 6개년 간 지역안전지수 비교(2016~2021)

| 구분 | 생활안전 |     |     |     |     |     | 자살  |     |     |     |     |     | 교통사고 |     |     |     |     |     |
|----|------|-----|-----|-----|-----|-----|-----|-----|-----|-----|-----|-----|------|-----|-----|-----|-----|-----|
|    | '16  | '17 | '18 | '19 | '20 | '21 | '16 | '17 | '18 | '19 | '20 | '21 | '16  | '17 | '18 | '19 | '20 | '21 |
| 고양 | 1    | 1   | 1   | 1   | 1   | 1   | 2   | 2   | 2   | 2   | 1   | 1   | 2    | 2   | 2   | 2   | 2   | 2   |
| 구분 | 화재   |     |     |     |     |     | 범죄  |     |     |     |     |     | 감염병  |     |     |     |     |     |
|    | '16  | '17 | '18 | '19 | '20 | '21 | '16 | '17 | '18 | '19 | '20 | '21 | '16  | '17 | '18 | '19 | '20 | '21 |
| 고양 | 1    | 1   | 2   | 2   | 1   | 2   | 2   | 2   | 2   | 3   | 2   | 2   | 2    | 2   | 2   | 2   | 2   | 3   |

〈자료〉 지역안전지수 공개서비스,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 접속일 2022.07.28.

## (2)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안전사고로 손실을 입은 고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양시가 2018년(자전거보험)과 2019년(시민안전보험)에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나 화재·붕괴·강도 등의 생활안전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한다.
- (인지도가 높지 않음)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의 인지도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보험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약 54.7%, 자전거보험의 경우 62.8%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자가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임을 고려할 때 일반 시민은 더욱 낮은 인지도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전성훈 외, 2021).
- (‘보통’ 수준의 만족도가 상당수)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약 48.6%가 만족하고 있으나 43.1%는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57%는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35.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전성훈 외, 2021).

- (보장 내역의 필요성) 기존 보장 내용(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교통사고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은 80% 내외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와 더불어 신규 보장 내역으로 필요한 부분은 의료사고 법률지원,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강력범죄 상해, 감염병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정리하면 고양시민은 기존의 보장 내용은 유지하되 추가로 범죄·치안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성훈 외, 2021).

### (3) 사회 부문별 안전도와 안전 만족도

- 사회조사 중 ‘사회 분야별 안전도’는 고양시민이 느끼는 사회 안전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2020년에 새로 조사가 시행되었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신 자료인 2018년의 결과를 참고했다.
- (3점 이하가 대다수) 고양시민은 국가 안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점 이하의 안전도를 보여 보통보다 낮게 안전 정도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2.87점으로 낮았고, ‘안전함(18.6%)’의 응답이 ‘불안전함(30.4%)’에 비해 훨씬 낮았다. 특히 하위 4개 항목(신종 전염병, 교통사고, 범죄 위험, 정보 보안)의 경우 불안전 응답과 안전 응답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18).

[표 3-5] 2018년 사회조사 중 사회 부문별 안전도

(단위: %)

| 구분         | 안전함<br>(매우 안전함+조금 안전함) | 보통   | 불안전함<br>(매우 불안전함+조금 불안전함) | 격차<br>(불안전함 - 안전함) | 평균(점) |
|------------|------------------------|------|---------------------------|--------------------|-------|
| 국가 안보      | 31.5                   | 38.0 | 30.4                      | -1.1               | 3.02  |
| 건축물 및 시설물  | 20.9                   | 49.3 | 29.9                      | 9                  | 2.90  |
| 전반적인 사회 안전 | 18.6                   | 51.0 | 30.4                      | 11.8               | 2.87  |
| 화재         | 16.7                   | 52.5 | 30.7                      | 14                 | 2.84  |
| 자연재해       | 19.9                   | 39.7 | 40.4                      | 20.5               | 2.76  |
| 먹거리        | 18.2                   | 43.8 | 38.0                      | 19.8               | 2.76  |
| 신종 전염병     | 15.6                   | 42.4 | 42.1                      | 26.5               | 2.69  |
| 교통사고       | 12.4                   | 45.8 | 41.9                      | 29.5               | 2.64  |
| 범죄 위험      | 17.3                   | 36.0 | 46.7                      | 29.4               | 2.63  |
| 정보 보안      | 13.9                   | 41.4 | 44.7                      | 30.8               | 2.61  |

<자료> 고양시(2018). 2018년 사회조사

- 사회조사 중 ‘안전 만족도’는 생활환경 만족도의 10개 부문 중 하나로 고양시민을 둘러싼 안전 환경 만족을 뜻하며 0~10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뜻한다(고양시, 2021a).
- (안전 만족도 10점 만점에 6점) 이는 생활환경 만족도 중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4) 정책 시급성과 노력 체감도

- (정책 시급성과 노력 체감도가 낮은 편) 안전 부문의 정책 시급성은 58.3점, 노력 체감도는 58.6점으로 나타났다. 65점 내외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인 돌봄과 비교했을 때 안전 부문의 각 점수는 낮은 편이다. 즉, 안전의 경우 고양시민은 정책 시급성도 낮지만 노력 체감도 역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고양시, 2021b).
- (안전 정책은 역점 분야 중 후 순위) 이와 유사하게 고양시민은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역점 분야를 고를 때에도 안전 정책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2.9%). 일자리 정책(35.5%), 보건·복지 정책(21.4%)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며,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후 순위에 안전을 두고 있다(고양시, 2021a).

## 2) 학대·폭력

### (1) 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 고양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소이고, 수원시 2개소, 성남시 1개소, 용인시 1개소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전체 시군 중 수원시에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으며, 1개소만 있는 시군은 경기도 내 고양시 포함 12개 시군이다(오민수 외, 2021).
-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 감소 추세) 2018년 17만 7,905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6만 7,041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이 없는 용인시를 제외하고, 2020년 기준, 고양시가 성남시나 수원시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가

많다(오민수 외, 2021).

- (고양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총 5개소로 2021년 고양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gg1389.or.kr/>, 접속일 2022.07.28.).

## (2) 안전 유지의 어려움

-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는 가족 내부와 가족 외부의 학대·폭력 등 안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관련 지원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관련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장애아동가구의 어려움 경험이 가장 큼) 고양시 전체는 가족 내 안전 유지의 어려움을 20.9점으로, 가족 외부의 안전 유지 어려움을 21.1점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장애아동가구는 전자를 34.9점, 후자를 31.0점으로 평가해 가구 유형 중 어려움의 경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장애아동가구의 서비스 필요성이 가장 높음) 고양시 전체는 가족 내 안전 유지를 위한 서비스 필요도를 26.4점, 가족 외부의 안전 유지를 위한 서비스 필요도를 29.1점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장애아동가구는 전자를 53.9점, 후자를 59.1점으로 평가해 지원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양시, 2021b).
- (장애가구와 장애아동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음)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이용에서 가족 내부의 학대·폭력의 경우 고양시 전체의 7.4%가, 가족 외부의 경우 7%가 이용한 적이 있었다. 이에 비해 장애가구는 가족 내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를 11.6%가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장애아동가구는 가족 외부의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를 39.9%나 이용했다고 답했다(고양시, 2021b).
- 종합하면 장애가구와 장애아동가구는 학대나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며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구이며,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많았다.

### 3) 범죄

#### (1) 범죄율

- **(범죄율은 낮은 편)** 범죄율은 총 범죄 건수를 해당 연도 말 인구수로 환산해 계산했다. 2020년 기준, 유사 인구 지역과 범죄율을 비교했을 경우 고양시는 2.68%로 용인시(2.08%)보다는 높지만, 수원시(3.55%), 성남시(3.0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KOSIS), 범죄발생지, <http://kosis.kr>, 접속일 2022.07.06.)
- 강력범죄는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방화 등의 범죄를 일컫는다.
  -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 상승 추세)**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4,181건으로 기간 내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후 수치가 하락해 2018년에는 2,54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기간 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강력범죄는 2013년 최고치인 44.4건이 발생했다가 2018년에는 38.1건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기간을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전성훈 외, 2021).

#### (2) 범죄피해의 두려움

- **(자녀 대상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음)** 2018년 고양시 사회조사는 자기 자신, 배우자, 자녀,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을 5점 척도로 확인했는데, 높을수록 두려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할 때 느끼는 두려움(2.82점)보다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발생하는 범죄피해의 두려움(각 3.08점, 3.64점, 3.34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두려움이 가장 높았다(고양시, 2018).
- **(여성의 일상 범죄피해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음)** 본인을 기준으로 일상생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0~10점 척도로 측정했는데, 고양시 전체 평균이 4.26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성(4.57점)이 남성(3.93점)보다 높았다. 노년층(2.38점)은 다른 연령대보다 두려움의 정도가 상당히 낮았다. 지역 중 덕양북부(4.05점)의 두려움이 가장 낮았고, 일산동구(4.38점)의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여성의 야간보행 안전도는 남성보다 낮음)** 야간보행 안전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함을 뜻한다. 고양시 평균은 6.03점으로 보통보다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 6.31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5.7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은 야간보행 시 남성보다 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여성의 야간 범죄피해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음)** 야간 상황별 범죄피해 두려움은 크게 ‘밤에 혼자 있을 때’, ‘밤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밤에 혼자 택시를 탈 때’로 나뉜다. 해당 항목은 성별 차이가 극명했는데, 남성은 2점 내외로 두려움이 낮았으나, 여성은 3점 내외로 두려움이 다소 높았다(고양시, 2018).

#### 4) 도시교통

##### (1) 교통안전지수

- 교통안전지수는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평가 영역은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교통안전지수의 계산은 각 평가 영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고려하여 산출되며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인구와 도로 연장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수가 보정될 수 있다(도로교통공단, 2021).
- 지역 규모별로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끼리 A(10%), B(25%), C(30%), D(25%), E(10%)로 등급을 매긴다. 그룹은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총 4개로 나뉜다. 고양시는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29개 시)에 속한다(도로교통공단, 2021).
- **(교통안전지수가 매우 낮음)** 고양시는 2020년 교통안전지수가 70.47점으로, 지자체 전체의 평균보다 8.5점 낮고, 같은 그룹(30만 이상 시) 평균보다 2.68점이 낮아 교통안전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그룹에 속한 29개 시 중 18번째 순위를 기록하여 C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하면 상황이 개선되었고 개선순위는 4위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교통안전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도로교통공단, 2021).
  - 세부 항목 중 교통약자(74.47점)와 운전자(72.09점)는 같은 그룹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그룹의 평균과 차이가 나는 항목은

자전거 및 이륜차(65.84점)이며, 이 부분은 29개 시 중 26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도로교통공단, 2021).

- 2021년 고양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용인시는 31명, 수원시는 25명으로 모두 고양시보다 적게 나타났다.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이라 보행자 보도가 부족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 실제로 39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14명이 보행 중 사망하였다(설재훈, 2022.07.26.).

[표 3-6] 고양시 교통안전지수

|               |    | 교통<br>안전지수 | 세부 항목별 점수  |              |       |       |       |       |       |
|---------------|----|------------|------------|--------------|-------|-------|-------|-------|-------|
|               |    |            | 사업용<br>자동차 | 자전거 및<br>이륜차 | 보행자   | 교통약자  | 운전자   | 도로환경  |       |
| 지자체 전체 평균     |    | 78.97      | 79.02      | 78.95        | 78.98 | 78.95 | 78.97 | 78.95 |       |
| '30만 이상 시' 평균 |    | 73.15      | 73.63      | 73.15        | 76.24 | 74.31 | 72.14 | 69.42 |       |
| 고<br>양<br>시   | 20 | 점수         | 70.47      | 67.82        | 65.84 | 74.01 | 74.47 | 72.09 | 68.57 |
|               | 20 | 등급(순위)     | C(18)      | D(25)        | D(26) | D(22) | C(15) | C(16) | C(14) |
|               | 20 | 점수         | 66.73      | 64.43        | 68.86 | 69.62 | 70.12 | 65.04 | 62.27 |
|               | 19 | 등급(순위)     | E(27)      | E(27)        | D(26) | E(28) | D(24) | E(27) | D(25) |
| 개선도           |    | 개선순위       | 4          | 7            | 20    | 4     | 2     | 3     | 4     |
|               |    | 개선율(%)     | 5.61       | 5.26         | -4.38 | 6.30  | 6.21  | 10.83 | 10.12 |

〈자료〉 도로교통공단(2021), 2020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 (2) 고양시민안전센터와 CCTV

- 고양시민안전센터는 일종의 통합관제센터로서 범죄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6,000여 대의 방범용 CCTV와 370여 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통합·연계해 365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한다. 또한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 조직과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양시민안전센터, [http://www.goyang.go.kr/www/www03/www03\\_1/www03\\_1\\_13.jsp](http://www.goyang.go.kr/www/www03/www03_1/www03_1_13.jsp), 접속일 2022.07.28.).
- (CCTV 현황과 설치 필요 지역) 고양시민의 84.5%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며 그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덕양구(81.1%), 일산동구(87.9%), 일산서구(86.4%)로 행정구별 차이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CTV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77.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학교 주변(17.8%),

주요 도로(3.7%)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구 중 일산동구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응답률이 81.6%로, 덕양구와 일산서구가 약 76%의 응답을 보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고양시, 2018).

### (3)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 고양시는 도시재생과 범죄예방·안전관리를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2016년에 토당동에 방범 시설과 조명시설을 구축하는 등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통학로의 환경을 개선하고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가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외에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전봇대나 가로등의 바닥이나 벽면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하는 장치), 통학로 안내표지 부착과 영역성 강화를 위한 도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성훈 외, 2021).

## 5) 재난·재해

### (1) 미세먼지

- 미세먼지는 최근 그 심각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재난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4등급으로 나누어 예보하고,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경우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는 크게  $10\mu\text{m}$ ( $\text{PM}_{10}$ ) 이하의 미세먼지와  $2.5\mu\text{m}$ ( $\text{PM}_{2.5}$ )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바로알기,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1>, 접속일 2022.07.29.).
- (개선 추세) 2017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고양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추이를 살펴보았다. 고양시는 미세먼지가 최근 5년간 ‘나쁨( $80\sim 150\mu\text{g}/\text{m}^3$ )’ 단계에 들어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편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나쁨( $36\sim 75\mu\text{g}/\text{m}^3$ )’ 단계에 속하는 경우가 6번 있었으나 미세먼지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상황이 많이 나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국가통계포털(KOSIS), 대기오염도 현황, <https://kosis.kr/>, 접속일 2022.07.28.).

## (2) 오존

-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오존경보제(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고양시는 그중 북부권역에 속하며, 고양시 외에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있다.
- (경기 북부권역의 오존경보제 발령이 많은 편) 2021년 경기 중부권역에 22회로 가장 많은 오존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었다. 북부권역이 20회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남부권역이 19회, 동부권역이 11회 순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 비해 다른 3개 권역은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에어코리아, 권역별 주의보·경보 발령 내역, <https://www.airkorea.or.kr/web/>, 접속일 2022.07.28.).

## (3) 지반 침하

- 지반 침하는 지표면이 상재 하중 외의 원인으로 넓은 면적의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도심지 지반 침하는 노후된 지하 매설물이 파손된 경우, 토목공사나 지하구조물이 지하수에 따라 흩어 유실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주로 석회암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공동(空洞)이 발생하는 지반 침하와 차이가 있다. 지반 침하는 따라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노후 상하수관에서 물이 새어 나와 주변의 흙을 침식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이정철 외, 2022).
-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지반 침하가 잦음) 지하안전시스템에 공개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고양시 지반 침하 사고는 총 26건으로, 같은 기간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223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천시(68건)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며, 화성시 역시 26건이 발생했다(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침하사고, <https://www.jis.go.kr/>, 접속일 2022.07.28.).
  - 고양시의 지반 침하 사고는 대부분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2019년까지 발생한 사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 일산서구에서 9건, 덕양구에서 9건, 일산동구에서 8건이 발생해 지역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산서구는 일산동(4건)에서, 일산동구는 백석동(6건)에서 주로 지반 침하가 일어난 반면에 덕양구는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감염병

- (고양시의 코로나19 대응) 고양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민·관 의료협력체 등의 체계를 확립했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방식의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대응하였다. 또한 호흡기 질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해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했던 ‘고양시 보건의료 네트워크(GO-NET)’ 그리고 선별진료소와 의약업소 사이에 검사의뢰시스템인 ‘안심넷’을 구축해 운영했다. 이로써 의료기관 간 통합 정보를 관리하고, 추가 확진을 최소화했다(고양시, 2021c).
- (고양시 보건소 감염병 관련 인력 부족) 덕양구보건소는 감염병 관리팀에 36명, 생활방역팀에 11명이 있고, 일산동구보건소는 감염병 관리팀에 17명, 생활방역팀에 9명이 있다.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관리팀에 17명, 생활방역팀에 17명이 있다(고양특례시 보건소, <http://www.goyang.go.kr/health/index.do>, 접속일 2022.07.28.). 이전보다 인력이 많이 증원되었고 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하지만, 여전히 방사선, 결핵, 임상병리, 예산관리, 기타 전염병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100만 이상의 고양시민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피로감을 해소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양시, 2021c).

#### (5) 사고재해 안전도

- (보통보다 조금 높게 인식) 재난,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정도를 10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 고양시민의 평균은 6.13점으로 나타났다. 남성(6.24점)이 여성(6.02점)보다, 노년층(7.1점)이 다른 연령대(청년층 5.93점, 중장년층 5.97점)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일산서구(5.84점)는 다른 지역(덕양남부 6.14점, 덕양북부 6.25점, 일산동구 6.31점)에 비해 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제4절 건강

### 1. 분석 자료

[표 3-7] 분석 자료 - 건강

| 분석 자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양시(2021).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li> <li>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li> <li>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li> <li>질병관리청(2021). 지역사회 건강통계</li> </ul> |

### 2. 욕구 및 문제점

#### 1) 건강 전반

##### (1) 보건의료 예산과 의료비 지출

- (보건의료 예산 2.23%) 2020년 기준,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이 고양시는 2.23%로 수원시(1.8%)나 용인시(1.83%)보다 높게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의료비 지출 노년층이 매우 높음)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 중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평균 4.4%로 나타났다. 그중 노년층의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9.5%)이 특히 높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표 3-8] 가구소득 중 의료비 지출 비율

(단위 : %, 만원)

| 구분       | 전체   | 성별   |      | 연령대별* |      |      | 지역별  |      |      |      |
|----------|------|------|------|-------|------|------|------|------|------|------|
|          |      | 남    | 여    |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  | 덕양남부 | 덕양북부 | 일산동구 | 일산서구 |
| 의료비 지출비율 | 4.4  | 4.1  | 4.6  | 3.6   | 2.9  | 9.5  | 5.2  | 3.4  | 4.4  | 4.4  |
| 월평균 의료비  | 13.4 | 14.1 | 12.8 | 17.0  | 11.4 | 13.1 | 14.4 | 10.9 | 13.7 | 13.9 |

<자료>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2)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만족도 7.02점)** 고양시에서 받은 의료서비스(병원, 보건소 등)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7.02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8.10점)이 청년층(6.88점)이나 중장년층(6.79점)에 비해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일산동구(7.17점)와 일산서구(7.09점)가 7점 이상이었으나 덕양남부(6.95점)와 덕양북부(6.79점)는 7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의료서비스 이용 용이성 7.13점)**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7.13점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노년층(7.43점)이 중장년층(7.08점)이나 청년층(7.07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일산서구(7.34점), 일산동구(7.21점), 덕양남부(7.06점), 덕양북부(6.78점) 순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상당히 높음)** 고양시의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는 120.1명으로, 경기도(100.3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사 인구 지역인 수원시(99.97명), 용인시(80.89명)보다도 병상 수가 많아 고양시의 의료 환경이 좋다는 점을 알 수 있다(오민수 외, 2021).
- **(미충족 의료율 6.1%)** 고양시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6.1%로 경기도 평균(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3)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5.92점)** 고양시민의 주관적 건강상태(0~10점 척도)는 5.92점으로 보통(5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5.62점)보다 남성(6.22점)이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6점 이상으로 보았을 때, 그 응답 비율이 청년층 63.9%, 중장년층 54.8%, 노년층 43.1%였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문정화, 유선치, 2020).

## 2) 신체건강

### (1)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 **정책시급성 56.8점, 노력체감도 58.9점)** 고양시민은 신체 건강 관련 정책이 시급한지는 56.8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시의 노력 정도는 58.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양시, 2021b).
-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는 신체적 질환이나 일상적인 신체 건강관리에 따라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는지, 관련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노인가구의 어려움 경험이 높음)** 일상적인 신체 건강관리(21.0점)가 신체적 질환으로 겪는 어려움(20.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경우, 각각 29.1점과 28.6점으로 어려움 경험 정도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았다(고양시, 2021b).
  - **(장애아동가구의 필요성이 높음)** 일상적인 신체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27.0점, 신체적 질환에 관한 지원 필요성은 26.4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가구는 각각 53.9점, 56.0점으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그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고양시, 2021b).
  - **(신체적 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더 많음)** 지원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은 앞선 어려움 경험이나 필요성 문항과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19.8%)가 일상적인 신체 건강증진 서비스(15.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종합하면 신체적 질환이나 일상적인 신체 건강관리의 경우, 어려움은 낮지만,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질환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일상 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보다 더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2) 신체건강 관리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경기도 최하)** 고양시의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36.2%로 경기도에서 최하 비율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은 42.4%였으며, 유사 인구 도시인 수원시는 43.5%, 용인시는 46.6%로 모두 고양시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오민수 외, 2021).

-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73.5%)** 고양시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3.5%로 경기도 평균인 74.4%보다 낮았으며, 유사 인구 도시 중 수원시(75%)보다 다소 낮았다(오민수 외, 2021).
- **(노년층 만성질환율 84.9%로 높음)** 3개월 이상 투병 또는 투약하는 질병이나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고양시민은 전체의 35%였다. 한편 이는 노년층의 경우 84.9%로 중장년층(33.3%), 청년층(15.7%)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의 33.2%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했다(문정화, 유선치, 2020).
- **(고양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고양시 보건소는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지표(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지니며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6개월간 건강관리와 상담을 지원한다. 비용 절감과 효과성, 예방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문정화, 유선치, 2020)

### (3) 신체건강 상태

- **(흡연율 17.3%)** 고양시의 흡연율은 17.3%로 경기도(19.1%)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유사 인구 지역과 비교했을 경우, 수원시(16.9%)나 용인시(16.3%)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고위험 음주율 12.4%)** 고양시의 고위험 음주율은 12.4%로 경기도 평균(13.8%), 용인시(13.1%)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비만율 27.9%)** 고양시의 비만율을 조사한 결과 27.9%였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31.6%), 수원시(31.5%), 용인시(29.2%)보다도 낮고,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3) 정신건강

### (1)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 **(정책시급성 58.9점, 노력체감도 57.8점)** 고양시민은 정신건강 관련 정책이 58.9점으로

다소 시급하지만 시의 노력체감도는 57.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해 시의 노력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는 정신건강 증진, 중증정신질환, 중독, 자살 관련 문제,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과 지원 필요성,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이 가장 높음)**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2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14.4점, 중증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13.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정신건강 증진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음)** 정신건강 증진 지원의 필요성이 25.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중증정신질환 지원 필요성이 19.4점, 트라우마 지원 필요성이 19.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증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41.7점, 장애가구는 39.1점으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고양시, 2021b).
  - **(신체적 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더 많음)** 관련 이용 경험률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가 1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가 10.3%,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가 7.5%로 확인되었다. 장애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이용 경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2) 정신건강 상태

- **(우울 정도 1.58점으로 낮음)** 우울 정도를 1~4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정의했을 때 고양시민 전체의 경우 1.58점으로 낮았다. 여성(1.61점)이 남성(1.54점)보다 우울감이 높았고, 노년층(1.45점)에 비해 청년층(1.61점)과 중장년층(1.60점)의 우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 중 일산동구(1.66점)의 우울감이 다른 지역(덕양남부 1.58점, 덕양북부 1.52점, 일산서구 1.5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자살 생각 1.23점으로 낮음)** 자살 생각을 하는 정도를 1~4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고양시의 평균은 1.23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1.15점)보다 청년층(1.26점)과 중장년층(1.24점)에서 자살 생각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 중 일산서구와 덕양북

부가 1.18점으로 자살 생각이 가장 낮았고, 이어서 일산동구(1.27점), 덕양남부(1.29점) 순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3년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21.8명, 2019년에 20.2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에 21.6명으로 조금 증가했다(국가통계포탈(KOSIS), 시군구 사망원인별 사망률, <https://kosis.kr>, 접속일 2022.07.28.).

#### 4) 행정구별 건강 비교

- 행정구별로 건강을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덕양구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음주, 비만율, 고혈압 진단율이 덕양구에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같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덕양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 모든 행정구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청년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우울 증상 유병률은 노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표 3-9] 행정구별 건강 비교

|            | 일산서구                            | 일산동구                            | 덕양구                                 |
|------------|---------------------------------|---------------------------------|-------------------------------------|
| 흡연         | 15.2% '13년 대비 감소 /남성, 40대 높음    | 14.4% '13년 대비 감소 /남성, 40대 높음    | <b>16.7%</b> '13년 대비 감소 /남성, 40대 높음 |
| 음주         | 49.0% 남성, 40대 높음                | 50.3% 남성, 20대 높음                | <b>55.7%</b> 남성, 30대 높음             |
| 비만율        | 28.2% '13년 대비 증가 /남자, 40대 높음    | 26.3% '13년 대비 증가 /남성, 50대 높음    | <b>32.1%</b> '13년 대비 증가 /남성, 30대 높음 |
| 고혈압 진단율    | 22.5% 70대 높음                    | 22.9% 70대 높음                    | <b>28.4%</b> 남성, 70대 높음             |
| 당뇨병 진단율    | <b>13.8%</b> 70대 이상 높음          | 8.7% 70대 이상 높음                  | 13.5% 70대 이상 높음                     |
| 스트레스 인지율   | 23.6% 20대 높음                    | 22.8% 30대 높음                    | <b>30.4%</b> 20대 높음                 |
| 우울감 경험률    | 5.4% 전년 대비 0.2%p 증가             | 4.4% 전년 대비 2.7%p 증가             | <b>7.9%</b> 전년 대비 2.1%p 증가          |
| 우울 증상 유병률  | <b>3.7%</b> 70대 이상 높음           | 2.8% 70대 이상 높음                  | 3.6% 70대 이상 높음                      |
| 주관적 건강 인지율 | <b>52.4%</b> 20대 높음             | 48.6% 30대 높음                    | 40.8% 20대 높음                        |
| 건강의 질      | <b>0.954점</b> 30대 높음, 70대 이상 낮음 | <b>0.954점</b> 20대 높음, 70대 이상 낮음 | 0.950점 20대 높음, 70대 이상 낮음            |
| 미충족 의료율    | <b>6.5%</b> 30대 높음, 60대 낮음      | 5.5% 30대 높음, 70대 이상 낮음          | 4.1% 40대 높음, 70대 이상 낮음              |

<자료> 질병관리청(2021). 지역사회 건강통계.



## 제5절 교육

### 1. 분석 자료

[표 3-10] 분석 자료 - 교육

| 분석 자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li> <li>●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li> <li>● 권선영, 황철화(2020a).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욕구 분석 연구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li> <li>●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li> <li>●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li> <li>● 윤신희(2020). 고양시민의 '평생학습'은 어떠할까요?. 고양시정연구원 인포그래픽, 9.</li> <li>● 윤신희, 이세훈(2021).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 양희택, 박현숙, 오은경 외(2018). 고양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연구.</li> <li>●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각종 자료</li> </ul> |

### 2. 욕구 및 문제점

#### 1) 교육 전반

##### (1) 교육 예산과 사교육비

- (교육 예산 3.15%) 2022년 고양시 교육 분야 예산은 약 79,229,521천 원(유아 및 초중등 교육 72,066,294천 원, 고등교육 1,510,500천 원, 평생·직업교육 5,652,727천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2,515,721,349천 원)의 3.15%에 해당한다. 이는 유사 인구 지역인 수원시(2.58%)보다는 높지만, 용인시(3.30%)보다는 규모가 작은 예산이다.
- (사교육비 지출 비율 14.4%) 2020년 5월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중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14.4%였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의 75.6%가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이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77.9만 원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구체적으로 미취학 아동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6.6만 원,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85.5만 원이었다. 즉, 자녀가 성장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중 일산서구(16.7%)와 일산동구(15.6%)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덕양북부(11.8%), 덕양남부(1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2) 학생과 학교의 밀도

-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경기도 14.75개소, 수원시 13.54 개소인 반면 고양시 12.67개소, 용인시 12.5개소로 나타났다. 경기도나 수원시에 비해 고양시의 학교가 학령기 인구 대비 적은 것이다. 고양시의 경우, 2018년 11.75개소, 2019년 12.16개소, 2020년 12.67개소로, 해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오민수 외, 2021).
- (교사 1인당 학생 수) 경기도와 유사 인구 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용인시가 17.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5.81명, 수원시 15.23명이며, 고양시가 13.95명으로 가장 적다. 고양시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14.74명, 2019년 14.17명, 2020년 13.95명 등 최근 3년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오민수 외, 2021).
- (학급당 학생 수) 유사 인구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용인시가 27명으로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가 26.2명이지만, 고양시는 25.6명으로 적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27.7명, 2019년 26.7명, 2020년 25.6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오민수 외, 2021).

[표 3-11] 연도별 고양시 학생과 학교의 밀도

| 구분                    | 2018  | 2019  | 2020  |
|-----------------------|-------|-------|-------|
|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개소) | 11.75 | 12.16 | 12.67 |
| 교사 1인당 학생 수(명)        | 14.74 | 14.17 | 13.95 |
| 학급당 학생 수(명)           | 27.7  | 26.7  | 25.6  |

〈자료〉 오민수 외(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3) 집단·분야별 욕구

- **(정보 부족이 가장 불편함)** 2018년 기준,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과 관련한 어려움은 정보 부족과 이용 자격 제한이었다. 학교생활과 관련한 불편한 점은 정보 부족과 낮은 서비스 질이었으며, 학업 유지의 경우 정보 부족과 적합한 지원 부재가 주된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교육 분야에서 주된 불편한 점은 정보 부족이었다(문정화 외, 2018).
- **(종합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함)** 2018년 기준, 교육 분야의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종합정보 제공과 이용 비용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가 일치했다(문정화 외, 2018).
- **(세부 필요 우선순위)** 2018년 기준, 학교 교육에서는 인성 함양 공교육 강화를, 사회교육·평생교육에서는 직업훈련과 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상별 교육에서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과 경력단절여성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외, 2018).

### (4) 만족도

- **(보육과 달리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불만족이 높음)** 미취학 아동 학부모가 ‘보육환경’에 만족(32.3%)하는 경우가 불만족(23.7%)보다 다소 높았으나, 대부분 보통(44.0%)이라고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초중고교 학부모 역시 ‘공교육 환경’에 과반수가 보통(52.8%)으로 인식하였는데, 불만족(29.6%)이 만족(17.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보육·교육·평생교육 만족도 비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의 보육 만족도는 평균 6.32점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의 질, 시설, 교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양시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6점으로 보통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생교육 만족도는 6.63점으로 세 가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보육 만족도: 덕양남부 최저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지역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덕양남부(5.85점)가 다른 지역(일산동구 6.23점, 일산서구 6.34점,

덕양북부 6.68점)에 비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공교육 만족도: 일산서구 최저치)** 지역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일산서구(5.84점)는 다른 지역(일산동구 6.12점, 덕양남부 6.13점, 덕양북부 6.23점)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평생교육 만족도: 노년층 최고치)** 노년층의 평생교육 만족도가 8.12점으로 청년층(6.18점)이나 중장년층(6.27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 중에서는 일산서구(6.91점)가 다른 지역(덕양북부 6.50점, 덕양남부 6.50점, 일산동구 6.40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 불충분)** 고양시 초중고 학부모의 18.3%는 충분하다고 인식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40.1%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덕양구(49%)는 일산동구(33.7%), 일산서구(32.9%)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평생교육 기회가 불충분 24.7%)** 고양시의 만 25세 이상 시민의 24.7%는 평생교육 기회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했다. 보통이라는 인식이 42.4%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7%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5)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 **(정책시급성 60.4점, 노력체감도 58.9점)** 고양시민은 교육 분야에서 정책시급성은 60.4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시의 노력체감도는 58.9점으로 정책시급성보다는 낮게 인식했다(고양시, 2021ab).
-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는 교육과 관련해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학업 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평생교육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각 어려움의 경험 여부,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지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등을 확인하고 있다.
-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가장 높음)**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학업 유지의 어려움 23.4점, 평생교육의 어려움 23.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학습능력 부족의 어려움은 21.8점으로 가장 낮았다(고양시, 2021ab).
  - 노인가구는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학업 유지의 어려움과 학교생활

- 적응의 어려움을, 아동가구는 평생교육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호소했다(고양시, 2021ab).
- 한편 오민수 외(2021)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고양시는 3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사 인구 지역인 수원시(22.8점)나 용인시(29.1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이다.
  -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필요도 높음)**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필요도가 3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 유지 지원이 30.5점, 평생교육의 어려움 지원 30점, 기초학습능력 지원이 29.1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b).
  - 오민수 외(2021)에 따르면, 고양시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2018년 1.68%, 2019년 2.07%, 2020년 2.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고양시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수원시(1.78%), 용인시(2.03%)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의 이용 경험 많음)** 교육 관련 서비스 중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16.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14.8%), 평생교육 서비스(13%)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b).

## 2) 기타 교육

### (1) 특수교육

- **(특수학급 현황)** 2022년 6월 기준, 특수학교는 고양시에 총 4개교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양시 교육기관은 유치원 30개교, 초등학교는 74개교, 중학교는 35개교, 고등학교는 26개교로 확인되었다(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https://www.kengy.go.kr>, 접속일 2022.06.01.).
- 특수교육 대상자가 재학 중인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교육기관은 총 28개교이다. 그중 유치원은 5개원, 초등학교는 11개교, 중학교는 5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이다(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https://www.kengy.go.kr/>, 접속일 2022.06.01.).
- **(공립 특수교사 수)** 2015년 기준으로 고양시에 공립 특수교사는 총 94명으로, 수원시(109명)나 용인시(112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경험과 목적)** 고양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 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이용하거나 장애유형별 연합회에 소속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 중 약 50%는 발달장애인으로 표집했다(양희택 외, 2018). 조사에 참여한 고양시 장애인 중 49.5%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주로 장애인복지관(53%), 사회복지관(42.6%)에서 심리적 만족과 행복 충족(27.6%)이나 교양 함양과 지식 습득(26.7%)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희택 외, 2018).

- **(만족도와 유용성)** 이들의 만족도는 3.31점(5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았고, 응답자의 77.6%가 평생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양희택 외, 2018).
-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과 이유)** 응답자 중 44.4%는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고, 그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40.8%),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35.7%) 순으로 나타났다(양희택 외, 2018).
- **(평생교육 관련 욕구)** 참여 장애인의 77.1%가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고양시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와 동시에 고양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부족(73.9%)'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수 역시 '부족(76.3%)'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희택 외, 2018).

## (2) 평생교육

- **(평생교육 참여율 16.1%)** 고양시민의 16.1%는 2020년 조사 당시 최근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2.6%)보다 여성(19.4%)의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대 중 노년층의 참여율이 22.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 중에서 일산서구의 참여율이 23.3%로 가장 높았으나 덕양북부의 참여율은 10.3%로 가장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평생교육 비경험 이유)** 고양시민 중 평생교육 비경험자 중 56.2%가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밖에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24.1%)', '근거리에 교육기관이 부재해서(19.1%)'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윤신희, 2020).
- **(고양시 평생학습 방향성)** '다양한 학습/강좌/프로그램(20.6%)'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정보공유(10.5%)', '홍보 강화(7.9%)' 순으로 나타났다(윤신희 외, 2021).
- **(참여 희망 프로그램)** 응답자 중 63.8%가 향후 평생학습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희망 프로그램은 스포츠(62.9%), 음악(27.4%), 외국어(19.8%), 건강·의료(19.3%) 순으로 나타났다(윤신희, 2020).

- **(평생학습을 통한 자격 취득)** 평생학습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23.5%였으며, 20대(37.9%)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중졸 학력 집단은 자격증 취득률이 100%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 비교했을 경우,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취득률이 51.9%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저소득, 저학력 집단의 자격증 취득의 주된 경로 중 하나가 평생교육으로 나타났다(윤신희 외, 2021).
-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창업)** 평생학습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는 11.2%였는데, 30대, 중졸 학력 집단, 개인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가 많았다. 즉, 자격 취득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저학력 집단에 평생학습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신희 외, 2021).
- **(삶에 미친 영향)** 평생학습 경험이 개인 삶에 미친 영향은 ‘자기 계발’이 7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74.2점)’, ‘건강관리(68.3점)’, ‘친목도모 증진(66.9점)’,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64.1점)’ 순으로 나타났다(윤신희 외, 2021).
-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미약)** 현재 고양시는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회의 참석수당 관련 예산을 통해 회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선영 외, 2020a).

## 제6절 고용

### 1. 분석 자료

[표 3-12] 분석 자료 - 고용

#### 분석 자료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고양시(2022). 2022년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안).
- 김용덕, 김은지(2021). 고양시 창업생태계 효율성 지수 추정 및 주요시사점.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문정화, 고아라(2021).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이정철, 황희욱(2020).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이현정, 조동익, 김명호(2018).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현황 분석.
- 이현정, 조동익(2019). 고양시 청년민간부문 일자리 맞춤형안 연구.

### 2. 욕구와 문제점

#### 1) 고용 전반

##### (1) 고용환경

- (최다 업종: 도매 및 소매업) 2019년 고양시 사업체 종사자 수는 총 33만 4,751명으로, 업종별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19.3%로 가장 높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1%, ‘숙박 및 음식점업’ 11.2% 순으로 집계되었다(고양시, 2021a).
- (과반수의 사업체 규모는 5인 미만) 고양시 사업체의 77.8% ‘5인 미만’이고, 5~9인 14.1%, 10~19인 5.0% 등 대부분 20인 미만의 사업체로 집계되었으며, 사업체 종사자의 30.1%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81.7%)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7.1%), 무급 가족 종사자(1.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72.1%)이 가장 많았고, 임시직(18.5%), 일용직(9.4%) 순이었다(고양시, 2021a).

- **(여성 고용률과 안정성이 낮음)** 2021년 하반기 기준 고용률이 59.6%로 수원시(60.5%)보다 낮았고, 여성 고용률은 49.5%로 남성(70.7%)에 비해 낮았으며, 이 역시 수원시(50.3%)보다 낮았다(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률, <https://kosis.kr>, 접속일 2022.07.28.). 2019년 기준 여성의 소득만족도(4.60점)와 고용안정성 만족도(5.66점)는 남성(각 5.11점, 5.9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노인의 고용환경 열악)** 2019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로 직업안정성을 평가했을 경우 고양시 전체는 75.6%인 반면에 노년층은 10%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만족도에서 고양시 전체는 5.85점이지만 노년층은 4.78점으로 상당히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지역자활센터 부족)** 고양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경기도 내에서 최대이지만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뿐이다. 더구나 일산서구 끝에 위치해 특히 덕양구 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물리적인 공간도 협소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자활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거나 분소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고양시에는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 자활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및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문정화, 고아라, 2021).

## (2) 만족도

- **(경제·고용 만족도 낮음)** 고양시민의 경제·고용 만족도는 10점 중 5.1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활환경 만족도 10개 항목 중 하위 두 번째 항목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근로여건 전반적으로 만족)** 경제활동인구의 27.7%가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만족하며, 17.3%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와 비교할 경우 전반적인 근로여건 만족도는 4.7%p 낮았다(고양시, 2021a).
- **(임금·소득 불만족)** 경제활동인구의 32.4%는 일에 비해 임금·소득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30.3%)보다 2.1%p 낮았으며, 고양시 여성의 불만족(36.4%)이 남성(29.4%)보다 높아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고양시, 2021a).

- **(근로시간 만족)** 27.5%는 근로시간에 만족했으나 19.4%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31.7%) 대비 고양시의 근로시간 만족도가 4.2%p 낮았다(고양시, 2021a).
- **(근무환경 만족)** 고양시 경제활동인구의 29.2%는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반면에 18.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는 35.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는 22.5%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 대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표 3-13]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            | 근로여건 전반 | 임금소득  | 근로시간 | 근무환경 |
|------------|---------|-------|------|------|
| 만족         | 27.7    | 20.9  | 27.5 | 29.2 |
| 불만         | 17.3    | 32.4  | 19.4 | 18.9 |
| 격차(만족-불만족) | 10.4    | -11.5 | 8.1  | 10.3 |

<자료>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2)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 **(정책시급성 64.4점, 노력체감도 57.8점)** 고양시민은 고용 분야에서 정책시급성은 64.4점으로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시의 노력체감도는 57.8점으로 낮았다. 고용 분야는 정책시급성 대비 노력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양시, 2021b).
- 고용 관련 문항은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취업, 창업 정보 부족’,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창업자금 부족’,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사업의 도산, 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가족 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다.
- **(원하는 일자리 부족의 어려움이 가장 높음)** 고용 관련 어려움 중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보 부족(26.6점), 가족 돌봄/가사 등의 어려움

(25.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창업자금 부족과 근로조건·환경의 열악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 (일자리 부족 관련 지원 필요도가 높음) 어려움 경험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부족 관련 지원이 39.2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이어서 정보제공 지원(35.9점), (재)취업 준비 비용 지원(33.8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많음)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18.9%로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18.2%),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18.1%)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높은 항목)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취업, 창업 정보 부족’,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가족 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이용률과 이용 의향 분석) 일자리 지원 서비스, 취업, 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 (재)취업 비용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률은 낮으나 이용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정보 습득의 어려움) 사회보장 영역 중 가장 찾기 어려운 정보는 일자리 정보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노인 돌봄 정보, 주거지원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가구 유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가장 찾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일자리 욕구

- (일자리 충분하지 않음) 고양시민의 절반 가까이(49.1%)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0대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역점 분야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고양시민은 일자리 발굴(36.6%), 취업 알선(20.1%), 창업 지원(13.9%), 직업훈련(12.5%)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9세는 창업 등 지원, 20대는 취업 알선, 30대는 기업

지원 및 가사부담 경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자리 발굴사업 관련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양시, 2021a).

-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30.9%), 사회적 경제 육성(30.8%), 4차 산업 육성(26.4%)이 제시되었다(고양시, 2021a).

#### 4) 집단별 특징

##### (1) 비정규직

- 시군 단위의 비정규직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고양시의 비정규직 규모를 고양시 종사자 수 현황과 전국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비율을 통해 추정된 결과 고양시의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0만 9,000명으로 추정되었다(이정철 외, 2020).
- 비정규직의 현황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비교했을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은 민간부문이 더 길었고, 계약직이나 기간제의 비율, 산재 경험은 공공부문이 더 컸다. 개인 비용으로 산재를 해결한 경우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더 많았다(이정철 외, 2020).

[표 3-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교

| 구분 | 1주 근로시간 | 계약직/기간제 | 근로기간    | 산재 경험 | 개인적으로 산재 해결 |
|----|---------|---------|---------|-------|-------------|
| 공공 | 35.66시간 | 42.2%   | 9.74개월  | 30.1% | 61.3%       |
| 민간 | 38.73시간 | 64.1%   | 18.62개월 | 9.5%  | 31.0%       |

<자료> 이정철, 황휘욱(2020).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부당대우 경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3.0%,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0.3%가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부당대우 유형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 측면에서의 차별 경험으로 나타났다(이정철 외, 2020).
- **(처우 개선 방법)**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료들과 대화하며 해소한다’가 가장 많았고,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상담을 받은 경험은 소수(공공 8.6%, 민간 5.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내 일자리 정보 제공'이었으며,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정철 외, 2020).

- **(열악한 환경과 보호 체계 미흡)**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계약과 한정된 예산으로 고용 변경 가능성 등으로 오는 고용 불안, 복리후생의 차별적 처우를 비정규직이 다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외의 폭언과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나 소통창구가 제한된 경우가 많아 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철 외, 2020).

## (2)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고양시 비경제활동 여성(만 19~54세)의 41.3%는 육아·가사에 치중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여성 중 75.9%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0대 이상(30대 88.7%, 40대 95.5%, 50~54세 90.4%)은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경기도 전체보다 고양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높았다.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는 결혼(25.2%), 육아(24.1%), 임신과 출산(23.8%), 작업 여건 불만족(17.8%)이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78.5%가 재취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재취업 욕구)**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56.9%는 가정일과 관계없이 재취업을 원했다. 주로 자녀가 중학생으로 성장 후(20.5%),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성장 후(14.0%)에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희망자의 82.0%가 임금근로를 원하였으며, 18.0%는 자영업을 희망했다(고양시, 2021a).
-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필요)** 고양시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정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34.9%)이었다(고양시, 2021a).

## (3) 청년

- **(고용률 42.9%)** 2021년 하반기 고양시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양시 전체 고용률 2.1%p 증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양시, 2022).

- **(중소기업 취업 희망 높음)** 고양시 청년(15~39세)의 취업 희망 기업으로 중소기업(30.8%)이 대기업(18.6%)보다 높았다. 고양시 소재 기업·기관의 취·창업 의향은 48.7%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희망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직활동의 어려움으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보 부족 등을 지적했다(이현정 외, 2019).
- **(고양시 내 대규모 신산업단지 조성 시 취업 의향)** 고양시 청년은 고양시 내 대규모 신산업단지 조성 시 취·창업 계획이 6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콘텐츠산업, 방송 영상 분야에 취·창업하기를 희망했고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이현정 외, 2019).
- **(4차 산업혁명 대비)**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자체 중점 육성 분야로는 AI, 빅데이터, VR/AR/MR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청년 구직 교육의 방향으로 ‘미래신산업 발전에 대한 미래교육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배출’을 꼽았다(이현정 외, 2019).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취업 연결, 교육지원금 순이었으며, 지자체 일자리 교육과정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강의 내용 및 수준, 강사의 수준이 제시되었다. 고양시 교육훈련 및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기술개발훈련 및 실습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이현정 외, 2019).
- **(고양시 정책의 미흡한 점)** 고양시 일자리 정책의 미흡한 점으로는 단기일자리 치중, 사회서비스 및 공공일자리 정책 치중,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이현정 외, 2019).

#### (4) 장애인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등급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고양시는 총 2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복지 일자리에 118명, 일반형 일자리에 113명, 시간제 일자리에 41명을 지원했다(경기데이터드림.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별 집계현황, <https://url.kr/e7owra>, 접속일 2022.08.03.).

- **(장애인 근로보조수당)** 고양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사업을 시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이들의 임금은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35%밖에 되지 않고, 수입이 월 20만 원 정도인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직업 훈련생에게는 근로보조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정식 고용된 장애인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2020년 기준 약 120명에게 총 9,560만 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지원했다(김아름, 2021.09.11.).

## 제7절 주거

### 1. 분석 자료

[표 3-15] 분석 자료 - 주거

#### 분석 자료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김리영(2020a). 고양형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 김리영(2020b). 주거정책 변화와 고양시 주거정책 방향 연구
- 김리영, 최영돈(2021). 고양시 주거지 분화 특성 연구.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문정화, 유선치, 고아라(2020). 고양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1-2024) 수립 연구.
- 정광진, 조해송(2021).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저층주거지 주거안정화 방안 모색 연구.

### 2. 욕구와 문제점

#### 1) 주거여건과 인식

##### (1) 공공시설과 접근성

- (지역 간 불균형)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 개발지역 간 생활SOC 등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고양시민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이 평균 4.9점(10점 만점)으로 보통(5점)보다 낮았다.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일산서구(4.51점)와 덕양남부(4.88점)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필요한 공공시설)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순위형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 시설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원, 녹지, 산책로(34%)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일산동구 거주자(26.6%)는 공영주차시설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0a).
- (계층별 주거지 분화 특성이 나타남)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공공시설 같은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였다(김리영 외, 2021).

- **(두 집단의 주거지집중지역 차이)** 청년 1인가구의 주거지 집중도(0.326)는 노인 1인가구(0.140)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노인 1인가구는 청년보다 더 분산되어 거주 중임을 의미한다. 청년 1인가구는 인구밀도, 주택 가격, 비아파트 비율, 사업체나 종사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주로 거주했다. 반면에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이와 반대의 성격을 띤 지역에 집중 거주했는데,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접근성이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김리영 외, 2021).
-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 1인가구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주거 집중도가 높은 반면에 정비사업 지역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비사업이 취약계층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집중되어 거주하는 지역은 지하철역,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접근성이 낮았다(김리영 외, 2021).

## (2) 만족도

- **(주거환경 만족 > 불만족)** 고양시민은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주거지역 내 주차장(공간, 시설, 접근성 등)’ 등 주요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보다 높았다(고양시, 2021a).
- **(주택시설, 면적, 구조에 불만족인 비율이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고양시민의 42.2%는 주거지의 시설, 면적, 구조 등 주택 환경에 만족하는 반면에 14.6%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0세 이상은 만족이 46.2%로 타 연령대 대비 높지만, 30대의 불만족은 18.1%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주거지 주차공간 만족도의 지역별 편차: 일산동구 거주자 만족도 높음)** 고양시민의 24.8%는 주거지 주차공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전체 대비 고양시의 만족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권역별로 살펴보면 일산서구의 불만족(22.8%)이 다른 지역(덕양구 25.5%, 일산동구 25.9%)에 비해 낮았다(고양시, 2021a).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만족도 낮음)** 행정동별 주거 주변의 환경 만족도에서 차이가 컸는데, 일산동구 고봉동과 덕양남부 능곡동, 대덕동은 5점 미만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도심과 도농복합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고양시는 단독주택지 안심 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정화, 순찰, 택배 수취 등에 힘쓰고 있다(문정화, 유선치, 고아라, 2020).

## 2)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 (정책시급성 64.4점, 노력체감도 57.8점) 고양시민은 고용 분야에서 정책시급성은 64.4점으로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시의 노력체감도는 57.8점으로 낮았다. 고용 분야는 정책시급성 대비 노력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양시, 2021b).
- 지역사회보장육구 조사에서는 화장실, 주방시설, 위생상태, 도배·장판, 층간방음, 냉·난방, 전기·가스시설, 상하수도, 지붕노후, 벽·담 등의 노후, 주택 내 장애물로 이동 등에 관한 어려움 경험, 지원 필요성,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확인한다.
  - (열악한 층간방음의 어려움이 가장 높음) 주거 관련 어려움 중 열악한 층간방음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이 29.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배·장판 열악(24.0점), 화장실 열악(2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층간방음 지원 필요가 높음) 어려움 경험과 마찬가지로 층간방음 지원(36.6점)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이어서 도배·장판 열악(31.0점), 화장실 열악, 위생 상태 열악(각 28.4점)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다수가 주택개조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 주거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인 주택개조서비스의 이용 경험률은 22.2%로 매우 낮았다. 향후 이용 의향 역시 25.7%로 낮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거나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 3) 주택 현황과 공공주택

### (1) 주거비와 주거안정성

- (주택 소유자 비중이 임차인 비중보다 높음) 2020년 기준, 고양시민의 주택 소유 현황

중 자가 61.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전세(23.5%),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13.4%)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주거가 열악함)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비해 자가와 전세의 비중이 낮고, 임차(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연세) 비중이 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주거비는 평균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평균은 31.9만 원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33.3만 원으로,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고양시, 2021b).

[표 3-16]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에 따른 주택점유 형태

(단위:%)

| 가구 유형       | 자가   | 전세   |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사글세/연세 | 무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12.8 | 12.6 | 57            | 11.1      | 1.4    | 5.1 |
| 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64.2 | 24.1 | 11            | 0.4       | 0      | 0.2 |

<자료>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연령대별 주택 점유 비교) 고양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전세와 월세 등 임차 형태의 주거 가구 비중이 높다. 2005년 대비 2015년에 자가와 전세는 모두 감소했지만 월세 가구는 더 늘었다. 한편 고양시의 무주택 비율의 경우 30세 미만의 무주택 비율이 85.75%로 가장 높으며 40대 이상부터 50% 이하로 낮아졌다가 80세 이상 고령일 때 소폭 증가한다. 40~50대의 경우 모두 월세 가구가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중장년층의 주거안정성이 상당히 낮아졌음을 의미한다(정광진 외, 2021).

## (2) 공공임대주택

- (고양시 개입 필요) 고양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소유인데,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고양시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고양시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보완하고 고양시민의 주거 불안을 감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지자체로서 고양시도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김리영,

2020b).

- **(공공임대주택 10.4%)**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은 10.4%로 경기도 평균(10.7%)과 유사하지만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8%로 경기도 평균(8.5%)보다 낮다. 고양시 세대당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5.1%로, 경기도 평균(4.5%)에 비해 다소 높다(김리영, 2020a).
- **(추후 중소형 공급 부족 예상)** 고양시의 공공임대주택의 95%는 60㎡ 이하이며, 나머지 5%는 60~85㎡로 확인되었다. 60~85㎡는 행복주택(448채)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338채)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획득되는 형태라 추후에는 매입임대주택 95채만 남는다. 40~60㎡ 역시 10년 후 분양전환되어 15%가 향후 재고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미래에는 40㎡ 이하의 초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라 일반적인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김리영, 2020a).

#### 4) 주거정비

##### (1) 주거정비 관련 사업

- **(신도시 개발 시기 공급물량이 노후화됨)** 일산 제1기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확대된 도시인 고양시는 1990년대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많이 공급되었다. 10년여 간격을 두고 2000년대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2010년부터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점차 구도심을 관리해 나아갈 필요성이 제기된다(정광진 외, 2021).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고양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주거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이 사업이 주거정비에만 초점을 두는 사업이 아닌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고양시의 실질적인 주거정비를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정광진 외, 2021).
- **(주거정비 집중도 낮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 분석 결과, 주민 공동체 사업에 사업유형 수나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34.33%, 31,293백만 원)되었다. 이어서 생활인프라개선 사업(26.87%, 16,46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거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집중도(사업유형 10.45%, 사업비 2,530백만 원)가 낮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사업 지역이 노후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거환경 정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정광진 외, 2021).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필요)** 중앙정부에서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정비 결합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정비 시도를 보이고 있다(김리영, 2021).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비활성화)**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총 8건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중 4건이 취소되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건이 추진되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정광진 외, 2021).

## (2) 노후주택

- **(노후주택 50% 이상 주거정비 필요)** 고양시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고, 연립·다세대는 30년 이상이 가장 많다. 또한 인구 감소, 산업이탈, 노후주택 증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이 40% 이상이다(정광진 외, 2021).
- **(연립·다세대주택 기반 시설 열악함)** 고양시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노후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양동, 주교동, 성사동, 행주동 등에 노후 연립·다세대주택이 집중되어 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주거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정광진 외, 2021).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30년 이상 주택 비율 높음)** 고양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6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2지역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중 행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원당, 삼송, 일산, 능곡, 화전)에서 30년 이상 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공공의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노후저층주거지 소외)**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아파트 외에 개발사업에서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가 소외된 문제가 있다. 노후저층주거지는 노후 정도가 다른 경우보다 더 심하고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역시 정비가 필요하여 전반적인 관리가 요구된다(정광진 외, 2021).

## 제8절 문화여가

### 1. 분석 자료

[표 3-17] 분석 자료 - 문화여가

#### 분석 자료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권선영, 황설화(2019).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운영 사례분석.
- 권선영, 황설화(2020b).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백주현 외(2021). 고양시 30년, 특례시 30년 - 도시정책
-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윤신희, 이세훈, 김지훈(2022). 데이터로 본 고양 변천
- 전성훈, 오은지(2020).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 조사.

### 2. 욕구와 문제점

#### 1) 제도적 인프라

- (문화여가 예산 2.23%) 2020년 기준, 일반회계 중 문화여가 관련 고양시 예산이 2.02%로 용인시(2.07%)나 수원시(2.21%)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오민수 외, 2021).
-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고양시는 2.7개소로 유사 인구 지역인 수원시(3.6개소), 용인시(4.2개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 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경우 2020년에 5만 8,7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만 3,411명, 2019년 6만 7,337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인구 지역과 비교하면, 수원시(2020년 기준 4만 3,929명) 보다는 1개소당 인구수가 많았다(오민수 외, 2021).

- 관련 조례(문화원 지원 조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조례, 생활문화 진흥 조례, 문화복지 증진 조례 등)가 최근 제정, 시행 중이다. 또한 꾸준히 고양시 내에 국가시 지정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등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문화재와 지역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전통문화 육성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권선영 외, 2020b).
- **(생활체육 활성을 위한 기존 시설 활용 필요)** 생활체육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이를 촉진하는 데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증대에 한계가 있는 공공체육시설 외에 지역에 균질적으로 위치한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권선영 외, 2019). 고양시는 2019년 고양 교육장 및 관내 21개 학교장과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 고양교육지원청, 8개 학교, 고양시체육회와 ‘학교시설 공유제’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에 이를 시행했다(고양인터넷신문, 2022.05.11.).

## 2) 만족도와 욕구

### (1) 전반적·세부적 만족도

- **(만족도 종합)** 문화·여가에 관련하여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의 접근성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일·여가 균형 정도와 전반적 문화·여가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 지역별로 비교했을 경우, 중장년층과 덕양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전반적 만족도 5.65점)** 고양시민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평균 5.65점이었다.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중장년층(5.50점)이 노년층(5.77점)과 청년층(5.81점)보다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도서관 접근성 6.37점)** 거주지의 도서관 시설 이용 용이성으로 평가한 접근성 만족도는 고양시 평균이 6.37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7.10점)이 중장년층(6.38점)이나 청년층(6.24점)보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 중 덕양북부(5.54점)가 다른 권역(덕양남부 6.36점, 일산서구 6.55점, 일산동구 6.76점) 대비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6.21점)** 거주지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고양시 평균이

6.21점이었다. 노년층(8.15점)이 중장년층(6.09점)과 청년층(5.85점)보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지역 중 덕양북부(5.45점)가 다른 권역(6점대) 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문화예술공간 접근성 5.82점)** 고양시민의 문화예술공간 접근성 관련 만족도는 평균 5.82점으로 다른 시설(도서관, 생활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중장년층(5.61점)이 청년층(5.84점)과 노년층(6.85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덕양북부(5.05점)가 다른 지역(덕양남부 5.82점, 일산서구 6.04점, 일산동구 6.10점)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일과 여가 균형 정도 5.59점)** 자기 삶에서 일·여가의 균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했을 경우, 고양시 평균은 5.58점으로 보통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5.47점)이 다른 연령대(청년층 5.60점, 노년층 5.94점)와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역 중 덕양구(덕양남부 5.48점, 덕양북부 5.50점)가 일산서구(5.56점)나 일산동구(5.77점)보다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도시브랜드 자부심 5.79점)** 국제회의 도시, 문화역사 도시, 자연친화 도시 같은 도시브랜드 자부심이 고양시 평균 5.79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6.54점)이 중장년층(5.66점)이나 청년층(5.6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참여 정도 연평균 21.5회)**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에 참여 횟수는 연평균 21.5회로 조사되었고, 그중 스포츠 참여가 11.5회로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중장년층(19.8회)이 청년층(20.7회)과 노년층(28.7회)에 비해 참여도가 낮았다. 지역별로는 덕양구(덕양북부 15.6회, 덕양남부 18.6회)가 일산서구(22.6회)와 일산동구(26.8회)에 비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2)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 **(정책시급성 52.2점, 노력체감도 53.7점)** 문화·여가 관련 정책의 시급성은 52.2점으로 사회보장의 여러 분야 중 가장 낮았으며, 시군구의 노력 정도 역시 5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여가활동 축소 8%)** 고양시민 중 경제적 어려움 경험 중 문화·여가



를 즐기지 못한 경험은 8%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항목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문화·여가와 체육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활동을 위한 외부 지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28.5점)이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25.6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장애아동가구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문화·여가 관련 지원 필요성은 36.0점, 체육 활동 관련 지원 필요성은 35.6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역시 장애아동가구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고양시, 2021b).
  -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43.9%로 체육 활동 관련 서비스(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가구가 문화·여가와 체육활동 모두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고양시, 2021b).
-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주로 여가시설 부족(26.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적 부담(26.3%), 시간 부족(13.0%), 교통혼잡·교통수단 불편(12.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여가시설 부족으로 불만족인 비율이 약 4배 정도 증가했다(고양시, 2021a).

### 3) 관광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관광 대응) 코로나19 이후 뉴컨트리클럽, 서삼릉, 서오릉, 행주산성, 평화누리길 등 야외 관광지의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관광객은 안전한 공간으로 자주,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향을 보여 고양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욕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백주현 외, 2021).
- (트레블테크(travel-tech) 전망 높음) 고양시민은 관광지를 선택할 때 대부분 인터넷과 모바일앱(83.8%)을 활용한다(고양시, 2021a). 개인의 체험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여행을 선호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넘어서 VR, AR,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여행지 체험을 개발해야 한다(백주현 외, 2021).
- (국가시 지정 문화재 계속 증가) 2019년 기준, 고양시 내 국가 지정 문화재는 1990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시 지정 문화재는 1990년 총 4건이었으나 2019년에 총 46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신희 외, 2022).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 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역사문화자원 풍부)** 고양시는 도심의 성격을 지니지만, 예로부터 내려온 전설과 설화, 전통민속제,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발굴만 이루어질 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백주현 외, 2021).

#### 4) 문화자원

- **(지역예술인 지원 미미)** 고양시에는 「문화상 조례」가 없어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역 내 문화예술인에게 자긍심과 원동력을 심어줄 기회가 없다.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등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예술인의 지역 활동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주고 있다(권선영 외, 2020b).
- **(지역축제 참여도와 만족도 높음)** 고양시민은 고양시 지역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32.3%), 지역축제의 만족도는 5.08점으로 조사항목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민은 지역축제 방문의 경우 서울시(26.4%)보다는 고양시(46.7%)에서 관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권선영 외, 2020b).
- **(문화자원 인식 높음)** 고양시민은 고양시의 문화 하면 ‘꽃박람회’, ‘호수공원’, ‘행주산성’ 등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양시의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거나 문화접근성이 낮음 등 부정적인 응답 역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권선영 외, 2020b).

[그림 3-1] 고양시의 문화 이미지



(n=700)

1위 : 꽃, 꽃박람회 (31.0%)

2위 : 호수공원 (8.9%)

3위 : 행주산성 (6.4%)

4위 : 없다 (4.3%)

5위 : 킨텍스 (2.6%)

6위 : 아람누리 (2.1%)

7위 : 다양함 (2.0%)

8위 : 라페스타 (1.7%)

그 외 : 호수예술축제, 서오릉, 방승국, 행주문화제 등

| 긍정적 이미지  |
|--|
| 다양한 문화행사<br>다양한 축제<br>한류<br>가외지법씨<br>왕릉<br>북한산 등 |

| 부정적 이미지           |
|-------------------|
| 없다<br>문화접근성이 낮다 등 |

<자료> 권선영, 황설화(2020b).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관광특구 선정) 고양시는 20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까지 약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편의를 개선해 주요 관광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고양시는 지역 내 문화자원이 다양하므로 이를 활용한 관광을 계획해야 하며, 문화적 관점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고양시 내 문화예술 관련자들은 이러한 산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선영 외, 2020b).

## 5) 다양성

### (1) 외국인 현황

- (고양시 거주 외국인) 2020년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 4,651명이며 그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만 8,225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2,858명,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3,568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 외국인근로자 4,144명, 결혼이민

자 497명, 유학생 6,125명,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2,937명으로 그 외 기타 외국인은 4,522명으로 조사되었다(테이터안심구역, 고양시, <http://datakorea.datastore.or.kr/>, 접속일 2022.07.28.).

- **(다문화가구 증가 추세)** 2020년 기준 고양시의 다문화가구 구성원은 총 1만 7,263명이며, 그중 한국인 배우자 2,818명,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5,581명, 자녀 3,772명, 기타 동거인 5,092명이다. 2018년 1만 4,864명, 2019년 1만 6,015명으로 매년 다문화가구 구성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테이터안심구역, 고양시, <http://datakorea.datastore.or.kr/>, 접속일 2022.07.28.).

## (2) 외국인 지원과 포용

- **(지원서비스 이용의 한계)** 고양시 외국인주민의 지원서비스를 인식 수준에서 외국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외국국적동포나 중도입국자녀는 과반이 법무부 지원서비스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수혜 정도와 직결돼 외국인주민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이용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시간의 제약, 정보 접근의 제약 등으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전성훈 외, 2020).
- **(지역사회 포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인식이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을 포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강화와 공공기관 외국어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전성훈 외, 2020).
- **(다양성 수용 6.49점)** 자신과 다른 인종,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고양시는 평균 6.49점으로 나타나 다양성에 다소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 이웃 가능 61점)** 다문화 인식 조사 중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과 이웃이 가능하다는 고양시의 응답은 61점으로 경기도 평균 63.4점보다 낮았다(고양시, 2021a).

## 제9절 환경

### 1. 분석자료

[표 3-18] 분석 자료 - 환경

#### 분석 자료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문정화, 유선치, 고아라(2020). 고양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1-2024) 수립 연구.
-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윤신희, 이세훈, 김지훈(2022). 데이터로 본 고양 변천.
- 임지열, 김준우, 손덕주, 최사라(2019). 고양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방안 연구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
- 임지열, 소가람(2020). 고양시 자원순환 시설 개선 방안 -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대상으로.
- 임지열, 소가람(2021a). 고양시 그린뉴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 임지열, 소가람(2021b).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기초연구

### 2. 욕구와 문제점

#### 1) 환경 전반

- (환경 관련 예산 7.03%) 고양시의 경우 총예산 대비 환경 관련 예산은 2020년 7.19%, 2021년 7.62%, 2022년 7.03%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예산) 고양시의 1인당 환경보호 예산은 2018년 367천 원, 2019년 430천 원, 2020년에는 150천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유사 인구 지역인 수원시와 용인시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기준 고양시의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예산은 용인시(174천 원), 수원시(166천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도시림 면적 비교) 고양시의 총 도시림 면적률은 9㎡로 수원시(30㎡)와 용인시(13㎡)

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1인당 도시림 면적은 22㎡로, 수원시는 30㎡, 용인시는 44㎡로 확인되어 도시 간 차이가 컸다. 고양시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의 경우, 2017년 2.58%, 2018년 2.22%, 2019년 2.23%로 2018년 대비 2019년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미미하고 2017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은 고양시가 5.61%인 반면에 용인시는 6.19%, 수원시는 7.86%로 고양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오민수 외, 2021).

[표 3-19] 도시림 면적과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비교(2019년)

(단위: m<sup>2</sup>, %)

| 지역  | 총 도시림 면적 | 1인당 도시림 면적 |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 |
|-----|----------|------------|-------------|-----------------|
| 경기도 | 1,683    | 120        | 2.49        | 8.37            |
| 고양시 | 9        | 22         | 2.23        | 5.61            |
| 수원시 | 30       | 30         | 7.76        | 7.86            |
| 용인시 | 13       | 44         | 1.77        | 6.19            |

<자료>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81.9%) 고양시민의 81.9%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의식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산동구(85.8%), 일산서구(85.0%), 덕양북부(81.5%), 덕양남부(74.4%) 순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수질 환경 전반) 1990년대부터 꾸준히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수질 관련 문제점은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보급률은 2019년 92.7%로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1996년부터 90%를 넘어서 2016년 이후 99.7%대를 유지 중이다.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인 98.5%보다 높지만, 수원시 100%, 용인시 99.1%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윤신희 외, 2022).

## 2) 만족도

- (만족도 종합) 환경과 관련한 항목을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녹지환경 및 도시공원

접근성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의 만족도는 낮았다. 한편 노년층의 만족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 만족도 5.84점)** 매연, 먼지 등 대기 관련 고양시의 만족도는 5.84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와 지역별로 차이가 유의했는데, 노년층(7.73점)이 중장년층(5.65점)과 청년층(5.29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일산서구(5.38점)와 일산동구(5.78점)는 덕양남부(6.06점), 덕양북부(6.34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식수 및 생활용수 만족도 6.56점)** 고양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만족도는 6.56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년층(8.10점)이 중장년층(6.32점)과 청년층(6.24점)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지역 중 덕양북부(6.85점)가 가장 높고, 덕양남부(6.75점), 일산동구(6.40점), 일산서구(6.36점) 순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수질과 하수도 만족도 6.35점)** 호수, 하천 등 수질과 하수도의 만족도는 6.35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이 7.95점으로 다른 연령대(중장년층 6.13점, 청년층 5.95점)와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났다. 덕양북부(6.70점)가 다른 지역(덕양남부 6.33점, 일산서구 6.25점, 일산동구 6.22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소음·진동 만족도 5.86점)** 고양시민의 소음·진동 만족도는 5.86점으로, 환경 관련 만족도 항목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노년층(7.69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5.60점), 청년층(5.42점)의 만족도와 차이가 컸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녹지환경 만족도 6.96점)** 공원, 가로수 등 녹지환경 만족도는 고양시 평균 6.96점으로 환경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노년층(8.32점)이 중장년층(6.73점)과 청년층(6.70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 중 덕양남부(6.71점)가 다른 지역(7점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도시공원 접근성 만족도 6.89점)** 고양시민의 도시공원 접근성 만족도는 6.89점으로 환경 만족도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덕양구(덕양북부 6.72점, 덕양남부 6.65점)에 비해 일산구(일산서구 7.06점, 일산동구 7.05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생활폐기물 관리 만족도 6.49점)** 고양시민의 생활폐기물 관리 만족도는 6.49점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노년층(8.18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지자체 환경보호 노력 만족도 6.27점)** 고양시의 환경보호 노력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했을 때 고양시민의 만족도는 6.27점이었다. 노년층(7.51점), 중장년층(6.16점), 청년층(5.90점) 순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3) 하수와 쓰레기 처리

- **(고양시 쓰레기 발생량)** 고양시는 현재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하루에 15,834kg을,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하루 24,164kg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와 인구밀집에 기인한다(임지열 외, 2020).
- **(음식쓰레기 하루 처리량 초과)** 음식쓰레기의 처리량이 하루 최대 260톤인데 비해 1일 발생량이 275톤으로 이미 고양시 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연으로 배출되어 토지 오염을 유발하거나 소각되면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임지열 외, 2020).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자원순환시설로 쓰레기류를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 시설의 처리량은 하루 총 260톤으로, 음식물류 250톤, 가축분뇨 10톤이다. 그러나 고양시의 하루 처리량이 점차 초과하는 반면에 고양시 내 에너지 시설은 1곳뿐이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임지열 외, 2020).
- **(하수처리시설의 한계)** 현재 고양시 내 4곳(일산, 원능, 벽제, 삼송)과 난지처리장에 위탁하여 고양시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일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한 3곳은 2023~2030년에 처리량의 90~99%에 도달하거나 처리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재활용 등 하수처리시설의 부산물을 자원화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 하수처리



장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친화시설로 변화시켜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임지열 외, 2020).

[표 3-20] 고양시 2030년 하수처리장별 용량과 가동률 추정

| 하수처리장<br>(가용용량 m <sup>3</sup> /일) | 원단위<br>(m <sup>3</sup> /인/일) | 2030년 하수 발생량<br>범위(m <sup>3</sup> /일) | 2030년 가동률<br>범위(%) |
|-----------------------------------|------------------------------|---------------------------------------|--------------------|
| 일산(270,000)                       | 0.40                         | 202,897 ~ 212,030                     | 75.0 ~ 78.5        |
| 원능(80,000)                        | 0.21                         | 73,407 ~ 79,518                       | 91.8 ~ 99.4        |
| 벽제(380,000)                       | 0.27                         | 34,863 ~ 58,633                       | 91.7 ~ 154         |
| 삼송(320,000)                       | 0.27                         | 21,101 ~ 31,633                       | 30.6 ~ 90.9        |

<자료> 임지열, 소가람(2020), 고양시 자원순환 시설 개선 방안 -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대상으로

- (재활용쓰레기 배출 문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단투기가 가장 큰 문제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생활민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간이 재활용 선별장이나 거점식 재활용 수거센터 마련 등 개선 정책이 시급하다(임지열 외, 2019).

#### 4) 친환경

- (고양시 그린뉴딜 기본계획)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따르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고양시 그린뉴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도시기반 구축, 도시 문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최적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녹색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고양시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임지열 외, 2021a).
- (고양시 친환경 관련 조례) 고양시는 2016년에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를, 2020년에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책계획에 따라 고양시 환경 개선 인프라와 정책 추진체계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고양시 녹색건축물 정책) 2016년부터 고양시 내에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건축물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의 98개 건물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임지열 외, 2021b).

- **(고양시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우수 등급(그린 2등급)과 일반 등급(그린 4등급)이 전체 인증의 85%를 차지하는데, 전체 인증의 42%가 학교시설이고 공동주택이 38%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열 외, 2021b).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부각)** 최근 친환경, 무에너지 측면에서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에서는 자전거를 도시 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문정화, 유선치, 고아라, 2020).
-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필요)** 고양시민의 평균 통근·통학 시간은 왕복 86.4분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또한 고양시민의 31.4%는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며, 이때의 소요 시간은 편도 기준 72.1분이었다. 고양시민의 주된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승용차(39.8%)가 가장 많았으며, 버스(25.2%), 전철·지하철(19.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민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버스 이용 불만족 비율이 만족 비율보다 높았다(시내·마을버스 불만족 28.4%, 시외·고속버스 불만족 23.3%). 이들의 주된 불만족 이유는 노선 부족과 배차 간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양시, 2021a). 대중교통 환경의 개선은 고양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승용차 사용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환경교육 필요)** 고양시민, 전문가, 공무원의 환경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 친환경 교통 환경 확대, 도로의 비산먼지 저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쓰레기 관리와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고 공원 조성과 자연 생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환경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문정화, 유선치, 고아라, 2020).

## 제10절 삶의 질 및 인프라

### 1. 분석자료

[표 3-21] 분석 자료 - 삶의 질 및 인프라

#### 분석 자료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2. 욕구와 문제점

#### 1) 삶의 질 전반

- (삶의 질 61.6점) 2021년 고양시민의 삶의 질은 61.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59.8점이나 용인시(60.9점), 수원시(57.4점)보다도 높다(오민수 외, 2021).
- (삶에 대한 만족 5.6점) 고양시민이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했을 때 10점 중 5.6점으로 조사되었다. 구별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진 않았으나 덕양구 5.5점, 일산동구 5.7점, 일산서구 5.8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생활환경 만족도 67.1점) 2021년 경기도 내 시군구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양시는 67.1점으로 경기도 평균 63.8점보다 상당히 높았고, 유사 인구 지역인 용인시(63.7점), 수원시(63.3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오민수 외, 2021).
- (생활 관련 만족도 5.8점) 고양시에서의 생활 관련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 고양시민의 만족도는 5.8점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비교하면, 일산동구가 6.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일산서구 5.8점, 덕양구 5.6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 교통 불편) 고양시민이 고양시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불편(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편의시설 부족(19.5%), 주거시설 열악(14.1%), 주차시설 부족(10.6%)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통 불편을 제외하면,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편의시설 부족에, 일산동구는 주거시설 열악에 불만이 많았다. 2019년(52.4%) 대비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은 크게 감소했지만, 2021년 기준 경기도 평균(28.1%)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고양시, 2021a).

- **(고양시에 살기 좋음 65.7%)** 다른 시(군) 대비 거주지역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고양시에 살기 좋다는 응답은 65.7%이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6.9점으로 높았다. 행정동별 거주지역 만족도의 상위 5개 동에 일산서구의 3개 동이 속한 반면 하위 5개 동 중 덕양구의 4개 동이 속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행정동별로 거주지역 만족도를 비교할 때, 상위 5개동은 덕양구 화정2동(살기 좋다 84.4%, 평균 75.2점), 일산서구 일산2동(살기 좋다 88.7%, 평균 75점), 일산서구 일산3동(살기 좋다 86.9%, 평균 74.9점), 일산동구 식사동(살기 좋다 91.2%, 평균 74.8점), 일산서구 일산1동(살기 좋다 87.4%, 평균 74.6점)이었다(고양시, 2021b).
  - 반면, 하위 5개동은 덕양구 관산동(살기 좋다 23.3%, 평균 51.8점), 일산서구 송산동(살기 좋다 8%, 평균 52.2점), 덕양구 효자동(살기 좋다 14.4%, 평균 53.6점), 덕양구 고양동(살기 좋다 27.8%, 평균 54.8점), 덕양구 행주동(살기 좋다 30%, 평균 55.2점)이었다(고양시, 2021b).
- **(긍정적 정서 체감 0.632점)** 긍정적 정서를 느낀 정도를 0~1점으로 환산했을 때 고양시의 평균은 0.6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UN 2020 행복보고서에 따른 서울(0.682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청년층(0.683점), 노년층(0.654점), 중장년층(0.590점) 순으로 중장년층의 긍정적 정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산서구(0.694점), 덕양북부(0.642점), 덕양남부(0.608점), 일산동구(0.585점) 순으로 일산동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부정적 정서 체감 0.247점)** 고양시민이 부정적 정서를 느낀 정도를 0~1점을 환산하면 평균 0.247점으로 조사되었다. UN 2020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서울(0.250점)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인근의 인천(0.225점)보다는 높은 것이다. 청년층(0.286점)의 부정적 정서 체감 정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중장년층(0.250점), 노년층(0.150점) 순으로 나타

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행복도 5.68점)**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이라면, 현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측정(0~10점 척도)한 결과, 고양시민의 행복도는 5.68점이었다.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덕양남부와 일산서구(5.57점), 일산동구(5.80점), 덕양북부(5.8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UN 2020 행복보고서와 비교하면 2019년 한국 5.87점, 서울 5.95점으로 고양시가 다소 낮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행복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질병 유무였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질병이 없을 때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안전, 문화·여가, 건강·복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주거, 경제·고용, 가족·사회관계, 거버넌스, 교육·보육, 교통)의 만족도가 고양시민의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2) 경제 인프라

### (1)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 **(정책 시급성 57.9점, 노력 체감도 59.6점)** 기초생활유지에 있어서 정책 시급성은 57.9점,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59.6점으로 정책 시급성은 낮지만 노력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는 기초생활유지와 관련해 생계비 부족, 주거비 부족, 의료비 부족, 교육비 부족, 냉난방비 부족,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생계비 부족의 어려움 경험 높음)**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는 생계비 부족(25.3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료비 부족 21.6점, 주거비 부족 21.1점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생계비 부족 지원 필요성 높음)** 기초생활유지 관련 지원의 필요성은 생계비 부족이 3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비 부족(29.7점), 주거비 부족(28.6점)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냉난방비 지원 경험이 높음)** 기초생활유지 관련한 지원 중 냉난방비 지원 경험률이

16.8%로 가장 높았다. 가계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15.0%), 의료비 지원(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의료비 지원 이용 의향 높음)** 기초생활유지 관련한 지원 중 의료비 지원이 38.3%로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생계비 지원(27.6%), 주거비 지원(26.8%)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2)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월세 미납, 공과금 미납, 공교육비, 식사 거름, 사회보험료 미납, 병원 이용 불가, 문화, 통신비 연체, 교통, 대출금 미납, 주거로 총 11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고양시, 2021b).
  - 고양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월세를 연체한 적이 가장 많았고(8.3%), 이어서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하거나(8.0%), 대출금 및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3.5%)으로 조사되었다(고양시, 2021b).
- **(생계유지 어려움 47.3%)** 고양시 만 19세 이상의 47.3%는 지난 1년 동안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50대의 경우 과반수(40대 50.2%, 50대 5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행정구별로 비교하자면, 덕양구 49.9%, 일산동구 47.2%, 일산서구 43.6%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52점)** 고양시민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100점 중 52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여유롭다는 응답(24.4%)이 어렵다는 응답(15.3%)보다 많았다(고양시, 2021b).

## 3) 복지 인프라

-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높은 편)**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유사 인구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36%로, 수원시(33%), 용인시(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 32%, 2019년에 33%, 2020년에 36%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오민수 외, 2021).

[표 3-22] 시도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 연도  | 2018(%) | 2019(%) | 2020(%) |
|-----|---------|---------|---------|
| 경기도 | 14      | 17      | 15      |
| 수원시 | 28      | 33      | 33      |
| 용인시 | 25      | 30      | 28      |
| 고양시 | 32      | 33      | 36      |

〈자료〉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사회적 돌봄 만족도 5.66점) 사회에서 제공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의 돌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양시 평균은 10점 중 5.66점으로 나타났다. 여성(5.54점)이 남성(5.78점)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노년층(6.20점)의 만족도가 중장년층(5.67점), 청년층(5.42점)보다 높았다. 지역 중 일산서구(5.30점)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일산동구 5.83점, 덕양북부 5.81점, 덕양남부 5.76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복지시설 충분성 5.66점) 고양시 내 복지시설이 충분한지 10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 고양시 평균은 5.66점이었다. 노년층(6.32점)이 청년층(5.64점)과 중장년층(5.46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일산동구(5.80점), 일산서구(5.76점), 덕양남부(5.60점), 덕양북부(5.38점) 순으로 나타나 덕양구의 복지시설 충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복지서비스 만족도 5.70점) 지역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고양시의 평균은 5.70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6.46점)의 만족도가 청년층(5.60점)과 중장년층(5.54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문정화, 유선치, 2020).

#### 4) 정보 인프라

- (일자리 정보가 가장 찾기 어려움) 고양시민이 찾기 어려운 정보를 1~3순위로 조사해 응답 결과를 합해서 살펴보면, 일자리 정보(33.8%)를 가장 찾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거지원 정보(30.5%), 문화·여가 정보(23.5%), 안전 정보(22.7%), 신체 건강 정보(23%), 노인 돌봄 정보(22.6%)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결과만 비교했을 때, 일자리 정보(13.6%), 노인 돌봄 정보(11.4%), 주거지원 정보(10.0%), 아동 돌봄

정보(8.2%), 교육정보(8.0%), 안전 정보(7.9%) 순으로 나타났다(고양시, 2021b).

-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낮음)** 필요할 때 언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고양시의 평균은 7.9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별 차이가 컸는데, 청년층(8.94점)과 중장년층(8.42점)이 8점 이상인 것에 반해 노년층은 4.31점으로 상당히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디지털 정보 활용이 어려운 이유)** 고양시민에게 디지털 정보 활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한 정보의 부재(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기 부재(14.4%), 이해 능력 부족(14.2%), 기기 사용법을 모름(12.2%), 활용 능력의 부족(10.3%), 공용인터넷 등 공동 편의시설 부재(10.1%),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부재(8.6%) 순으로 확인되었다(고양시, 2021b).
-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과제)** 고양시민의 사회보장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 중 무료 인터넷 사용 가능한 공동 편의시설 마련(17.1%)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보 소외계층에 맞춘 정보 제공(15.6%), 디지털 활용 무료교육 마련(14.5%), 정보 소외계층에 인터넷 환경 마련(14.2%)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양시, 2021b).

## 5) 관계 인프라

- **(사회적 지지 높음)** 고양시민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족, 친구,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85.5%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83.6%)보다 여성(87.2%)의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청년층(89.8%)과 노년층(89.5%)에 비해 중장년층(81.1%)의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지역사회 소속감 6.07점)** 현재 사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은 10점 중 6.07점으로 보통(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년층(6.76점)은 청년층(5.94점)과 중장년층(5.94점)에 비교하면 지역사회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신뢰도 종합)** 고양시민은 가족 신뢰도는 높지만, 이웃과 대중의 신뢰도는 보통(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이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일산서구는 이웃과 대중 신뢰도가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족 신뢰도 8.2점)** 고양시민의 가족 신뢰도는 10점 중 8.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8.69점)의 가족 신뢰도가 청년층(8.26점), 중장년층(8.0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 중 덕양북부(8.38점)가 일산서구(8.25점), 일산동구(8.15점), 덕양남부(8.07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이웃 신뢰도 4.85점)** 고양시민의 이웃 신뢰도는 10점 중 4.85점으로 보통(5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5.39점)이 중장년층(5.00점), 청년층(4.42점)보다 이웃 신뢰도가 높았으며, 덕양북부(5.16점)가 일산동구(5.01점), 덕양남부(4.90점), 일산서구(4.45점)에 비해 이웃 신뢰도가 높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대중 신뢰도 4.01점)** 고양시민의 대중 신뢰도는 10점 중 4.01점으로 가족이나 이웃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여성의 대중 신뢰도가 3.83점으로 남성(4.19점)보다 낮았다. 노년층(4.30점), 중장년층(4.05점), 청년층(3.81점)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대중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덕양북부(4.34점), 일산동구(4.21점), 덕양남부(3.98점), 일산서구(3.60점) 순으로 일산서구의 대중 신뢰도가 이웃 신뢰도와 함께 지역 중 가장 낮았다(문정화, 유선치, 2020).
- **(자원봉사 참여 10.9%)** 고양시민의 10.9%는 지난 1년 중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17.4%) 대비 참여율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15~1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중 4~50대의 참여율이 8%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후원금 기부 19.6%)** 고양시민의 19.6%는 지난 1년 중 후원금을 기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2019년(23.8%) 대비 기부율이 감소하였다. 일산동구의 기부율이 24.2%로 다른 지역(일산서구 20.3%, 덕양구 16.2%)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의 기부율은 31.8%, 50대의 기부율은 29.1%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고양시, 2021a).

## 제11절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분석

### 1. 분석 자료

[표 3-23] 분석 자료 -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분석

#### 분석 자료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2. 분석 결과

#### 1) 영역별 만족도

2021년 고양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 건강·복지, 경제·고용, 주거, 문화·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4]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

| 구분      | 교육·보육  |         | 안전     |         | 건강·복지    |         | 경제·고용  |         | 주거     |         | 문화·여가  |          | 환경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B      | t       | B      | t        | B      | t       |
| 상수      | 3.923  | 251.069 | 3.694  | 206.661 | 4.01     | 230.376 | 3.5    | 191.632 | 2.986  | 155.893 | 4.186  | 245.356  | 4.153  | 233.879 |
| 성별      | -0.071 | -11.26  | 0.054  | 7.537   | -0.095   | -13.567 | 0.017  | 2.336   | -0.155 | -20.109 | -      | -        | -0.189 | -26.437 |
| 연령      | -0.001 | -6.169  | 0.005  | 23.021  | -0.003   | -14.628 | -0.001 | -5.809  | 0.006  | 29.032  | -0.009 | -43.8    | 0.001  | 6.842   |
| 자가유무    | 0.053  | 10.043  | -      | -       | 0.071    | 12.128  | 0.341  | 55.59   | 0.572  | 88.927  | 0.129  | 22.573   | 0.07   | 11.79   |
| 덕양구     | -0.265 | -47.255 | -0.275 | -42.761 | -0.463   | -74.106 | -0.162 | -24.75  | -0.156 | -22.709 | -0.867 | -141.383 | -0.43  | -67.443 |
| 일산서구    | 0.055  | 8.54    | -      | -       | -0.04    | -5.628  | -0.049 | -6.495  | -0.056 | -7.089  | -      | -        | -      | -       |
| 배우자 유무  | 0.08   | 11.547  | -0.232 | -29.123 | -0.171   | -22.094 | 0.051  | 6.308   | -0.159 | -18.597 | -0.191 | -25.138  | -0.093 | -11.798 |
| 경제활동 유무 | -0.227 | -35.652 | -0.255 | -34.928 | -0.019** | -2.67   | -0.09  | -12.081 | -0.276 | -35.298 | -0.176 | -25.235  | -0.228 | -31.421 |
| 거주지 소속감 | 0.393  | 117.799 | 0.584  | 152.973 | 0.433    | 116.363 | 0.247  | 63.26   | 0.634  | 154.952 | 0.519  | 142.536  | 0.501  | 132.237 |

| 구분           | 교육·보육  |         | 안전     |         | 건강·복지  |         | 경제·고용 |         | 주거     |         | 문화·여가  |         | 환경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B      | t       | B      | t       | B      | t       |
| 월평균<br>가구 소득 | 0.134  | 101.631 | 0.168  | 111.284 | 0.185  | 125.418 | 0.3   | 194.156 | 0.188  | 115.918 | 0.133  | 91.858  | 0.138  | 91.487  |
| 가구원 수        | -0.106 | -40.015 | -0.104 | -34.204 | -0.104 | -34.99  | -0.29 | -93.206 | -0.121 | -37.016 | -0.058 | -19.862 | -0.067 | -22.177 |

〈자료〉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주〉 1) 자가유무 유=1, 무=0/ 배우자 유무 유=1, 무=0/ 경제활동 유무 유=1, 무=0/ 거주지 소속감 1=전혀 없다 ~ 4=매우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 10=800만원 이상/ 가구원 수 실제 가구원 수

2) -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건강·복지 영역의 경제활동 유무는  $p < 0.1$ , 그 외 모든 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함

각 영역의 만족도는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자가 소유일수록, 덕양구와 일산 서구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거주지 소속감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영역별 만족도는 대부분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세부적으로 성별의 경우, 안전과 경제·고용 영역은 남성일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교육·보육, 건강·복지, 경제·고용, 문화·여가 영역은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반면 안전, 주거, 환경 영역은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안전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자가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덕양구가 아닐 때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일 때 교육·보육과 경제·고용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오히려 배우자가 없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거주지 소속감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가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지역사회보장 욕구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안전과 경제·고용 만족도가 낮은 여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중에서는 덕양구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 2) 성별 차이

2021년 고양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보육, 안전, 건강·복지, 경제·고용, 주거, 문화·여가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를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영역에 남녀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영역별 만족도는 안전 만족도가 6점 이하이지만 5.98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환경 만족도 5.8점, 주거 만족도 5.76점, 건강·복지 만족도 5.57점, 문화·여가 만족도 5.34점, 교육·보육 만족도 5.33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보육, 주거, 환경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낮은 반면, 안전, 건강·복지, 경제·고용, 문화·여가의 경우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25] 성별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차이 분석

| 구분        | 고양시 전체 | 남    | 여    | 통계적 유의성 |
|-----------|--------|------|------|---------|
| 교육·보육 만족도 | 5.33   | 5.31 | 5.35 | ***     |
| 안전 만족도    | 5.98   | 6.02 | 5.93 | ***     |
| 건강·복지 만족도 | 5.57   | 5.6  | 5.55 | ***     |
| 경제·고용 만족도 | 5.06   | 5.1  | 5.01 | ***     |
| 주거 만족도    | 5.76   | 5.75 | 5.77 | ***     |
| 문화·여가 만족도 | 5.34   | 5.35 | 5.32 | ***     |
| 환경 만족도    | 5.8    | 5.75 | 5.84 | ***     |

<자료>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3) 세대 차이

2021년 고양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보육, 안전, 건강·복지, 경제·고용, 주거, 문화·여가 만족도에 있어 청년, 중년, 노년의 세대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분석하였다. ANOVA 테스트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보육 만족도, 안전 만족도, 건강·복지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환경 만족도는 청년, 중년, 노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고용 만족도는 중년의 만족도가 청년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 만족도는 노년이 5.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청년 5.76점이고, 중년이 5.7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 중 노년의 만족도가 전반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에서 노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 3-26] 세대별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차이 분석

| 구분        | 고양시 전체 | 청년   | 중년   | 노년   | F/통계적유의성    |
|-----------|--------|------|------|------|-------------|
| 교육·보육 만족도 | 5.33   | 5.44 | 5.27 | 5.22 | 1558.028*** |
| 안전 만족도    | 5.98   | 6.02 | 5.98 | 5.73 | 1374.282*** |
| 건강·복지 만족도 | 5.57   | 5.68 | 5.54 | 5.25 | 3105.976*** |
| 경제·고용 만족도 | 5.06   | 5.04 | 5.05 | 5.01 | 34.129***   |
| 주거 만족도    | 5.76   | 5.76 | 5.71 | 5.82 | 186.999***  |
| 문화·여가 만족도 | 5.34   | 5.50 | 5.30 | 4.95 | 4883.720*** |
| 환경 만족도    | 5.8    | 5.81 | 5.79 | 5.68 | 304.220***  |

〈자료〉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세대별 필요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영역 중에 공원, 녹지, 산책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보건의료 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 17.1%, 공영주차시설 15.4% 순으로 응답했다. 항목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이 청년층에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노년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은 세대 중 청년세대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세대별 필요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

| 필요 공공 시설              | 구분           | 청년   | 중년   | 노년   | 전체   |
|-----------------------|--------------|------|------|------|------|
|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      | 9.1  | 6.5  | 3.7  |
| 공원, 녹지, 산책로           |              | 21.7 | 21.4 | 18.5 | 21.1 |
|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   |              | 14   | 17   | 26.3 | 17.1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              | 6.7  | 12.3 | 24.1 | 11.7 |
| 공영주차시설                |              | 16.1 | 16.7 | 8.8  | 15.4 |
| 문화예술회관                |              | 10.5 | 9.2  | 6.2  | 9.3  |
| 도서관                   |              | 7.2  | 4.6  | 2.2  | 5.3  |
| 체육시설 및 경기장            |              | 12.3 | 9.1  | 5    | 9.9  |
| 기타                    |              | 2.3  | 3.1  | 5    | 3    |
| 계                     |              | 100  | 100  | 100  | 100  |

〈자료〉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세대별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출산보육(43.4%)의 지원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노인복지사업 확대(33.9%), 요구호 보호사업(14.6%)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보육을 꼽은 비율이 청년의 경우 57%, 중년의 경우 39.4%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사업 확대는 중년 중 39.9%, 노년 중 66%로 매우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세대별 사회복지 우선 자원 분야에 대한 인식 분석

| 구분 | 사회복지 우선 자원 분야 |           |             |           |          |     |
|----|---------------|-----------|-------------|-----------|----------|-----|
|    | 출산보육          | 노인복지사업 확대 | 장애인복지 사업 확대 | 외국인 자원 사업 | 요구호 보호사업 | 기타  |
| 청년 | 57            | 15.2      | 6.2         | 0.8       | 18.3     | 2.5 |
| 중년 | 39.4          | 39.9      | 5.2         | 0.5       | 13.4     | 1.6 |
| 노년 | 18.8          | 66        | 5.7         | 0.7       | 8.5      | 0.3 |
| 전체 | 43.4          | 33.9      | 5.7         | 0.7       | 14.6     | 1.8 |

<자료>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4) 지역 차이

2021년 고양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보육, 안전, 건강·복지, 경제·고용, 주거, 문화·여가 만족도에 있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만족도 차이를 ANOVA 테스트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모든 영역에서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적으로 덕양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일산동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보육 만족도와 경제·고용 만족도는 일산서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지역별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차이 분석

| 구분        | 고양시 전체 | 덕양구  | 일산동구 | 일산서구 | F/ 통계적유의성    |
|-----------|--------|------|------|------|--------------|
| 교육·보육 만족도 | 5.33   | 5.18 | 5.43 | 5.47 | 13706.552*** |
| 안전 만족도    | 5.98   | 5.80 | 6.14 | 6.09 | 3681.423***  |
| 건강·복지 만족도 | 5.57   | 5.32 | 5.81 | 5.74 | 8462.913***  |
| 경제·고용 만족도 | 5.06   | 4.89 | 5.18 | 5.20 | 3542.236***  |
| 주거 만족도    | 5.76   | 5.63 | 5.87 | 5.86 | 1883.602***  |
| 문화·여가 만족도 | 5.34   | 4.84 | 5.75 | 5.71 | 31243.272*** |
| 환경 만족도    | 5.8    | 5.57 | 5.99 | 5.97 | 6742.114***  |

<자료>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제 4 장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정책 방안

제1절 영역별 욕구 종합화

제2절 영역별 정책 방안





## 제절 영역별 욕구 종합화

### 1. 아동 돌봄

아동 돌봄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민은 양육 정보와 기술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서비스 인식도와 만족도가 낮다. 영유아 돌봄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보호자는 돌봄 이용의 어려움이 높았다. 또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관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높았다. 초등 돌봄의 경우 공급률이 매우 낮으며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기관마다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부모의 인식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표 4-1] 아동 돌봄 욕구 분석

| 1. 아동 돌봄<br>욕구 분석 |   |
|-------------------|---|
| 아동 돌봄 전반          |   |
| 양육 정보와 기술 욕구 높음   |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기술' 부분이 어려움 경험 정도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서비스 인식 낮음         | 아동 돌봄서비스의 인식도 낮음  |
| 만족도 낮음            | 교육 보육 만족도(5.3점/10점)가 높지 않음 - 지역 차: 덕양구 타 권역 대비 낮음<br>사회적 돌봄 만족도(5.66점/10점)가 높지 않음 |
| 영유아 돌봄            |   |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시급     | 어린이집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48.9%)<br>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욕구 높음                       |
| 돌봄 이용의 어려움 높음     | 부모의 양육 어려움: 국공립어린이집 부족(36.9%), 입소대기(17.7%), 긴급 돌봄 이용 어려움(17.1%)                   |
| 인프라 부족            | 직장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부족함  |
| 평가 인증률 낮음         |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이 유사 인구 도시와 고양시의 수요에 비해 크게 낮음  |

|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높음 | 부모가 생각하는 중점 추진정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7.7%)<br>영유아 인구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덕양구(21.1%), 일산동구(13.1%), 일산서구(6.2%) |
|---------------|---|
| 초등 돌봄         |   |
| 공급률 매우 낮음     | 2019년 공급률 9.1% / 2021년 공급률 11.65%   |
| 부처 연계 미흡      |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부처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고양시에서 초등 돌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5개 과의 네트워킹을 주도할 중심기구 없음       |
| 인력 처우 개선 필요   | 열악한 급여, 돌봄 종사자 간 처우 차이, 짧은 근무시간, 행정업무부담   |
| 운영이 어려움       | 인건비, 월세 등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br>인력의 한계,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야외활동 어려움, 놀이시설 및 기구 부족                              |
| 부모 인식이 낮음     | 이용 부모의 비협조, 다양한 아동 돌봄 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

## 2. 성인 돌봄

성인 돌봄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는 장애인구가 많고 이들의 고령화가 높다.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군구의 노력체감도가 낮았다. 돌봄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욕구가 높았으나 서비스 만족도는 낮았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고양시에 1곳뿐이고 지역사회재활 시설의 종사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가 높았고 주간보호센터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성인 돌봄 욕구 분석

| 2. 성인 돌봄            |  |
|---------------------|--|
| 욕구 분석               |  |
| 장애인 - 현황과 욕구        |  |
| 장애인구가 많음            | 경기도에서 두 번째, 전국 시군구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구가 많음.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구 비율 1위                               |
| 장애인가구의 고령화 높음       |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수가 장애인등록인구의 44.0%   |
|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과 필요성 높음 | 사회보장 영역 중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 역시 높은 편.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서비스 인지율은 매우 낮음 |
| 노력체감도가 낮음           | 시군구의 노력체감에서 장애인 돌봄이 성인 돌봄(노인·장애인)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음.  |

|                      |   |
|----------------------|---|
| 돌봄과 관련한 보호자의 욕구 높음   | 경제적 어려움, 활동지원사를 찾는 데 어려움, 단기시설의 확대 절실, 주간보호센터 이용 기간이 제한되어 나이 들에 따른 장애 자녀 돌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주보호자의 건강과 돌봄노동의 지원  |
| 돌봄서비스 만족도 낮음         |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만족도: 71.2점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음.<br>세부 사항: 장애인활동지원(75.9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73.5점), 청소년별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70.7점) |
| <b>장애인 - 시설과 서비스</b>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 1개소, 정원 22명<br>수원시, 용인시, 성남시에 비해 정원이 적음   |
| 종사자 수 감소 추세          |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는 경기도 전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양시는 감소하고 있음  |
| 활동지원서비스 수요 높음        | 이용자 수,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음: 이용자 수(1,511명) / 공급 비율(102.8%)<br>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    |
| 주간보호센터 설비 확충 필요      | 개선점: 서비스 제공 장소의 시설, 설비 확충(30.2%)  |
| 대기자 다수               |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기자가 많고 40세 이상은 이용할 수 없음. 유형별 특화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욕구 여전히 높음                          |
| 전문인력과 개인 프로그램 필요     | 주간보호센터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 또한 주간보호센터에 장애특성에 따른 개인별 지원프로그램 개설 필요                         |
| <b>노인 - 현황과 필요</b>   |   |
| 서비스 만족도와 인지도 낮음      |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낮음(74점). 인구 유사 4개 지자체 중 세 번째. 노인 관련 서비스 인지도 낮음(20.46%). 용인시 인지도 41.89%에 비해 매우 낮음        |
| 돌봄 관련 우선지원 필요가 높음    | 고양시민이 생각하는 노인복지사업의 우선 지원 분야는 가사, 간병목욕, 식사제공 등. 노인 단독가구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자기돌봄 곤란 경험(노인가구 31.7%/노인단독가구 38%)           |
| 요보호노인 비율 상승          | 노인집단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요보호노인 비율 상승 중. 2020년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 중 요보호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7%임 (용인시 2.68%)                        |
| 정신건강 관리 필요           |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고 필요성 또한 높음. 특히 노인단독가구에 관심이 요구됨. 그러나 신체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적음                   |
|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필요        | 노인시설 중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
| <b>노인 - 장기요양보호</b>   |   |
|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많음    | 유사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양시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많음. 노인 만 명당 시설 수 4.07개소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
| 만족도에 지역별 편차          | 지역별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이용 만족도에 편차가 큼. 덕양구 원신동(84.6점), 성사2동(58.3점), 장항동(25.0점) 등  |
| 지역사회거주시설 이용자 감소      | 고양시의 지역사회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음  |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적음    | 노인인구 대비 재가시설 종사자 비율이 낮음.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종사자 수가 증가 추세<br>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유사 인구 지자체 중 가장 적음        |

|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 이용률과 만족도 낮음           | 고양시 노인인구의 1.9%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이는 경기도 평균 2.7%보다 낮은 수치. 서비스 연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음 | 이용 노인 중 49%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함  |
| 디지털활용 능력 낮음           | 이용 노인의 절반 이상인 59.3%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 재가서비스 선호              | (건강 악화 시) 시설 입소 의향 47.5%, 재가서비스 이용 희망 75.6%                                      |
| 지속성과 서비스 내용 확대 희망     | 생활지원사가 교체되지 않는 지속성 높은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방문 횟수 확대, 반찬 또는 부식재료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      |

### 3. 보호·안전

보호·안전과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는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감염병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고양시민은 시민안전보험 안전도가 낮았으며 고양시의 안전도 평가도 낮았다. 정책 수요나 노력 체감 역시 낮게 나타났다. 가족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 대응에 있어서 장애가구의 필요성이 높았다. 강력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고양시의 교통안전지수는 낮았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많았다. 한편 오존주의보 경보제 발령이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권역에 많은 편이었고 고양시의 지반 침하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잦다. 고양시 보건소에 감염병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보호·안전 욕구 분석

| 3. 보호·안전                 |  |
|--------------------------|--|
| 욕구 분석                    |  |
| 안전 전반                    |  |
|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감염병 개선 필요 | 1등급: 생활안전, 자살 / 2등급: 교통사고, 화재, 범죄 / 3등급: 감염병 - 교통사고와 감염병은 6년간 등급 변동 없어 개선 필요 |
| 시민안전보험 인지도 낮음            | 54.7% - 시민안전지킴이 대상 조사이므로 일반시민의 경우 더 낮을 가능성 있음                                |
| 안전도 평가 낮음                | 전반 2.87점/5점 - 낮은 편   |

|                           |  |
|---------------------------|--|
| 정책 수요와 노력 낮음              | 정책시급성(58.3점) / 노력체감도(58.6점) - 낮은 편   |
| <b>학대·폭력</b>              |  |
| 가족 내/외 위험 대응에 장애가구 필요도 높음 | 장애가구는 가족 내 학대, 폭력 대응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 지원 필요성 높음                             |
| <b>범죄</b>                 |  |
| 강력범죄 증가 추세                |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 계속 증가  |
| 여성의 두려움이 더 큼              | 일상생활 범죄피해의 두려움: 4.26점/10점 - 여성(4.57점)<br>야간상황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택시 이용(남 2.14점 < 여 3.56점), 골목길 보행(남 2.18점 < 여 3.5점) |
| <b>도시교통</b>               |  |
| 교통안전지수 낮음                 | 70.47점 - 전체 시도 평균보다 8.5점 낮음, 30만 이상 시 그룹 평균보다 2.68점 낮음   |
| 자전거 및 이륜차의 안전 낮음          | 65.84점: 유사 인구 지역이 70점을 상회한 것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br>30만 이상 시 그룹 평균보다 12.43점 낮음                                     |
| 교통사고 사망자 수 많음             |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에 39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음  |
| <b>재난·재해</b>              |  |
| 오존주의보 경보제 많음              | 고양시가 포함된 경기 북부권역의 오존경보제 발령이 많은 편   |
| 지반 침하 잦음                  |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지반 침하가 잦음  |
| 감염병 관련 인력 부족              | 고양시 보건소에 감염병 관련 인력 부족  |

## 4. 건강

건강과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의 노년층은 의료비 지출이 높고, 고양시민의 미충족 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하여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가 낮았으며 일상 건강관리가 어렵고 신체질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다. 고양시의 예방접종률은 경기도 최하였으며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도 낮았다. 노인의 만성질환율이 높았으며 고양시 전체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신건강의 경우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가 낮았으나 고양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욕구가 높았다. 그중에서도 여성과 노년층의 우울감 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덕양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청년과 노년층의 경우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건강 욕구 분석

| 4. 건강                       |  |
|-----------------------------|--|
| 욕구 분석                       |  |
| 건강 전반                       |  |
| 노년층 의료비 지출 높음               | 고양시 전체가 4.4%인 반면 노년층은 9.5%로 매우 높음  |
| 미충족 의료율 높음                  | 6.1% - 경기도(5.9%)보다 약간 높음   |
| 신체건강                        |  |
| 정책 수요와 노력 낮음                | 정책시급성(56.8점) / 노력체감도(58.9점) - 낮은 편   |
| 일상 건강관리 어렵지만 신체질환 서비스 이용 다수 | 어려움 경험: 일상적인 신체건강관리(21.0%) > 신체질환(20.9%)<br>서비스 이용: 신체질환 관련 서비스(19.8%) > 일상적인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15.4%) |
| 예방접종률 경기도 최하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6.2% - 경기도 최하치   |
|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낮음              | 73.5% - 경기도 평균 74.4%보다 낮음  |
| 노인의 만성질환율 높음                | 고양시 전체 만성질환율은 35%이나, 노년층은 84.9%로 매우 높음   |
| 흡연을 높음                      | 17.3% - 유사 인구 지역보다 높은 편  |
| 정신건강                        |  |
| 정책적 시급성과 노력 낮음              | 정책시급성(56.8점) / 노력체감도(58.9점) - 낮은 편   |
| 정신건강 증진 욕구 높음               |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이 가장 높고,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향후 이용 의향도 가장 높음  |
| 여성, 노년층의 우울감 경험률 다소 높음      | 1.58점/4점 - 낮은 편, 여성, 노년층, 일산동구가 높음   |
| 구별 보건건강 비교                  |  |
| 전반적으로 덕양구의 건강 상태가 나쁨        | 흡연을, 음주를, 비만을, 고혈압 진단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나쁨), 주관적 건강 인지율, 건강의 질에서도 가장 좋지 않게 나타남   |
| 청년과 노년층의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        | 스트레스 인지율은 20~30대가 높음.<br>우울 증상 유병률은 70대 이상이 높음 - 일산동구는 2.8%인데, 일산서구와 덕양구는 3%대를 보임                |

## 5. 교육

교육과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유자녀 가구 중 75.6%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교의 밀도는 높지 않았으나 교육과 관련해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였고 공교육의 만족도도 평생교육이나 보육에 비해 낮았다. 공교육 환경의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양시민은 학교생활 적응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다른 시보다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이나 특수학급이 없는 교육기관은 총 28개교였고 공립 특수교사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고 시간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평생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길 기대하며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창업을 하는 데에 평생교육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교육 욕구 분석

| 5. 교육           |  |
|-----------------|--|
| 욕구 분석           |  |
| 교육 전반           |  |
| 사교육비 지출         | 월평균 가구소득 중 사교육비: 14.4% - 유지녀 가구 75.6%가 사교육 이용<br>월평균 사교육비는 77.9만 원으로 높음                                  |
| 사교육 지출 비율과 지출액  | 최고: 일산서구(16.7%, 89.5만 원)<br>최저: 덕양남부(11.6%, 63.4만 원)   |
| 학생과 학교의 밀도      |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12.67개소 - 적은 편<br>교사 1인당 학생 수 13.95명 - 적은 편<br>학급당 학생 수 25.6명 - 적은 편                   |
| 정보 부족이 큰 문제     | 학교생활: 정보부족 59% > 낮은 서비스 질 49.5%<br>학업유지: 정보부족 55.5% > 적합한 지원 부재 46.5%<br>평생교육: 정보부족 51% > 이용 자격 제한 48.4% |
| 공교육 만족도 낮음      | 6.06점/10점 - 평생교육과 보육 만족도에 비해 낮음  |
| 공교육 환경 불만족      | 불만족(29.6%)이 만족(17.7%)보다 높음   |
| 공교육 외 교육 기회 불충분 | 불충분(40.1%)이 높음   |
| 평생교육 기회 불충분     | 불충분(24.7%), 모름(18.7%)  |
| 학교생활 적응과 어려움 높음 | 학교생활적응(24점) > 학업유지(23.4점)<br>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 32점 - 타 시보다 높음   |
|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높음  | '18년 1.68% - '19년 2.07% - '20년 2.35% - 지속적 증가. 타 시보다 높음  |
| 특수교육            |  |

|                                |   |
|--------------------------------|---|
| 특수학급 미설치교 28개교                 | 고양시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중인 특수학급 미설치교: 28개교 -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   |
| 공립 특수교사 수 적음                   | 2015년 기준 94명 - 타 시보다 적음   |
|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 높음                | 참여경험(49.5%) - 심리적 만족, 교양 함양 등을 위해<br>참여하지 못했던 경험(44.4%)<br>참여하지 못했던 이유 - 희망 프로그램이 없어서, 가까운 교육기관이 없어서<br>향후 참여 의향 77.1%로 매우 높음 |
| <b>평생교육</b>                    |   |
| 평생교육 참여율 낮음                    | 16.1% - 최고: 노년층(22.4%)  |
| 시간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평생교육 비참여        | 시간 부족 56.2% > 정보 부족 24.1% > 근거리 기관 부재 19.1%   |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희망                 | 다양한 학습/강좌/프로그램 > 다양한 정보공유   |
| 저소득, 저학력 집단의 자격 취득 및 취업의 주된 경로 | 자격 취득(23.5%) - 20대, 중졸 학력 집단, 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높음<br>취업-창업(11.2%) - 30대, 중졸 학력 집단, 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높음                      |
| 컨트롤타워 미약                       |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 6. 고용

고용과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 여성의 고용률과 고용안전성이 낮으며 노인 역시 고용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민은 임금 불만족과 일자리 정책 욕구가 높았고,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관련하여 정보 습득이 어렵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집단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 의향이 높으며, 청년의 경우 고용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과 관련된 교육 욕구가 높았다. 고양시의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 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고양시의 장애인 역시 고용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6] 고용 욕구 분석

|                |   |
|----------------|---|
| <b>6. 고용</b>   |   |
| <b>욕구 분석</b>   |   |
| <b>고용환경 전반</b> |   |
| 여성 고용률과 안전성 낮음 | 2021년 기준 고용률은 59.6%, 여성 고용률 49.5% < 남성 고용률 70.7%<br>- 타 지역 대비 전체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낮음. |



|                                  |   |
|----------------------------------|---|
|                                  | 2019년 기준 여성의 소득 만족도 4.6점, 고용안정성 만족도 5.66점 < 남성 5.99점  |
| 노인의 고용환경 열악                      | 직업안정성 10% < 고양시 평균 75.6%<br>고용안정성 만족도 4.78점 < 고양시 평균 5.85점  |
| 임금 불만족 높음                        | 임금 및 소득(20.9%) - 여성(36.4%) > 남성(29.4%)  |
| 일자리 정책 욕구가 높음                    |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음(전체 시민의 49.1%), 고양시 역점 분야는 일자리 정책(35.5%)<br>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높은 항목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취업, 창업 정보 부족',<br>'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전공,<br>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가족 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
|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 일·가정 양립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가족 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br>것으로 파악됨   |
| 정보 습득이 어려움                       | 사회보장 영역 중 가장 찾기 어려운 정보는 일자리 정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br>어려움이 가장 높음  |
| 일자리 부족함                          | 고양시민의 49.1%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br>(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일자리 발굴(36.6%), 취업 알선(20.1%), 창업 지원(13.9%),<br>직업훈련(12.5%)  |
| <b>집단별 현황</b>                    |   |
| 비정규직 근로자<br>: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br>시급 | (평균 근로계약기간) 공공부문 9.74개월 < 민간부문 18.62개월  |
|                                  | (부당대우 경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3.0%,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0.3%가<br>부당대우를 경험   |
|                                  | (산재 경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30.1%,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9.5%가<br>산재를 경험  |
|                                  | (산재 해결을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 공공 61.3%, 민간 31.0%   |
| 경력단절여성<br>: 재취업 의향 높음            |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상담을 받은 경험은<br>소수(공공 8.6%, 민간 5.6%)   |
|                                  | 고양시 비경제활동 여성(만 19세~54세)의 41.3%는 육아·가사로 일을 하지 않음   |
|                                  | 비경제활동 여성의 75.9%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어 대부분 경력단절로 나타남 -><br>경기도 전체보다 고양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높음<br>경력단절여성의 78.5%가 재취업 의향이 있음  |
| 청년<br>: 고용과 교육 욕구 높음             | 2021년 하반기 고양시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고양시 전체 고용률<br>2.1%p 증가에는 미치지 못함  |
|                                  | (취업희망기업) 중소기업(30.8%) > 대기업(18.6%)<br>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에 대한 취/창업 의향은 48.7%   |
|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자체 중점 육성 분야 AI, 빅데이터, VR/AR/MR<br>미래산업 발전에 대한 미래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배출 필요<br>(고양시 일자리 정책의 미흡한 점) 단기일자리 치중, 사회서비스 및 공공일자리 정책<br>치중,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지원 부족  |
| 장애인<br>: 고용 욕구 높음                |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가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음   |
|                                  |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을 시행함   |

## 7. 주거

주거와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공영주차시설과 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노인 1인가구와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 불만족이 높은 반면 주택개조서비스 이용률과 이용 의향이 낮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월세 부담이 높으며 중장년층의 주거안정성이 악화되었다. 고양시의 공공 임대주택은 중앙정부 중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양시는 주택 노후화가 심해 주거정비와 노후주택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주거정비사업의 집중도는 낮고 노후 연립·다세대주택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주거 욕구 분석

| 7. 주거                           |  |
|---------------------------------|--|
| 욕구 분석                           |  |
| 주거여건과 인식                        |  |
| 지역 간 불균형                        |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 개발지역 간 생활SOC 등 불균형 심화. 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 정도는 5점(보통) 미만으로 낮음. 도농복합지역은 주택주변환경 만족도가 낮음               |
| 공영주차시설과 공원 필요                   | 일산동구는 공영주차시설(26.6%), 덕양구는 공원, 녹지, 산책로(36.4%) 욕구 높음   |
| 노인 1인가구 집중 거주지역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음    | 청년 1인가구(0.326) > 노인 1인가구(0.140) - 노인 1인가구는 더 분산되어 거주 노인 1인가구가 집중한 지역은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br>특징: 편의시설 접근성 낮음 |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의 접근성이 낮음.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                                  |
| 30대와 단독주택 밀집 지역<br>주거환경 불만족 높음  | 주택시설, 면적, 구조에 관해 30대의 불만족이 높음<br>주차공간에 관해 일산서구의 불만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br>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음            |
| 층간방음 어려움이 큼                     | 주거 관련 어려움 중 열악한 층간방음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이 29.8점으로 가장 높음  |
| 주택 현황과 공공주택                     |  |
| 수급가구의 월세 부담 높음                  | 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 31.9만 원 < 수급가구의 월세 평균 33.3만 원<br>-> 수급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거 관련 경제적 부담 큼                     |
| 중장년층 주거안정성 악화                   | 중장년층의 자가와 전세 비중이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늘어남   |

|                          |  |
|--------------------------|--|
|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중심          | 고양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유인데, 점차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고양시 주도의 정책 개입이 더욱 필요함                               |
| 공공임대주택 비중 중소형 공급 주공      |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8%로 경기도 평균(8.5%)보다 낮음<br>고양시의 공공임대주택의 95%는 60㎡ 이하로 중소형 공급 부족                        |
| <b>주거정비</b>              |  |
| 신도시 개발 시기 공급물량의 노후화      | 1990년대부터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됨. 구도심 관리 필요성 높음  |
| 주거정비 필요성 증가              |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이 40%를 넘음                                       |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비활성화          | 고양시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 주거정비사업 집중도 낮음            | 주민공동체 사업에 사업유형 수나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40.81%, 31,293백만원). 주거정비 사업은 상대적으로 집중도(10.45%)가 낮음                         |
|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집중 지역에 지원 필요 | 택지개발사업 포함되지 않았던 고양동, 주교동, 성사동, 행주동 등에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이 집중되어 있음. 연립·다세대주택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주거의 질이 낮아 주거정비 필요 |

## 8. 문화·여가

문화·여가와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는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이 적은 편이고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유사 인구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문화재와 전통문화 관련 조례가 부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민은 일·여가 균형 정도와 전반적인 문화·여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문화·여가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문화·여가 활동 관련한 어려움이 높았고 문화·여가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시설 부족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레블테크(여행을 뜻하는 트레블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결합)의 전망이 높으나 고양시는 많은 역사자원의 활용이 부족했으며 지역예술인 지원이 미미하다. 고양시민은 지역 축제에 관심이 높고 고양시는 관광특구로 선정돼 발전이 기대되며 축제와 관광 관련 욕구가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고양시 내 외국인은 매해 증가하지만 지원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문화여가 욕구 분석

| 8. 문화여가                                      |  |
|--|--|
| 욕구 분석  |  |
| 제도적 인프라                                      |  |
| 문화 예산 적음                                     | 총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 고양시 2.02% -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음   |
|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적음                               | 고양시 52,748원 -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음  |
| 문화기반시설 수 적음                                  | (인구 10만 명당) 고양시 2.7개소 -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음  |
| 문화 관련 조례 부족                                  | 문화재와 지역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 시설 활용 필요                     |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증대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 지역의 균질적으로 위치한 학교 체육시설이 적당함<br>2019년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br>2021년 학교시설 공유제 협약 체결   |
| 만족도 및 욕구                                     |  |
| 만족도 종합/10점                                   |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의 접근성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일·여가 균형 정도와 전반적 만족도가 낮음. 덕양구와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비교군에 비해 낮음   |
| 세부<br>: 일·여가 균형<br>만족도 최저, 도서관<br>접근성 만족도 최고 | (전반적 만족도): 5.65점 - 최저: 중장년층(5.50점)<br>(도서관 접근성): 6.37점 - 최저: 덕양북부(5.54점)<br>(생활체육시설 접근성): 6.21점 - 최저: 덕양북부(5.45점)<br>(문화예술공간 접근성): 5.82점 - 최저: 중장년층(5.61점), 덕양북부(5.05점)<br>(일과 여가 균형 정도): 5.59점 - 최저: 중장년층(5.47점)<br>(도시브랜드 자부심): 5.79점 - 최저: 청년층(5.65점) |
| 경제적 부담으로 경험 축소                               |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여가 축소 8% - 조사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음   |
|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br>높음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  |
| 불만족 이유<br>: 시설 부족                            | 1순위로는 여가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br>2순위로는 시간 부족, 교통혼잡/교통수단 불편   |
| 관광   |  |
| 트레블테크 전망 높음                                  | 관광지 선택 시 인터넷 및 모바일 앱(83.8%)을 활용<br>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  |
| 역사자원 활용 부족                                   |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시 지정 문화재를 활용을 검토.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토착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이 가능. 역사자원의 경우 자원 발굴만 이루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질적 도약 필요   |
| 문화자원   |  |
| 지역예술인 자원 미미                                  | 고양시에는 「문화상 조례」가 없음 - 지역예술인의 기여 인정해 줄 수 없음  |
| 지역축제 관심 높음                                   | 지역축제의 만족도는 5.08점으로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음<br>고양시민은 지역축제 방문의 경우 서울시(26.4%)보다는 고양시(46.7%)를 선호   |
| 관광특구 선정                                      | 고양시는 20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까지 약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

| 다양성          |  |
|--------------|--|
| 외국인 매해 증가    | 2020년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4,651명<br>2020년 기준 고양시의 다문화가구 구성원은 총 17,263명 - 매해 증가 중 |
| 지원서비스 이용의 한계 | 외국국적동포나 중도입국자녀는 과반이 법무부 지원서비스를 모름<br>시간의 제약, 정보 접근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 다문화 인식 낮음    |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이웃 가능 문항에서 고양시의 응답은 6점으로 경기도<br>평균 63.4점보다 낮음              |

## 9. 환경

환경과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양시의 환경 예산은 총예산 대비 감소 추세이며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민은 녹지환경과 도시공원의 접근성에 높게 만족하지만 대기환경과 소음진동의 만족도가 낮았다. 고양시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이미 초과한 상태이며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하수처리시설로는 한계가 멀지 않았으며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문제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심각하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으며 고양시는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양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은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원 조성과 생태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 4-9] 환경 욕구 분석

| 9. 환경                |   |
|----------------------|---|
| 욕구 분석                |   |
| 현황                   |   |
| 환경 예산 감소             | 총예산 대비 환경 관련 예산: 2020년 7.19%, 2021년 7.62%, 2022년 7.03% - 감소 추세    |
| 1인당 환경보호 예산<br>감소 추세 | 2018년 367천 원, 2019년 430천 원, 2020년 150천 원 - 감소 추세(다른 유사 인구 지역도 동일) |
|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 낮음       | 2019년 2.23% - 용인시(1.77%)보다 높지만 수원시(7.76%)에 비해 상당히 낮음              |

|   |   |
|---|---|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br>작음                     | 2019년 22㎡ - 수원시(30㎡), 용인시(44㎡)보다 작음   |
| <b>만족도</b>                              |   |
| 만족도 종합/10점                              | 녹지환경 및 도시공원 접근성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반면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의 만족도가 낮음. 노년층의 만족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음  |
| 세부 내용<br>: 대기 만족도<br>최저, 녹지환경<br>만족도 최고 | (대기 만족도) 5.84점으로 낮음 - 최저<br>(식수 및 생활용수 만족도) 6.56점<br>(수질 및 하수도 만족도) 6.35점<br>(소음-진동 만족도) 5.86점으로 낮음<br>(녹지환경 만족도) 6.96점으로 높음 - 최고<br>(도시공원 접근성 만족도) 6.89점으로 높음<br>(생활폐기물 관리 만족도) 6.49점<br>(지자체 환경보호 노력 만족도) 6.27점 |
| <b>하수 및 쓰레기 처리</b>                      |   |
|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 1일 15,834kg /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1일 24,164kg - 도시화와 인구 밀집에 기인함  |
|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br>< 발생량                  | 처리량이 하루 최대 260톤인데 반해 1일 발생량이 275톤으로 이미 처리량 초과. 이는 토지오염이나 대기오염 유발 가능. 폐기물 처리 중심으로 전환 필요  |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br>시설 부족                    | 자원순환시설로서 쓰레기류를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함. 에너지 시설(260톤/일: 음식물류 250톤, 가축분뇨 10톤)의 처리량이 점차 초과되므로 추가 설치 필요   |
| 하수처리시설 한계 도래                            | 현재 고양시 내 4곳(일산, 원능, 벽제, 삼송)과 난지처리장에 위탁 처리. 일산을 제외한 3곳은 2023~30년에 처리량의 90~99%에 도달하거나 처리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 재활용 쓰레기 배출 문제                           |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무단투기가 가장 큰 문제.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생활민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   |
| <b>친환경</b>                              |   |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br>자전거 부각                    | 최근 친환경, 무에너지 측면에서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 대안으로 등장   |
|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br>대기환경 개선 필요               | 고양시민의 31.4%는 서울로 통근-통학-소요 시간은 편도 기준 72.1분<br>주된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승용차(39.8%)가 가장 많음<br>버스 이용 불만족 > 만족 - 이유: 노선 부족과 배차 간격  |
| 고양시민, 전문가, 공무원의<br>환경 관련 의견수렴           | 자전거 도로망 확충, 친환경 교통환경 확대 등 대기환경 개선책 필요<br>쓰레기 관리와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 필요<br>공원 조성과 자연 생태환경의 정비 필요<br>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환경 관련 교육 필요   |

## 10. 삶의 질 및 인프라

삶의 질 및 인프라와 관련한 고양시민의 욕구와 고양시의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

와 같다.

고양시민의 행복도는 경기도보다 낮으며 다른 시군 대비 만족도에서 덕양구가 낮게 나타났다. 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도 높았다. 사회적 돌봄의 만족도, 복지시설의 충분성,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모두 낮은 편이다. 한편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으며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기기가 없는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정보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양시민의 이웃과 대중 신뢰도는 낮은 편이며, 자원봉사와 기부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삶의 질 및 인프라 욕구 분석

| 10. 삶의 질 및 인프라          |  |
|-------------------------|--|
| 욕구 분석                   |  |
| 삶의 질 전반                 |  |
| 행복도(10점) 낮음             | 2020년 5.68점, 2021년 5.80점 - 조금 상승했으나 경기도 전체(6.0점)보다 낮은 편  |
| 타 시(군) 대비 만족도<br>덕양구 낮음 | 만족도 하위 5개동 중 덕양구에 4개<br>타 시(군)와 불균형 인식 중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불균형 인식 가장 높음  |
| 경제 인프라                  |  |
| 생계비 부족 어려움 큼            | 기초생활유지 어려움 경향: 생계비 부족 > 의료비 부족 > 주거비 부족  |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높음          | 고양시 만 19세 이상의 47.3%는 지난 1년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음. 4~50대의 과반수(40대 50.2%, 50대 53.8%)는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br>덕양구 49.9% > 일산동구 47.2% > 일산서구 43.6% |
| 복지 인프라                  |  |
| 사회적 돌봄 만족도 낮음           | 5.66점(10점)으로 낮은 편 - 중장년층(5.67점), 청년층(5.42점)은 낮음  |
| 복지시설 충분성 낮음             | 5.66점(10점)으로 낮음 - 청년층(5.64점), 중장년층(5.46점)은 낮음.   |
| 복지서비스 만족도 낮음            | 5.70점(10점)으로 낮음 - 청년층(5.60점), 중장년층(5.54점)은 낮음  |
| 디지털 정보 인프라              |  |
|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낮음       | 7.97점(10점)으로 높음 - 노년층(4.31점)이 매우 낮음  |
| 디지털 정보 활용이 어려운 이유       | 필요로 하는 정보의 부재 > 기기 부재 > 이해능력 부족 > 기기 사용법을 모름 > 활용 능력의 부족 > 공용인터넷 등 공동 편의시설 부재 >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부재                          |
|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            | 무료 인터넷 사용 가능한 공동 편의시설 마련 > 정보 소외계층에 맞춘 정보 제공 > 디지털 활용 무료교육 마련 > 정보 소외계층에 인터넷 환경 마련   |

| <b>관계 인프라</b> |  |
|---------------|--|
| 이웃과 대중 신뢰도 낮음 | (이웃 신뢰도/10점) 고양시 4.85점 - 노년층(5.39점), 중장년층(5.00점), 청년층(4.42점)<br>(대중 신뢰도/10점) 고양시 4.01점 - 노년층(4.30점), 중장년층(4.05점), 청년층(3.81점) |
|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   | 2019년 17.4% - 2020년 10.9% -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중 50대가 8%로 높은 편   |
| 기부율 감소        | 2019년 23.8% - 2020년 19.6% - 4~50대의 기부율이 각 31.8%, 29.1%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음  |



## 제2절 영역별 정책 방안

### 1. 아동 돌봄

#### 1)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아동돌봄지원센터) 구축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기획, 아동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포탈 운영, 아동 돌봄 기관 및 종사자 지원, 아동 돌봄 특화 서비스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공급 파악,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구축, 행정구별 초등 돌봄 협업 거점 센터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돌봄협의체 하위 조직으로 현장실무자의 협업체계 구축을 주도한다.

#### 2)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탈(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고양시 아동 돌봄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 돌봄 모델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와 기관 소개 및 이용 안내, 돌봄 예약신청, 육아 정보, 돌봄서비스와 기관 홍보, 자료 공유 등을 담당할 아동 돌봄 관련 포탈을 운영해야 한다.

#### 3)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우선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확충 계획을 수립하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기존의 적격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준공영 어린이집 역시 보육 공공성에 대한 부모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확충이 필요하다.

#### 4) 직장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장 상황을 반영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직장인 보호자의 욕구가 높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5)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낮은 접근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산동구 및 덕양구에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 6)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의 어려움으로 감소 추세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역시 지역의 아동 돌봄 자원이므로 이 자원을 잘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예산 상향 등 지자체 지원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 우수 어린이집에서 대상의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초등아동의 돌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을 내 돌봄 기관과 학교 내 돌봄 기관의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우선 이행되어야 한다. 고양시 특성에 맞는 공급을 확대하고, 마을돌봄 기관뿐 아니라 학교 내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돌봄 기관을 확충하고 공동체돌봄 등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

### 8)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므로 고양시 의지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공동체 돌봄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소규모로 운영 가능하고 시설 기준이 약하므로 확충이 비교적 쉬우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주민과 보호자가 연대해 공동체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 돌봄을 고양시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9)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영유아 돌봄의 경우 대체교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초등 돌봄의 경우, 종사자 임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고, 근무시간 연장, 행정업무 간소화, 초등돌봄전담사 양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이용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10)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긴급·틈새 보육 및 돌봄이 강화되어야 한다.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동행서비스, 아동식당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의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외활동과 놀이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향한 지역의 편견과 이용 아동의 낙인감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및 기관 연계, 홍보 등이 필요하며 돌봄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아동 돌봄 모델의 브랜드화를 진행하여 아동과 부모의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2. 성인 돌봄

## 1)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제공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을 위한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원 확대

학령기 졸업 이후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 나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에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 확대의 근간에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교육을 시행하고 최중증장애인 등을 고려한 추가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3)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고양시 고령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를 시행해 욕구에 맞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해 효율을 높이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해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복합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아동가구를 위해 각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추가하거나 최중증발달장애인을 기관 이용자의 일정 비율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고양시 내 장애인복지관은 일산서구에 1개이므로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덕양구에 확충되어야 한다. 고양시 내 노인복지관도 3개가 있으나 현재 포화상태이므로 노인돌봄 진입 예방 및 지역사회에서 노인통합돌봄을 위해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 5)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이들의 건강검진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장애여성의 유형에 따른 양육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영유아기를 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지원해야 한다.

### 6)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2026년에 시작되는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화 계획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해야 한다.

## 7)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고양시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우울증 경험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울 특화사업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8)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각종 사업 전개 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안전,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적 노화 문화를 적용하고 포괄적인 활동적 노화의 관점을 노인 돌봄에 적용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활동적 노화와 맥을 같이 하는 자기돌봄(self-care) 개념 적용을 위해 자기돌봄 필요성을 서비스 제공자, 제공 기관, 이용자, 이용자의 가족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9)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고양시만의 수료기준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임금과 복지에서도 고양시 자체의 기준을 마련해 이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상체계를 현실화하여야 하고, 근무 경력과 서비스 대상자의 난이도를 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며 돌봄 종사자의 근무 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10)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고양시의 경우 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적어 이용률이 낮다면 좋겠지만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 발굴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접수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 아파트, 버스, 마트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통·반장, 주민자치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노인을 발굴해야 한다.

### 3. 보호·안전

#### 1)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긴급전화 설치 및 홍보 강화하고, 피해자의 분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아동 및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확대와 종사자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2)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제공 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경찰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폭력과 학대의 특성상 사후에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학제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후 통합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3)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의 일상 및 야간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남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우범지대의 순찰 강화,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심귀가서비스, 1인 여성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 4)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빈집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안전시설물 확보 및 관리 등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ICT,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을 통한 최첨단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CCTV의 고도화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 5) 보행자 도로 확대

고양시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에 부족한 보행자 도로를 확대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시민안전보험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보험의 실효성을 증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7)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8)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고양시민은 대기질에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므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등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양시의 경우 오존경보제 발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므로 오존주의보 발령 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9)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고양시는 지반 침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므로 지반 탐사 계획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내실화 검토, 지하공간 통합지도(지하 정보 통합 체계) 구축 추진 등이 필요하다.

## 10)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 시행 및 전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훈련 및 업무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 4. 건강

### 1)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생활권역에서 일차적 케어를 담당하고, 급성 또는 긴급 의료 시 대형병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차적 케어로 만성질환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동네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로써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의료단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이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 3)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고양시 내에는 보건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전문가가 없으므로 전문 연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4)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고,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을 고려했을 때 성별, 세대별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5)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건강증진 및 질병의 조기 발견(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검진을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중 집중 연령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공적 서비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6)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고양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의 욕구가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을 총괄 조정,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 7)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고양시민은 중증정신질환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19.4점으로 항목 중 다소 높게 평가했다. 이에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와 관련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므로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위기 개입 및 치료 등을 연계해야 한다.

## 8)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건강하지 않은 노년기의 연장은 죽음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생활하는 기간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고양시 노인은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높은 편이라 건강 유지와 동시에 죽음의 질을 확보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보편적인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 미흡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의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9)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모바일 헬스케어는 생체 신호 계측 및 자동 진단, 응급 경보가 가능한 휴대형 무선

생체 계측 시스템, 스마트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태블릿PC, 컴퓨터 등과 의료 정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고양시민의 일상 건강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지표 중 건강위험요인이 있고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10)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

고양시의 미충족 의료율이 5%가 넘고 세대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충족 의료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충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5. 교육

### 1)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학교생활과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으므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교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추가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인성 함양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고양시의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업 중단에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지역 연계 학교 또는 혁신 교육, 학교 밖 학습을 통해 학업 지속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온라인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학교-행복복지센터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 5)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특수교육 인프라를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 인원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6)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력 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평생교육과 연계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 7)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2020년 조사 당시 최근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고양시민은 16.1%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민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양적, 질적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8)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다양한 규모의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육 대상을 여성, 노인, 아동 등 계층별,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집단별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9)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의 활동과 역할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0)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고양시는 2014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네트워크(GNLC)의 리더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여 대처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 구성도 필요하다.

# 6. 고용

## 1)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사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 대상 신산업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관련한 청년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고양시 청년의 경우 고양시 내 중소기업 취업도 선호하며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에 대한 의향이 높으므로 중소벤처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 3)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사회보장 영역 중 가장 찾기 어려운 정보는 일자리 정보로 나타났다. 디지털(온라인) 고용센터 시스템(통합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해 구인-구직-상담-연계-고용의 원스톱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여 대상별, 직무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야 한다.

#### 4)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한 세대별, 경력별, 성별 맞춤형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5)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노인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양시 노인의 높은 고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에게 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6) 장애인 직업교육 활성화 및 근로 지원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로 지원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7)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개발

고양시의 여성은 교육 수준은 높은 편이나 고용률은 낮고, 육아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많다. 대부분은 재취업 의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에게 적합한 미래 유망 직종을 발굴하여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8)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고용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지원 정책을 보다 확충하고, 유연한 근로환경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9)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에 관한 고양시만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며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과 고용기관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10)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추가 설립하거나 분소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 7. 주거

### 1)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도심 경계 등 외곽지역 등 교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중교통 노선 신설하는 등의 교통 인프라 개선책이 필요하다.

### 2) 생활SOC 사업의 확충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다양한 생활SOC를 결합하여 고양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

###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금을 확보하고 조건을 완화하며,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 4)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월세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높고 특히 노인층과 중장년층의 주거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이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비용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5)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비주택을 매입하여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는 노후화된 노인가구의 집을 리모델링 하여 지역 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 6)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장기적으로 초소형의 공공임대 주택 확보는 지양하고 중소형(40~85㎡) 중심의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 7)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도시재생 개념을 확장하여 노후공동주택 정비를 재생의 개념으로 포괄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의 주택공급이 중요하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물리적인 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8)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과 도농복합지원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를 확대함으로써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환경정화, 순찰, 택배 수취 등의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 9)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199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지의 정비와 리모델링이 주요 과제로 부상중이므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 10)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고양시민의 주차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담장 및 대문 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공유제를 확대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8. 문화·여가

### 1)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전반적으로 고양시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낮고,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여가 활동을 축소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문화복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양시 내의 문화시설 이용하여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를 지원하고 문화 소외층에게 적극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추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덕양구가 타 권역 대비 시설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문화·여가시설의 지역별 균형 투자가 필요하고, 문화생태계의 균형 있는 구축을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 4)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고양시 미래 문화자원으로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고양시 문화예술인의 창작, 유통, 전시 기획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 5)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고양시민은 행주문화제, 고양호수예술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고, 관람하는 시민참여형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양시 문화 공동체 형성과 시민 문화커뮤니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 6)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고양시민이 정주공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거와 기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양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양의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뿐 아니라 고양시민 참여하고 고양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초·중·고·대학생 및 시민 대상의 고양학 강좌 운영, 시민기록가 양성, 시민답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7)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 콘텐츠형 도시 관광버스를 운행하거나, 문화 관광상품 개발, 지역 명사 위촉 등 지역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양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 8)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증강현실 등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마트 MICE 관광도시를 조성해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 9)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 이웃 가능성에서 고양시 점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와 태도 습득을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

## 10)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학교장 협조를 얻기 어렵다.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설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 9. 환경

### 1)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 달성제 시행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낮추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 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관련 관심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태공원에서의 프로그램, 환경교육을 인증한 진로 체험기관 프로그램, 근린공원 생태해설 탐방 프로그램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에코포인트나 바우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정책에 참여하면 주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4) 도시공원 조성 확대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1인당 도시공원(립) 조성면적이 낮으므로 도시공원 확대 조성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5)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오래된 주택가와 식당가 주변에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대시민 홍보를 확대

해야 한다. 아파트 외의 주거지역에서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지정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6)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고 신규 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나 소요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공법을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 비중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시 차원의 검토 역시 필요하다.

## 7) 자전거 이용 확대

에너지 절감, 대기환경 개선, 시민의 건강 등을 위해 공공자전거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며, 자전거 친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 8)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고양시민의 평균 통근, 통학 시간이 길고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므로 환경에 기여하는 동시에 출퇴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9)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활성화해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 10) 녹색건축 인증 확대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고양형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등 녹색건축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 10. 삶의 질 및 인프라

### 1) 복지재단 설립

고양시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특례시 선정에 따른 고양시민의 복지 기대를 충족하는 등 고양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 2)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지원사업 마련

생애주기별, 욕구별, 지역별로 맞춤형 빈곤 개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개발, 강화해야 하며,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세대별 복지 체감도 제고

생애주기에 따라 살아온 배경과 달성해야 하는 과업이 달라 세대별로 지역사회보장 욕구의 차이가 크다. 고양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교한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통합시스템을 통한 현장 허브 필요

복지 관련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양시 복지사업의 업무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정보를 공유를 통해 수요자 통합이력관리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복지현장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5)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환경 구축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영구임대 단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거나 공공차원에서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는 등 정보화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 환경 구축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전달 효율 증대

정보취약계층에게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 외에도 익숙한 방법인 지류, 문자 등을 통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동시에 앞으로 늘어날 디지털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기 교육과 프로그램도 개발, 진행해야 한다.

## 7) 전 연령대의 마을 소통창구 개발

고양시의 낮은 이웃, 대중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세대를 뛰어넘은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와 기부 활성화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8) 중장년층 지원 확대

고양시의 중장년 비중은 매우 높은 편으로 고양시가 고령화에 잘 대응하고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일자리, 사회공헌 등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여가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중장년의 가족관계와 건강관리 지원, 체계화된 생애 재설계 등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9) 맞춤형 빈곤 개선 정책 구상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원

빈곤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욕구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정책 우선순위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AHP 결과

제3절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 제절 조사 개요

### 1. 분석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원,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다양한 욕구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욕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도출된 정책 방안에 대해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방법 중 절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인 AHP는 쌍대비교법, 절대비교법, 내부종속법, 외부종속법, ANP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안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각 대안 간의 비교 횟수가 증가하여 설문에 필요한 시간이 막대하게 증가하며 비교의 논리적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함영진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90개의 대안이 제시되었으므로 대안 간의 비교는 하지 않는 절대 평가법을 사용하여 AHP 분석을 시행하였고 총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사회보장 영역과 고양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연구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우선순위 기반 비율 방법(ratio method)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기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전문가 10명의 평가 결과를 기하 평균(geometric mean)으로 종합하여 평가기준별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 3. 분석 내용

평가기준을 주 평가기준과 하위 평가기준으로 나누고, 지역사회보장 10가지 영역 중 결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 및 인프라 영역을 제외한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9개 영역을 주 평가기준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주 평가기준별 10개의 정책 방안을 하위 평가기준으로 하였다. 그다음 비율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적 평가를 하였다.

[그림 5-1] 지역사회보장 정책 방안 계층 구조화 1

| 주<br>평가<br>기준  | 아동 돌봄                     | 성인 돌봄                                    | 보호·안전                              | 건강                       |
|----------------|---------------------------|--|------------------------------------|--------------------------|
| 하위<br>평가<br>기준 |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털 운영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 경의 협치 강화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                | 국공립 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 고령 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
|                | 직장어린이집 확충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 보행자 도로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
|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선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                |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
|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자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             |

[그림 5-2] 지역사회보장 정책 방안 계층 구조화 2

| 주 평가 기준  | 교육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환경                            |
|----------|--------------------------|----------------------------|------------------------|-----------------------------|-------------------------------|
| 하위 평가 기준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 달성제 시행 |
|          |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생활SOC 사업의 확충           |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확대                     |
|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지원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
|          | 평생학습 참여를 증진              |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
|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
|          |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          |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 녹색건축 인증 확대                    |

## 제2절 AHP 결과

### 1. 주 평가기준(영역) 점수 및 가중치

주 평가기준(영역)의 9개 영역의 가중치를 산출을 위해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준점을 정해서 중요도에 따라 상대 점수를 부여했고 전문가들의 점수를 기하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주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 돌봄(13.4%) > 성인 돌봄, 고용(각각 12.8%) > 환경(11.8%) > 건강(11.6%) > 보호·안전, 주거(각각 10.2%) > 교육(10.0%) > 문화·여가(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주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영역 구분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점수 | 가중치  |
|-------|----|----|----|----|----|----|----|----|----|----|----|------|
| 아동 돌봄 | 5  | 9  | 8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92 | 13.4 |
| 고용    | 10 | 10 | 8  | 9  | 9  | 10 | 9  | 9  | 6  | 8  | 88 | 12.8 |
| 성인 돌봄 | 7  | 8  | 10 | 10 | 10 | 10 | 9  | 6  | 8  | 10 | 88 | 12.8 |
| 환경    | 10 | 6  | 10 | 7  | 7  | 8  | 7  | 9  | 9  | 8  | 81 | 11.8 |
| 건강    | 8  | 9  | 7  | 9  | 8  | 9  | 8  | 7  | 7  | 8  | 80 | 11.6 |
| 보호·안전 | 5  | 8  | 9  | 7  | 8  | 7  | 8  | 5  | 4  | 9  | 70 | 10.2 |
| 주거    | 9  | 10 | 10 | 6  | 5  | 6  | 7  | 7  | 3  | 7  | 70 | 10.2 |
| 교육    | 8  | 7  | 6  | 8  | 7  | 5  | 6  | 8  | 5  | 9  | 69 | 10.0 |
| 문화·여가 | 4  | 5  | 5  | 5  | 5  | 4  | 6  | 8  | 2  | 7  | 51 | 7.4  |

### 2. 하위 평가기준(정책 방안) 점수 및 가중치

주 평가기준인 9개 영역별로 10개씩 하위 평가기준(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주 평가기준별로 기준점을 정해서 하위 평가기준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고, 이들의 점수를 기하 평균하여 산출한 중요도(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 돌봄 영역

아동 돌봄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가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13.2%)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12.1%) >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11.0%)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각각 10.2%)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탈 운영(9.6%) > 직장어린이집 확충(9.2%)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8.9%)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8.5%)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7.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 영역은 정책 대안 간 표준편차가 1.77로 9개 영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아동 돌봄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 6  | 10 | 10 | 10 | 10 | 10 | 10 | 9 | 10 | 10 | 95 | 13.2 |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6  | 9  | 9  | 9  | 9  | 10 | 10 | 9 | 9  | 7  | 87 | 12.1 |
|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 7  | 9  | 6  | 9  | 6  | 9  | 9  | 8 | 8  | 8  | 79 | 11.0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 8  | 9  | 10 | 10 | 7  | 2  | 8  | 5 | 4  | 10 | 73 | 10.2 |
|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 6  | 8  | 5  | 7  | 9  | 6  | 8  | 8 | 7  | 9  | 73 | 10.2 |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탈 운영 | 10 | 6  | 9  | 7  | 7  | 2  | 7  | 7 | 5  | 9  | 69 | 9.6  |
| 직장어린이집 확충                 | 7  | 8  | 9  | 6  | 5  | 8  | 8  | 6 | 2  | 7  | 66 | 9.2  |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 8  | 7  | 8  | 6  | 7  | 7  | 7  | 5 | 1  | 8  | 64 | 8.9  |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 5  | 7  | 7  | 8  | 5  | 3  | 6  | 8 | 6  | 6  | 61 | 8.5  |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3  | 6  | 9  | 7  | 3  | 3  | 6  | 4 | 3  | 7  | 51 | 7.1  |

## 2) 성인 돌봄 영역

성인 돌봄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 돌봄 영역에서는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과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가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이 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애인 가족 돌봄 지원,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각각 10.9%)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10.8%)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각각 10.5%)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 문화 확산(10%)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9.6%)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9.3%)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8.9%)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8.6%)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돌봄 영역 정책 대안은 표준편차가 0.86으로 9개 영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성인 돌봄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10 | 7  | 7  | 10 | 10 | 8  | 9 | 9  | 2  | 10 | 82 | 10.9 |
|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6  | 9  | 10 | 8  | 10 | 7  | 9 | 8  | 7  | 8  | 82 | 10.9 |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 9  | 8  | 9  | 8  | 8  | 6  | 8 | 7  | 9  | 9  | 81 | 10.8 |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5  | 10 | 10 | 9  | 8  | 3  | 7 | 10 | 10 | 7  | 79 | 10.5 |
|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9  | 9  | 7  | 8  | 10 | 9  | 8 | 8  | 5  | 6  | 79 | 10.5 |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 10 | 8  | 6  | 10 | 7  | 4  | 6 | 9  | 8  | 7  | 75 | 10.0 |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 7  | 10 | 9  | 5  | 9  | 8  | 9 | 3  | 3  | 9  | 72 | 9.6  |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8  | 9  | 9  | 6  | 5  | 10 | 6 | 5  | 6  | 6  | 70 | 9.3  |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9  | 7  | 7  | 6  | 7  | 9  | 8 | 6  | 1  | 7  | 67 | 8.9  |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 5  | 8  | 8  | 8  | 9  | 4  | 7 | 6  | 4  | 6  | 65 | 8.6  |

### 3) 보호·안전 영역

보호·안전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안전 영역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정책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가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정책(11.9%)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각각 11.6%) > 범죄 예방환경 디자인(CEPTED) 모델 확대(11.0%)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9.7%)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9.5%) > 보행자 도로 확대(8.1%)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7.9%)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보호·안전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 8  | 8  | 8  | 9  | 10 | 8  | 8 | 8  | 10 | 9 | 86 | 11.9 |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 7  | 10 | 6  | 10 | 7  | 10 | 9 | 9  | 7  | 9 | 84 | 11.6 |
|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 8  | 10 | 10 | 9  | 10 | 9  | 8 | 8  | 4  | 8 | 84 | 11.6 |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9  | 9  | 6  | 10 | 9  | 8  | 8 | 9  | 8  | 8 | 84 | 11.6 |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 5  | 9  | 10 | 10 | 8  | 9  | 8 | 10 | 5  | 6 | 80 | 11.0 |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 6  | 9  | 6  | 8  | 7  | 5  | 9 | 7  | 6  | 7 | 70 | 9.7  |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 10 | 7  | 5  | 9  | 7  | 4  | 7 | 4  | 9  | 7 | 69 | 9.5  |
| 보행자 도로 확대                          | 5  | 7  | 9  | 7  | 5  | 4  | 6 | 5  | 3  | 8 | 59 | 8.1  |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 10 | 6  | 5  | 5  | 5  | 3  | 6 | 8  | 2  | 7 | 57 | 7.9  |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 5  | 6  | 5  | 8  | 2  | 6  | 7 | 4  | 1  | 7 | 51 | 7.0  |

#### 4) 건강 영역

건강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 영역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이 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11.8%)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11.5%)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10.4%)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10.2%)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정신 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각각 10.1%)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각각 9.3%)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8.9%)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건강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10 | 10 | 9  | 10 | 9  | 10 | 9  | 9  | 6  | 8  | 90 | 11.8 |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9  | 9  | 10 | 10 | 8  | 6  | 9  | 9  | 8  | 10 | 88 | 11.5 |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6  | 9  | 6  | 9  | 10 | 10 | 9  | 10 | 3  | 7  | 79 | 10.4 |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 8  | 10 | 9  | 8  | 10 | 4  | 7  | 8  | 7  | 7  | 78 | 10.2 |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6  | 8  | 7  | 7  | 10 | 8  | 10 | 4  | 9  | 8  | 77 | 10.1 |
|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7  | 8  | 10 | 6  | 5  | 9  | 8  | 6  | 10 | 8  | 77 | 10.1 |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8  | 6  | 8  | 9  | 10 | 7  | 8  | 6  | 2  | 7  | 71 | 9.3  |
|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             | 10 | 6  | 10 | 5  | 9  | 4  | 7  | 8  | 5  | 7  | 71 | 9.3  |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 9  | 7  | 7  | 8  | 5  | 3  | 9  | 7  | 4  | 9  | 68 | 8.9  |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 5  | 7  | 8  | 6  | 8  | 7  | 6  | 7  | 1  | 8  | 63 | 8.3  |



## 5)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가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12.1%)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10.7%)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10.6%)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10.5%)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10.3%)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10.2%)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9.4%)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각각 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교육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 9  | 10 | 9  | 10 | 9  | 8  | 8 | 10 | 9  | 9  | 91 | 12.1 |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10 | 9  | 10 | 8  | 10 | 9  | 6 | 8  | 3  | 8  | 81 | 10.7 |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 9  | 10 | 7  | 9  | 9  | 9  | 7 | 9  | 1  | 10 | 80 | 10.6 |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6  | 10 | 9  | 7  | 8  | 7  | 9 | 5  | 10 | 8  | 79 | 10.5 |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 8  | 9  | 6  | 10 | 8  | 5  | 8 | 7  | 8  | 9  | 78 | 10.3 |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9  | 7  | 10 | 6  | 8  | 10 | 8 | 6  | 6  | 7  | 77 | 10.2 |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 9  | 9  | 9  | 6  | 8  | 4  | 7 | 6  | 4  | 9  | 71 | 9.4  |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 5  | 6  | 9  | 9  | 6  | 3  | 5 | 10 | 5  | 8  | 66 | 8.7  |
|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 10 | 8  | 6  | 5  | 5  | 7  | 7 | 5  | 7  | 6  | 66 | 8.7  |
|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 8  | 6  | 9  | 6  | 4  | 7  | 7 | 8  | 2  | 9  | 66 | 8.7  |

## 6) 고용 영역

고용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영역에서는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이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맞춤형 일자리 확대가 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11.4%)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11.3%)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각각 10.7%) > 경력단절여성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각각 9.6%)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 지원(각각 9.4%)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9.3%)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고용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 6  | 10 | 9  | 9  | 6  | 10 | 10 | 9  | 9  | 10 | 88 | 11.4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 7  | 9  | 8  | 8  | 8  | 9  | 10 | 10 | 10 | 8  | 87 | 11.3 |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 10 | 10 | 10 | 8  | 4  | 9  | 9  | 7  | 8  | 8  | 83 | 10.7 |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 10 | 9  | 7  | 9  | 10 | 10 | 9  | 4  | 6  | 9  | 83 | 10.7 |
|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 8  | 8  | 6  | 6  | 9  | 7  | 9  | 7  | 7  | 7  | 74 | 9.6  |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 9  | 9  | 9  | 6  | 8  | 7  | 8  | 8  | 2  | 8  | 74 | 9.6  |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8  | 10 | 9  | 7  | 6  | 7  | 8  | 5  | 3  | 10 | 73 | 9.4  |
|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지원       | 7  | 8  | 5  | 10 | 10 | 4  | 8  | 9  | 4  | 8  | 73 | 9.4  |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 9  | 6  | 9  | 6  | 5  | 8  | 8  | 8  | 5  | 8  | 72 | 9.3  |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10 | 8  | 6  | 9  | 4  | 3  | 7  | 6  | 6  | 7  | 66 | 8.5  |

## 7) 주거 영역

주거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 영역에서는 생활SOC 사업 확충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와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생활SOC 사업 확충(11.6%)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각각 10.9%)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각각 10.4%) > 노후공동주택 정비사업 활성화(9.8%)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8.6%)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단독주택지 안심 관리제 확대 운영(각각 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주거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생활SOC 사업의 확충           | 8  | 9  | 10 | 8 | 5 | 10 | 9  | 10 | 8  | 7 | 84 | 11.6 |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6  | 10 | 9  | 5 | 5 | 8  | 9  | 9  | 10 | 8 | 79 | 10.9 |
|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 10 | 8  | 6  | 9 | 8 | 9  | 6  | 8  | 9  | 6 | 79 | 10.9 |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8  | 10 | 9  | 9 | 8 | 4  | 7  | 8  | 6  | 6 | 75 | 10.4 |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 7  | 8  | 6  | 8 | 5 | 10 | 10 | 6  | 7  | 8 | 75 | 10.4 |
|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9  | 9  | 7  | 7 | 5 | 9  | 10 | 8  | 4  | 7 | 75 | 10.4 |
|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9  | 6  | 8  | 7 | 6 | 8  | 9  | 7  | 5  | 6 | 71 | 9.8  |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7  | 7  | 6  | 9 | 5 | 5  | 8  | 5  | 2  | 8 | 62 | 8.6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 6  | 8  | 7  | 7 | 5 | 5  | 8  | 7  | 1  | 7 | 61 | 8.4  |
|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 8  | 9  | 4  | 8 | 7 | 5  | 7  | 4  | 3  | 6 | 61 | 8.4  |

## 8) 문화·여가 영역

문화·여가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추진이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가 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각각 12.1%)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11.0%)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10.8%)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10.0%) > 권역별 문화 여가시설 확충,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각각 9.6%)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9.1%)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8.9%)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문화·여가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8  | 10 | 6 | 9  | 8  | 9  | 9 | 9  | 8  | 10 | 86 | 12.1 |
|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         | 10 | 8  | 8 | 10 | 10 | 8  | 8 | 6  | 10 | 8  | 86 | 12.1 |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 7  | 10 | 6 | 9  | 7  | 7  | 8 | 8  | 6  | 10 | 78 | 11.0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 9  | 7  | 9 | 8  | 7  | 10 | 4 | 4  | 9  | 10 | 77 | 10.8 |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6  | 8  | 7 | 7  | 9  | 9  | 7 | 9  | 3  | 6  | 71 | 10.0 |
|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 6  | 9  | 9 | 5  | 4  | 7  | 6 | 7  | 7  | 8  | 68 | 9.6  |
|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 6  | 9  | 9 | 5  | 8  | 8  | 5 | 4  | 5  | 9  | 68 | 9.6  |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 9  | 7  | 5 | 9  | 5  | 6  | 6 | 10 | 2  | 6  | 65 | 9.1  |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 9  | 6  | 5 | 7  | 8  | 4  | 5 | 8  | 4  | 7  | 63 | 8.9  |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 7  | 6  | 8 | 6  | 2  | 4  | 5 | 5  | 1  | 5  | 49 | 6.9  |

## 9) 환경 영역

환경 영역의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가중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이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가 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중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13.3%)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12.0%)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11.2%) > 도시공원 조성 확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각각 9.7%)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9.4%)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9.1%) > 녹색건축 인증 확대(8.7%) > 자전거 이용 확대(8.6%)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0] 환경 영역 하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

(단위: 점, %)

| 정책 방안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총점 | 가중치  |
|-------------------------------|----|----|----|---|----|----|---|----|----|----|----|------|
|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 | 10 | 10 | 10 | 9 | 10 | 9  | 8 | 10 | 10 | 10 | 96 | 13.3 |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9  | 9  | 9  | 8 | 10 | 10 | 9 | 9  | 9  | 5  | 87 | 12.0 |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10 | 10 | 8  | 7 | 9  | 7  | 7 | 6  | 8  | 9  | 81 | 11.2 |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10 | 7  | 7  | 9 | 4  | 9  | 9 | 8  | 1  | 6  | 70 | 9.7  |
|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 7  | 6  | 8  | 7 | 8  | 8  | 6 | 9  | 4  | 7  | 70 | 9.7  |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6  | 9  | 9  | 9 | 2  | 8  | 8 | 6  | 6  | 5  | 68 | 9.4  |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 6  | 8  | 8  | 5 | 6  | 7  | 5 | 8  | 5  | 8  | 66 | 9.1  |
| 녹색건축 인증 확대                    | 9  | 9  | 5  | 6 | 4  | 8  | 6 | 6  | 3  | 7  | 63 | 8.7  |
| 자전거 이용 확대                     | 8  | 8  | 6  | 6 | 4  | 5  | 8 | 7  | 2  | 8  | 62 | 8.6  |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 7  | 7  | 5  | 8 | 4  | 6  | 7 | 4  | 7  | 5  | 60 | 8.3  |

## 제3절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 1. 전반적 가중치

전체 계층구조에서 각 하위 평가기준이 얼마큼의 중요도를 갖는지를 나타낸 것이 전반적 가중치이다. 각 하위 평가기준의 전반적 가중치는 주 평가기준의 가중치(주 가중치)와 하위 평가기준의 가중치(하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다.

다음은 각 정책 방안의 전반적 가중치이다.

[표 5-11] 전반적 가중치

(단위: 점, %)

| 영역               | 정책 방안                                    | 총점 | 주 가중치 | 하위 가중치 | 전반적 가중치 |
|------------------|--|----|-------|--------|---------|
| 아<br>동<br>돌<br>봄 |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 95 | 13.4  | 13.2   | 1.77    |
|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87 | 13.4  | 12.1   | 1.62    |
|                  |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 79 | 13.4  | 11.0   | 1.47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 73 | 13.4  | 10.2   | 1.36    |
|                  |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 73 | 13.4  | 10.2   | 1.36    |
|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탈 운영                | 69 | 13.4  | 9.6    | 1.28    |
|                  | 직장어린이집 확충                                | 66 | 13.4  | 9.2    | 1.23    |
|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 64 | 13.4  | 8.9    | 1.19    |
|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 61 | 13.4  | 8.5    | 1.13    |
|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51 | 13.4  | 7.1    | 0.95    |
| 성<br>인<br>돌<br>봄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82 | 12.8  | 10.9   | 1.39    |
|                  | 고령 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82 | 12.8  | 10.9   | 1.39    |
|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 81 | 12.8  | 10.8   | 1.38    |
|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79 | 12.8  | 10.5   | 1.34    |
|                  |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79 | 12.8  | 10.5   | 1.34    |
|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 75 | 12.8  | 10.0   | 1.27    |
|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 72 | 12.8  | 9.6    | 1.22    |
|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70 | 12.8  | 9.3    | 1.19    |
|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67 | 12.8  | 8.9    | 1.14    |
|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 65 | 12.8  | 8.6    | 1.10    |

|                  |                                    |      |      |      |      |
|------------------|------------------------------------|------|------|------|------|
| 퍼<br>아<br>인<br>전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 86   | 10.2 | 11.9 | 1.21 |
|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 84   | 10.2 | 11.6 | 1.18 |
|                  |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 84   | 10.2 | 11.6 | 1.18 |
|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84   | 10.2 | 11.6 | 1.18 |
|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 80   | 10.2 | 11.0 | 1.12 |
|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 70   | 10.2 | 9.7  | 0.98 |
|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 69   | 10.2 | 9.5  | 0.97 |
|                  | 보행자 도로 확대                          | 59   | 10.2 | 8.1  | 0.83 |
|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 57   | 10.2 | 7.9  | 0.80 |
| 건<br>강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선거인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 51   | 10.2 | 7.0  | 0.72 |
|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90   | 11.6 | 11.8 | 1.37 |
|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88   | 11.6 | 11.5 | 1.34 |
|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79   | 11.6 | 10.4 | 1.20 |
|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 78   | 11.6 | 10.2 | 1.19 |
|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77   | 11.6 | 10.1 | 1.17 |
|                  |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77   | 11.6 | 10.1 | 1.17 |
|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71   | 11.6 | 9.3  | 1.08 |
|                  |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                       | 71   | 11.6 | 9.3  | 1.08 |
|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 68   | 11.6 | 8.9  | 1.04 |
|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 63   | 11.6 | 8.3  | 0.96 |
| 과<br>육           |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 91   | 10.0 | 12.1 | 1.21 |
|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 81   | 10.0 | 10.7 | 1.07 |
|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80   | 10.0 | 10.6 | 1.06 |
|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79   | 10.0 | 10.5 | 1.05 |
|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 78   | 10.0 | 10.3 | 1.03 |
|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77   | 10.0 | 10.2 | 1.02 |
|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 71   | 10.0 | 9.4  | 0.94 |
|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 66   | 10.0 | 8.7  | 0.88 |
|                  |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 66   | 10.0 | 8.7  | 0.88 |
|                  |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66   | 10.0 | 8.7  | 0.88 |
| 고<br>용           |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 88   | 12.8 | 11.4 | 1.45 |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근로환경 개선 지원          | 87   | 12.8 | 11.3 | 1.44 |
|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 83   | 12.8 | 10.7 | 1.37 |
|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 83   | 12.8 | 10.7 | 1.37 |
|                  |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 74   | 12.8 | 9.6  | 1.22 |
|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 74   | 12.8 | 9.6  | 1.22 |
|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73   | 12.8 | 9.4  | 1.21 |
|                  |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지원               | 73   | 12.8 | 9.4  | 1.21 |
|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 72   | 12.8 | 9.3  | 1.19 |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66                                 | 12.8 | 8.5  | 1.09 |      |

|                       |                               |    |      |      |      |
|-----------------------|-------------------------------|----|------|------|------|
| 주<br>거                | 생활SOC 사업의 확충                  | 84 | 10.2 | 11.6 | 1.18 |
|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79 | 10.2 | 10.9 | 1.11 |
|                       |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 79 | 10.2 | 10.9 | 1.11 |
|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75 | 10.2 | 10.4 | 1.06 |
|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 75 | 10.2 | 10.4 | 1.06 |
|                       |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75 | 10.2 | 10.4 | 1.06 |
|                       |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71 | 10.2 | 9.8  | 1.00 |
|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62 | 10.2 | 8.6  | 0.87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 61 | 10.2 | 8.4  | 0.86 |
|                       |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 61 | 10.2 | 8.4  | 0.86 |
| 문<br>화<br>·<br>여<br>가 |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86 | 7.4  | 12.1 | 0.90 |
|                       |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            | 86 | 7.4  | 12.1 | 0.90 |
|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 78 | 7.4  | 11.0 | 0.81 |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 77 | 7.4  | 10.8 | 0.80 |
|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71 | 7.4  | 10.0 | 0.74 |
|                       |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 68 | 7.4  | 9.6  | 0.71 |
|                       |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 68 | 7.4  | 9.6  | 0.71 |
|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 65 | 7.4  | 9.1  | 0.68 |
|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 63 | 7.4  | 8.9  | 0.66 |
|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 49 | 7.4  | 6.9  | 0.51 |
| 환<br>경                |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 | 96 | 11.8 | 13.3 | 1.56 |
|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87 | 11.8 | 12.0 | 1.41 |
|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81 | 11.8 | 11.2 | 1.32 |
|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70 | 11.8 | 9.7  | 1.14 |
|                       |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 70 | 11.8 | 9.7  | 1.14 |
|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68 | 11.8 | 9.4  | 1.11 |
|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 66 | 11.8 | 9.1  | 1.07 |
|                       | 녹색건축 인증 확대                    | 63 | 11.8 | 8.7  | 1.02 |
|                       | 자전거 이용 확대                     | 62 | 11.8 | 8.6  | 1.01 |
|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 60 | 11.8 | 8.3  | 0.98 |



## 2. 정책 우선순위

앞서 도출한 전반적 가중치에 따른 90개의 지역사회보장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1위는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나타났다. 2위는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3위는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 달성제 시행이었다. 4위는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5위는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으로 나타났다.

[표 5-12] 지역사회보장정책 우선순위

(단위: 점, %)

| 우선 순위 | 주 영역  | 정책 방안                                    | 총점 | 전반적 가중치 |
|-------|-------|--|----|---------|
| 1     | 아동 돌봄 |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 95 | 1.77    |
| 2     | 아동 돌봄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 87 | 1.62    |
| 3     | 환경    |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 달성제 시행            | 96 | 1.56    |
| 4     | 아동 돌봄 |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                          | 79 | 1.47    |
| 5     | 고용    |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 88 | 1.45    |
| 6     | 고용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 87 | 1.44    |
| 7     | 환경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87 | 1.41    |
| 8     | 성인 돌봄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82 | 1.39    |
| 8     | 성인 돌봄 |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82 | 1.39    |
| 10    | 성인 돌봄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 81 | 1.38    |
| 11    | 고용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 83 | 1.37    |
| 11    | 고용    |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 83 | 1.37    |
| 11    | 건강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90 | 1.37    |
| 14    | 아동 돌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 73 | 1.36    |
| 14    | 아동 돌봄 |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                         | 73 | 1.36    |
| 16    | 성인 돌봄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 79 | 1.34    |
| 16    | 성인 돌봄 |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79 | 1.34    |
| 16    | 건강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88 | 1.34    |
| 19    | 환경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81 | 1.32    |
| 20    | 아동 돌봄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탈 운영                | 69 | 1.28    |
| 21    | 성인 돌봄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문화 확산 | 75 | 1.27    |
| 22    | 아동 돌봄 | 직장어린이집 확충                                | 66 | 1.23    |
| 23    | 성인 돌봄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                           | 72 | 1.22    |
| 23    | 고용    | 경력단절여성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 74 | 1.22    |
| 23    | 고용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                      | 74 | 1.22    |
| 26    | 교육    |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 91 | 1.21    |
| 26    | 보호·안전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지원          | 86 | 1.21    |

|    |       |                               |    |      |
|----|-------|-------------------------------|----|------|
| 26 | 고용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73 | 1.21 |
| 26 | 고용    |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지원          | 73 | 1.21 |
| 30 | 건강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79 | 1.20 |
| 31 | 아동 돌봄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                  | 64 | 1.19 |
| 31 | 고용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             | 72 | 1.19 |
| 31 | 성인 돌봄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70 | 1.19 |
| 31 | 건강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             | 78 | 1.19 |
| 35 | 주거    | 생활SOC 사업의 확충                  | 84 | 1.18 |
| 35 | 보호·안전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 84 | 1.18 |
| 35 | 보호·안전 |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 84 | 1.18 |
| 35 | 보호·안전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84 | 1.18 |
| 39 | 건강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77 | 1.17 |
| 39 | 건강    |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77 | 1.17 |
| 41 | 환경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70 | 1.14 |
| 41 | 환경    |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            | 70 | 1.14 |
| 41 | 성인 돌봄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67 | 1.14 |
| 44 | 아동 돌봄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               | 61 | 1.13 |
| 45 | 보호·안전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모델 확대       | 80 | 1.12 |
| 46 | 주거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79 | 1.11 |
| 46 | 주거    |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                   | 79 | 1.11 |
| 46 | 환경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68 | 1.11 |
| 49 | 성인 돌봄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 | 65 | 1.10 |
| 50 | 고용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 66 | 1.09 |
| 51 | 건강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71 | 1.08 |
| 51 | 건강    | 미충족으로 대상자 지원                  | 71 | 1.08 |
| 53 | 교육    | 미래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81 | 1.07 |
| 53 | 환경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         | 66 | 1.07 |
| 55 | 교육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 80 | 1.06 |
| 55 | 주거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75 | 1.06 |
| 55 | 주거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 75 | 1.06 |
| 55 | 주거    |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75 | 1.06 |
| 59 | 교육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79 | 1.05 |
| 60 | 건강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      | 68 | 1.04 |
| 61 | 교육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           | 78 | 1.03 |
| 62 | 환경    | 녹색건축 인증 확대                    | 63 | 1.02 |
| 62 | 교육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 77 | 1.02 |
| 64 | 환경    | 자전거 이용 확대                     | 62 | 1.01 |
| 65 | 주거    | 노후공동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 71 | 1.00 |
| 66 | 보호·안전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               | 70 | 0.98 |
| 66 | 환경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          | 60 | 0.98 |
| 68 | 보호·안전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          | 69 | 0.97 |
| 69 | 건강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              | 63 | 0.96 |
| 70 | 아동 돌봄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51 | 0.95 |

|    |       |                                    |    |      |
|----|-------|------------------------------------|----|------|
| 71 | 교육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 71 | 0.94 |
| 72 | 문화·여가 |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86 | 0.90 |
| 72 | 문화·여가 |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                | 86 | 0.90 |
| 74 | 교육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 66 | 0.88 |
| 74 | 교육    |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 66 | 0.88 |
| 74 | 교육    |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66 | 0.88 |
| 77 | 주거    |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62 | 0.87 |
| 78 | 주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 61 | 0.86 |
| 79 | 주거    |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확대 운영                  | 61 | 0.86 |
| 80 | 보호·안전 | 보행자 도로 확대                          | 59 | 0.83 |
| 81 | 문화·여가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                  | 78 | 0.81 |
| 82 | 문화·여가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 77 | 0.80 |
| 82 | 보호·안전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               | 57 | 0.80 |
| 84 | 문화·여가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71 | 0.74 |
| 84 | 보호·안전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 | 51 | 0.72 |
| 86 | 문화·여가 | 권역별 문화·여가시설 확충                     | 68 | 0.71 |
| 86 | 문화·여가 |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                  | 68 | 0.71 |
| 88 | 문화·여가 |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 65 | 0.68 |
| 89 | 문화·여가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 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        | 63 | 0.66 |
| 90 | 문화·여가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                    | 49 | 0.51 |



##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 제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고양시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분석 전략과 관점을 반영하는 수렴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표에 근거하여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 및 인프라로 나누어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과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욕구를 종합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를 활용하여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심층 분석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 돌봄 욕구 및 정책 방안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도출된 아동 돌봄 욕구를 분석한 결과 아동 분야 전반에서 아동 돌봄서비스 인식도가 낮고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기술’ 부분의 어려움 경험 정도와 외부 지원과 서비스 필요성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보육 만족도, 사회적 돌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며 만족도에서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대안으로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아동돌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아동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조사기획, 아동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와 포탈 운영, 아동 돌봄 기관과 종사자 지원, 아동 돌봄 특화 서비스 지원, 수요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공급 파악,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구축, 행정구별 초등 돌봄 협업 거점 센터 구축, 돌봄 협의체 하위 조직으로 현장 실무자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시 아동 돌봄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고양시 아동 돌봄을 브랜드화하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포탈)을 구축하여 서비스와 기관 소개, 이용 안내, 돌봄 예약신청, 육아 정보, 돌봄서비스와 기관 홍보, 자료 공유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영유아 돌봄의 경우 대체

교사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초등 돌봄의 경우,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과 근무시간 연장, 행정업무 간소화, 초등돌봄전담사 양성 등이 필요하며 업무 스트레스 완화와 돌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모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영유아 돌봄 영역에서는 보육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집 포용률도 지역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직장어린이집이 적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역시 1개소로 장애아동을 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운영상 어려움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 인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시설 개선과 확충도 필요하다. 또한 인건비 지원 예산 상향 조정, 평가 우수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이 필요하다.

초등 돌봄 영역에서는 2021년 초등 돌봄 공급률이 11.65%로 수요보다 공급률이 매우 낮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대기자가 매우 많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유사 인구 지역과 비교하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부모들은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외동 자녀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활동 부모도 아동 돌봄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시·긴급·틈새 보육과 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야외활동과 놀이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인식 개선 관련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으로는 초등돌봄 기관 확충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마을 돌봄 기관과 학교돌봄 기관 양쪽을 다 확대해야 하며 주민과 보호자의 애착과 연대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설 활용이 용이한 고양시 공동체 돌봄사업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일시·긴급·틈새 보육과 돌봄이 강화되어야 하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야외활동과 놀이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인식 개선 등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2. 성인 돌봄 욕구 및 정책 방안

성인 돌봄을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으로 나누어 욕구와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돌봄에서 고양시 장애인구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 전국 시군구 중에 세 번째로 많으며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다. 고양시의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가 등록장애인의 44%로 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의 요구가 높다. 사회보장 영역 중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필요성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욕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서비스 인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의 노력체감도에서 장애인 돌봄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 장애아동 보호자는 ‘경제적 어려움’, ‘활동지원사를 찾는 데 어려움’, ‘단기시설의 확대 절실’, ‘주간보호센터 이용 기간이 제한되어 나이 듦에 따른 장애 자녀 돌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주보호자의 건강과 돌봄노동의 지원’ 등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1,000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가 경기도 전체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양시는 감소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1개소만 있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계속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10개소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서비스 제공 시설과 설비 확충(30.2%),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장애 특성에 따른 개인별 지원프로그램 개설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와 같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확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자조 모임, 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학령기 졸업 이후 개인별 특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주간보호시설 확충(뇌병변, 고령장애인)이 필요하다. 그 외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교육 시행,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최중증장애인 등을 고려한 추가 인력을 지원하여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복합욕구를 지닌 발달장애아동의 가정에 찾아 가는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도 필요하다.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덕양구에 추가 설치를 비롯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장애 유형에 따른 양육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노인인구는 2022년 14.6%로 비율은 높지 않지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고령화 대응이 필요하다. 고양시 노인의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아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동 공간 등에 노인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요보호노인 비율이 상승 중이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양시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많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았다. 노인 관련 서비스 인지도가 낮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연계 욕구가 높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노인은 건강 악화 시 시설 입소보다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우울증 증가에 맞추어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 대상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문화 확산과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하고 노인복지관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 전담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2026년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화 계획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 작성과 추진이 필요하다.

### 3. 보호·안전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보호·안전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부문은 2등급이며 감염병 부문은 3등급으로 교통사고와 감염병 부문은 6년간 등급이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을 운영 중이나 시민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시민의 안전도 평가 또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범죄피해 두려움과 야간상황별 범죄피해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 정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고양시의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강력범죄는 계속 증가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시도보다 매우 낮은 편이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미세먼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오존주의보·경보 발령이 많은 편이고,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지반 침하가 잦은 도시이다. 또한 고양시 보건소에 감염병 관련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전화 설치와 홍보 강화, 학대·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학대·폭력 피해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 구축, 아동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확대와 종사자 전문성 제고 등 보호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를 강화하고 우범지대의 순찰 강화,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심 귀가 서비스 시행 등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예방환경 디자인(CEPTED)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 도로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반 침하(싱크홀) 등의 신종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 4. 건강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건강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노년층은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9.5%로 고양시 평균보다 매

우 높았고 미충족 의료율은 6.1%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권역별,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노년층의 만성질환율이 84.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흡연율이 유사 인구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울감은 여성, 노년층, 일산동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증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41.7점, 장애가구는 39.1점으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상당히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행정구별로 건강을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덕양구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음주, 비만율, 고혈압 진단율이 덕양구에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같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덕양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으로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과 예방적 건강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와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정신 응급 위기 대응 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웰다잉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와 미충족 의료 대상자 지원도 필요하다.

## 5. 교육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교육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교육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15%로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다. 교육 분야에서 주로 불편한 점은 정보 부족으로 나타났고 교육 분야의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종합정보 제공과 이용 비용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에서는 인성 함양과 공교육 강화를, 사회교육·평생교육에서는 직업훈련과 교육 강화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환경은 불만족이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보육 만족도에서 덕양남부가 가장 낮았고 지역 차가 컸다. 평생교육 만족도는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학교 교육 외 교육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가구는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학업 유지의 어려움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아동가구는 평생교육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호소했다. 공립 특수교사 수가 수원시나 용인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의향은 77.1%로 높지만 장애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16.1%로 높지 않으며 고양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학습·강좌·프로그램(20.6%)’, ‘다양한 정보 공유(10.5%)’, ‘홍보 강화(7.9%)’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것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으로 학교 내 생활 적응 프로그램 강화, 인성 함양 공교육 강화 등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와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교사 인원 확충, 통합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 장애학생 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계층별,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여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평생학습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 개선, 학습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마련, 인력 전문성 강화 등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6. 고용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고용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다른 지역 대비 전체 고용률, 여성 고용률과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노인의 고용환경은 직업 안정성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관련 영역 중 임금과 소득 불만이 가장 높았고 고양시 정책 중 일자리 정책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높은 항목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 ‘취업, 창업 정보 부족’,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가족 돌봄, 가사 등으로 겪는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에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보장 영역 중 가장 찾기 어려운 정보는 일자리 정보로 나타났다. 고양시민의 49.1%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일자리 발굴(36.6%), 취업 알선(20.1%), 창업지원(13.9%), 직업훈련(12.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산재 경험률이 높고 산재 해결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 근로계약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비경제활동 여성은 41.3%로 많은 편이며 경력단절 여성의 78.5%가 재취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고양시 전체 고용률 2.1%p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편이며 청년들은 고양시 일자리 정책에서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가 경기도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고용 욕구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으로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창업지원과 고양시 중소기업, 벤처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디지털(온라인) 고용센터 시스템(통합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구인-구직-상담-연계-고용의 원스톱 자동화 서비스 제공,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여 대상별, 직무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일자리 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과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직업 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한 세대별, 경력별, 성별 맞춤형 교육기관 설치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인의 높은 고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개발과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와 근로 지원도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근로환경 개선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와 권익 지원,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도 필요하다.

## 7. 주거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주거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 개발지역 간 생활SOC 등 불균형이 심화한 경향이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인식 정도는 5점(보통)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은 주택 주변 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거와 관련해 필요한 시설로 일산동구는 공영주차시설, 덕양구는 공원, 녹지, 산책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에 비해 더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에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보다 불만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월세 부담이 높으며 중장년층도 월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도시 개발 시기 공급물량의 노후화로 구도심 관리 필요성이 높고 주거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 중심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차장 등 주거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결합한 생활SOC 사업 확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단독주택지 안심 관리제 확대 운영과 노후공동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 담장과 대문 허물기 사업 등을 통한 공유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

## 8. 문화·여가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문화·여가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총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은 2.02%로 적으며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역시 적은 편이다. 문화기반시설 수는 인구 10만 명당 2.7개소로 유사 인구 지역보다 적고 고양시는 전통문화 육성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의 접근성 만족도가 높지만, 일·여가 균형 정도와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공간 접근성 관련 만족도는 다른 시설(도서관, 생활체육시설)에 비해 다소 낮았다. 전반적 만족도가 낮고 덕양구와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비교군에 비해서도 낮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인구는 8% 정도이며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

로 여가시설 부족(26.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적 부담(26.3%), 시간 부족(13.0%), 교통혼잡·교통수단 불편(12.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여가시설 부족으로 나타난 불만족 비율이 약 4배 증가했다. 관광지 선택 시 인터넷 및 모바일 앱(83.8%)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역사자원의 경우 발굴만 이루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질적 도약이 필요하며 고양시의 지역예술인 지원이 미미한 편이다. 외국인과 다문화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외국 국적 동포나 중도입국 자녀는 과반이 법무부 지원서비스를 모르고 시간의 제약, 정보 접근의 제약 등으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으로 시민의 문화공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 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미래 문화자원으로서 보급, 유통되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고양시 문화예술인의 창작, 유통, 전시 기획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시민참여 확대와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고양시민의 지역 정체감 향상을 위한 고양학 연구·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 MICE 관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와 태도 습득을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도 필요하다.

## 9. 환경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환경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총예산 대비 환경 관련 예산과 1인당 환경보호 예산이 유사 인구 지역에 비해 적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이 낮은 편이며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도 낮다. 녹지환경과 도시공원 접근성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반면에 대기 환경과 소음진동 저감 만족도가 낮다.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발생량보다 적고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 부족하다. 현재 고양시 내 4곳(일산, 원능, 벽제, 삼송)과 난지처



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일산을 제외한 3곳은 2023~2030년에 처리량의 90~99%에 도달하거나 처리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단투기가 가장 큰 문제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생활민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나 고양시민의 31.4%는 서울로 통근·통학하고 노선 부족과 배차 간격에 따른 버스 이용 불만족률이 만족률보다 높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탄소배출 감소량과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를 시행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환경보호 활동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도시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 확대와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와 이를 위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하수나 쓰레기 관련 신규 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하고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낡은 시설 리모델링 시 고효율 녹색건축물 조성 등이 필요하다.

## 10. 삶의 질 욕구 및 정책 방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삶의 질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민 행복도는 경기도 전체보다 낮은 편이며 생계유지 어려움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돌봄 만족도도 낮은 편이며 복지시설 충분성도 낮은 편이다.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욕구가 높으며 정보 접근성을 위해 무료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동편의시설 마련, 정보 소외계층에 맞춘 정보 제공, 디지털 활용 무료교육 마련, 정보 소외계층에 인터넷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 대중 신뢰도가 낮은 편이며 자원봉사와 기부율도 감소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 방안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세대별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양시 복지환경의 진단, 데이터 관련 연구 등이 부족하므로 통합시스템을 통한 현장 허브를 마련해야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정보 외에 지류, 문자 등의 전통적인 수단을 통한 홍보와 함께 앞으로 늘어날 디지털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낮은 신뢰도 개선을 위해 전 연령대의 마을 소통 창구를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약한 중장년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춤형 빈곤 개선 정책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 11.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 및 성별, 세대별, 지역별 비교

각 영역의 만족도는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자가 소유일수록, 덕양구와 일산서구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거주지 소속감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 욕구에서 저소득층의 욕구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안전과 경제·고용 만족도가 낮은 여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중에서는 덕양구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성별 차이에서는 교육·보육 만족도와 주거 만족도, 환경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낮았고 안전, 건강·복지, 경제·고용, 문화·여가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대별로는 교육·보육 만족도, 안전 만족도, 건강·복지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환경 만족도에서는 청년, 중년, 노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고용에서는 중년의 만족도가 청년보다 높았다. 세대 중 노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에서 노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적으로 덕양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일산동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보육 만족도와 경제·고용 만족도는 일산서구가 가장 높았다.

## 12. 지역사회보장영역 중요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삶의 질 관련 욕구와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보장 10대 영역 중 결과지표인 삶의 질을 제외한 9개 영역에서 영역 우선순위는 아동 돌봄(92점, 13.4%) > 고용, 성인 돌봄(각각 88점, 12.8%) > 환경(81점, 11.8%) > 건강(80점, 11.6%) > 보호·안전, 주거(각각 70점, 10.2%) > 교육(69점, 10%) > 문화·여가(51점, 7.4%) 순으로 나타났다.

## 13. 영역별 지역사회보장 정책 우선순위

지역사회보장 정책 영역별 우선순위는 아동 돌봄 영역에서는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 타워 구축(13.2%) >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12.1%) >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11.0%)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각각 10.2%) > 고양시 아동 돌봄 모델 브랜드화 및 포털 운영(9.6%) > 직장어린이집 확충(9.2%) > 아동 돌봄 종사자 지원(8.9%) > 아동과 부모 친화 환경 조성(8.5%)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7.1%)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돌봄 영역에서는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각각 10.9%) >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10.8%) > 고양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각각 10.5%) >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활동적 노화 문화 확산(10%) > 돌봄 대상 노인 적극 발굴(9.6%) > 장애인·노인복지관 추가 건립(9.3%) >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8.9%) > 건강검진 수급권과 장애여성의 양육권 실현을 위한 지원(8.6%)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안전 영역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정책(11.9%)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 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의 협치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각각 11.6%) > 범죄 예방환경 디자인(CEPTED) 모델 확대(11.0%) > 여성 범죄 예방 서비스 확대(9.7%) > 대기환경 개선 지원 및 시민참여 강화(9.5%) > 보행자 도로 확대(8.1%) > 지반 침하 등의 신종 재난 대응 강화(7.9%) >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심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성 확대(7.0%) 순으로 나

타났다.

건강 영역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11.8%) > 노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11.5%)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10.4%) > 저소득 취약계층 질환 관리 강화(10.2%) > 지역 건강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각각 10.1%)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미충족의료 대상자 지원(각각 9.3%) > 웰다잉(well-dying) 추진 기반 마련(8.9%) > 고양시 보건 전문가 인력 확충(8.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12.1%) > 미래교육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10.7%) > 학교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10.6%)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10.5%)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10.3%) > 계층별, 세대별 세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10.2%) > 특수교육 인프라 개선(9.4%) >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강화,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각각 8.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에서는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11.4%)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11.3%) > 일자리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각각 10.7%) > 경력단절여성미래 유망 일자리 모델 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및 권익 지원(각각 9.6%) > 고양시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인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근로 지원(각각 9.4%) > 재취업 교육기관 설치 및 활성화(9.3%) >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8.5%)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영역에서는 생활SOC 사업 확충(11.6%) > 외곽지역 거주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공유주차장 사업 확대(각각 10.9%)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사업 내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각각 10.4%) > 노후공동주택 정비사업 활성화(9.8%) > 중 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8.6%)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단독주택지 안심 관리제 확대 운영(각각 8.4%)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문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문화·여가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추진(각각 12.1%) >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시행(11.0%)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10.8%)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10.0%) > 권

역별 문화 여가시설 확충, 스마트 MICE 관광 환경 조성(각각 9.6%) > 시민참여형 지역 축제 활성화(9.1%) > 고양시 문화예술인 창작·유통·전시·기획 활동 지원(8.9%) > 고양학 연구 및 사업 활성화(6.9%)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13.3%)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12.0%) > 환경보호 활동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11.2%) > 도시공원 조성 확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대수 확대(각각 9.7%) >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9.4%) > 하수처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 방법 개선(9.1%) > 녹색 건축 인증 확대(8.7%) > 자전거 이용 확대(8.6%)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대시민 홍보(8.3%) 순으로 나타났다.

## 14. 지역사회보장 정책 우선순위

영역별 가중치와 영역 내 가중치를 고려한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아동 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1순위이며, 초등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가 2순위, 탄소배출 감소량과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이 3순위이다. 이어 국공립·준공영 어린이집 확충이 4위, 청년 취업을 위한 신산업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이 5순위로 나타났다. 6순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근로환경 개선 지원, 7순위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다.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고령·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가 공동 8순위이며, 장애 유형에 따른 주간 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가 10순위이다. 일자리 정보시스템 활성화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확대,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공동 11순위이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고양시 공동체 돌봄 사업 지원이 공동 14순위로 나타났다. 상위 15순위 내의 영역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아동 돌봄이 최상위권에 있으며 고용, 성인 돌봄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교육과 문화·여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는 고양시민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수렴적 욕구분석 모델에 근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 욕구는 영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교육·고용·주거·문화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내용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가 도출된 만큼 고용, 주거, 문화 영역의 욕구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영역 전반에 걸쳐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보장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보장 영역 만족도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민일수록 지역사회보장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보장 영역에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차이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에 교육, 문화, 환경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예산 투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욕구를 고루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투입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보장 영역 중 아동 돌봄, 성인 돌봄, 고용, 환경 영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 30년은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적 돌봄의 인식 증가로 돌봄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또한 고용은 생계유지와 삶의 질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청년부터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세대별 접근과 더불어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대상에 맞추어 맞춤형 고용정책 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90개 주요 정책 중에 탄소배출 감소량 및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 달성제 시행이 2위를 차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영역별 중요도에서도 돌봄, 고용 다음으로 환경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립에 큰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다양한 자료원과 분석 방법을 활용한 수렴적 욕구 분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에 근거하여 단선적인 욕구 분석을 사용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보고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 FGI 결과, 행정자료,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과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 더 다양하고 자세한 영역별 욕구가 도출될 수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도 같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 욕구 분석에서 수렴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역사회보장 지표뿐 아니라 고양시에서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혜규, 김보영, 주은수 외(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지자체의 제4기 계획·수립·실행 지원 연구.
- 강혜규, 박세경, 정해식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 고양시(2018). 2018 제3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a). 제5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 고양시(2021b).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고양시(2021c). 고양시 코로나19백서.
- 고양시(2022). 2022년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안).
- 권선영, 황설화(2019).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운영 사례분석.
- 권선영, 황설화(2020a).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욕구 분석 연구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 권선영, 황설화(2020b).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김대석, 박근덕, 안희철 외(2020). 제2차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리영(2020a). 고양형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 김리영(2020b). 주거정책 변화와 고양시 주거정책 방향 연구
- 김리영, 최영돈(2021). 고양시 주거지 분화 특성 연구.
- 김미정, 최인화, 이초록(2019). 고양시 중장기 보육계획(2020~2024).
- 김용덕, 김은지(2021). 고양시 창업생태계 효율성 지수 추정 및 주요시사점.
- 남승연, 이경민(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 도로교통공단(2021). 2020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 문정화, 유선치, KANG CHAE RYUN(2018). 고양시 사회보장 통계분석.



- 문정화, 유선치, 임연옥(2019).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방안 연구.
- 문정화, 유선치(2020).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문정화, 유선치, 고아라(2020). 고양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1-2024) 수립 연구.
- 문정화, 고아라(2021).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문정화, 선승아, 고아라(2021). 고양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정책 연구.
- 문정화, 성기욱, 김성원, 선승아(2022). 고양특례시 사회보장진단 및 정책제안-성인 돌봄, 아동 돌봄.
- 문정화, 성기욱, 선승아(2022). 고양시 아동 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모델 개발 연구.
- 백주현 외(2021). 고양시 30년, 특례시 30년 - 도시정책.
- 보건복지부(202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 서인해, 공계순(2004).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나남 출판사.
- 신범순, 류진아, 정찬진 외(2016).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
- 양희택, 박현숙, 오은경 외(2018). 고양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연구.
- 오민수, 이은아, 김주연(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 윤신희(2020). 고양시민의 '평생학습'은 어떠할까요?. 고양시정연구원 인포그래픽, 9.
- 윤신희, 이세훈(2021).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윤신희, 이세훈, 김지훈(2022). 데이터로 본 고양 변천.
- 이병화, 김성연, 부성은 외(2018).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이병화, 강민희, 노승현 외(2019).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 이병화, 이선정, 김준범, 이미영(2019).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최소화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이병화, 최선아, 박지환(2021).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정철, 조동익(2022). 고양시 지반 침하 이슈와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 이정철, 황휘욱(2020).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이현정, 조동익(2019). 고양시 청년·민간부문 일자리 맞춤방안 연구.

- 이현정, 조동익, 김명호(2018).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현황 분석.
- 임지열, 김준우, 손덕주, 최사라(2019). 고양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방안 연구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
- 임지열, 소가람(2020). 고양시 자원순환 시설 개선 방안 -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대상으로.
- 임지열, 소가람(2021a). 고양시 그린뉴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 임지열, 소가람(2021b).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기초연구.
- 전성훈 외(2021). 고양시 30년, 고양특례시 30년 - 시민정책.
- 전성훈, 오은지(2020).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 조사.
- 전진호, 한상미(2013). 지역사회복지관 주민 욕구 조사 사례 분석-수렴적 욕구 조사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307-325.
- 정광진, 조해송(2021).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저층주거지 주거안정화 방안 모색 연구.
- 질병관리청(2021). 지역사회 건강통계.
- 함영진, 안창원, 김기호 외(2014). AHP 분석을 활용한 사회보장부문 빅데이터 활용가능영역 탐색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49-60.

#### [해외문헌]

- Benveniste, G.(1972). The Politics of Expertise, Berkeley, CA: The Gundessary Press.
- Bush, J.(1995). Difference and Similarity in Needs Assessment Studies" Journal of Community Evaluation Research 26(3), 25~35
- Cohen, B. J. (1981). Do you really want to conduct a needs assessment. Management and Behavioral Science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Demarest, L., Holey, L., & Leatherman, S. (1984, October). The use of multiple methods to assess continuing education needs. In annual meeting of the Evaluation Network, San Francisco.
- Harlow, K. S., & Turner, M. J. (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s: Needs

- assessment revisited. *The Gerontologist*, 33(2), 190-199.
- Kamis, E. (1979). A witness for the defense of need assessmen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1), 7-12.
- Seo, I. H. (1998). Utilizing research technology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s: factors contributing to implementing a convergent needs assessment model in area agencies on aging. The Ohio State University.
- Siegel, L. M., Attkisson, C. C., & Carson, L. G. (1978). Need identification and program planning in the community context. *Evaluation of human service programs*, 215-252.
- United Way of America. Planning, Allocations Division, & United Way Institute. (1982). *Needs Assessment: The State of the Art: a Guide for Planners, Managers, and Funders of Health and Human Care Services*.
- Witkin, B. R. (1992, November). A qualitative analysis of needs assessment in the 1980s: The state of the art. In annual meeting of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Seattle, Washington.

#### [기타자료]

- 경기데이터드림.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별 집계현황. <https://url.kr/e7owra>.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https://www.kengy.go.kr/>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gg1389.or.kr/>.
- 고양시민안전센터 [http://www.goyang.go.kr/www/www03/www03\\_1/www03\\_1\\_13.jsp](http://www.goyang.go.kr/www/www03/www03_1/www03_1_13.jsp)
- 고양인터넷신문(2022.05.11.). 고양시, 관내 8개 학교에서 배우는 시민 생활체육교실·참여자 선착순 모집. [http://www.gy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2323](http://www.gy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2323)
- 고양특례시 보건소. <http://www.goyang.go.kr/health/index.do>.
- 공공데이터포털. 고양시 등록장애인 현황(2021). <https://www.data.go.kr/index.do>.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 김아름(2021.09.11.). 등록장애인 수 전국 3위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돌아본다. 고양파주투데이.

<http://goyangtoday.co.kr/View.aspx?No=1839041#>

데이터안심구역. 고양시. <http://datakorea.datastore.or.kr/>.

설재훈(2022.07.26.) [독자기고] 고양시는 왜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1위 도시가 됐나.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53>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바로알기.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1>.

어린이집정보공개포탈. 어린이집 기본정보, [info.childcare.go.kr](http://info.childcare.go.kr).

에어코리아. 권역별 주의보/경보 발령 내역. <https://www.airkorea.or.kr/web/>.

지역안전지수 공개서비스,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침하사고. <https://www.jis.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 Abstract

### An In-depth Analysis of Goyang Citizens' Needs for Community Security

Junghwa Moon\*, Seunga Sun\*\*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Goyang citizens' needs for community security in depth by using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and applying a convergent analysis method that reflects various analysis strategies and perspectives. Specifically, based on the indicators of the local social security plan, Goyang City's need for community security is divided into child care, adult care, protection/safety, health,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culture/leisure, environment, quality of life and infrastructure, and various data sources was used for analysi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by domain and differences by gender and generation were analyzed. Based on such an analysis, the needs of each area of local social security in Goyang were synthesized and policy measures were derived, and the priorities for policy measures in each area of local social security in Goyang were derived using the expert AHP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analysis of needs for community security in Goyang city were presented.

---

\*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Research Associate,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